

**북한의 대남심리전 양상과
대응방안 연구**

**북한의 대남심리전 양상과
대응방안 연구**

치안정책연구소 안보대책연구실

연구관 송경호

목 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6
제2장 심리전에 관한 배경이론	8
제1절 심리전의 개념	8
제2절 심리전의 역사적 고찰	14
1. 소극적 심리전시기(고대~시민혁명 이전까지)	14
2. 심리전 부흥시기(시민혁명 이후~제2차 세계대전까지)	15
3. 고도의 심리전시기(제2차 세계대전 이후~현재)	21
제3절 심리전의 특성과 유형	31
1. 심리전의 특성	31
2. 심리전의 유형	33
제4절 심리전의 수단과 방법	38
1. 심리전의 수단	38
2. 심리전의 방법	41
제3장 북한의 대남심리전 체제	45
제1절 대남심리전 기본전략	45
제2절 북한의 심리전 체제	49
1. 대내심리전 기구	52
2. 대외심리전 기구	53

3. 대남심리전 기구	56
4. 대남심리전 체제	58
제4장 북한의 대남심리전 실태	64
제1절 심리전 매체별 운용실태	64
1. 전파매체	66
2. 인쇄매체	72
3. 문예매체	77
4. 특수매체	78
제2절 대남심리전의 시기별 특징과 전개양상	88
1. 제1단계 : 무력통일 추진기(1945~1953)	88
2. 제2단계 : 위장평화공세기(1954~1960)	91
3. 제3단계 : 폭력혁명시도기(1961~1970)	92
4. 제4단계 : 대화와 대결 병행시기(1971~1980)	94
5. 제5단계 : 반정부 연합전선 형성기(1981~1993)	95
6. 제6단계 : 남북화해와 평화공존 모색기(1994~현재)	97
제5장 대남심리전 대응책	102
제1절 대남심리전의 강점과 약점	102
제2절 한국의 대응방안	110
제6장 결 론	119
참 고 문 헌	131

표 목 차

<표 2-1> 전략가들의 심리전략 및 정신전력관 비교	9
<표 2-2> 주요 매체의 장점과 단점	39
<표 3-1> 북한이 설정하고 있는 혁명적 세계관 형성과정	45
<표 3-2> 북한의 심리전 기구도	51
<표 3-3> 대내심리전 기구	53
<표 3-4> 대외심리전 기구	54
<표 3-5> 대남심리전 기구도	57
<표 3-6> 북한군 심리전 체계도	60
<표 3-7> 주요 대상별 선전선동 내용	63
<표 4-1> 심리전 매체별 운용 현황	64
<표 4-2> 북한 라디오 방송국 현황과 특징	71
<표 4-3> 주요 친북한 인터넷 사이트	80
<표 4-4> 선전 구호관 변천과정	84
<표 4-5> 대남 확성기방송 주제별 현황	97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인간은 과학문명의 발달과 더불어 자연환경을 극복해 왔으며 그 과정에서 엄청난 힘과 기술, 지혜를 소유하게 되었다. 그러나 인간 스스로 만들어 낸 국가의 행위를 제어하고 인류가 지향하는 공동의 목표를 창조해 나가야 하는 절박한 과제를 안고 있다.

더구나 국제사회는 전투기를 비롯한 대량살상무기를 본격적으로 개발하고 실전배치하면서부터 세계 도처에서는 군사적 위협이 더욱 가중되어 왔다. 따라서 향후 국제정세도 예측하기 어려운 시대로 접어들고 있는 것이다.

현대전은 총력전이며 전후방이 따로 없는 전면전, 입체전, 정보전의 성격을 띠고 있다. 전쟁에서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서는 정치, 경제, 사회, 군사, 문화 등 국가의 종합적 역량의 총체적 결집이 요구된다. 최근에는 무력전 못지않게 정치전 내지는 심리전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는 추세이다.

북한은 김일성사망(1994년 7월 8일) 이후 지속되어온 사회적 혼란과 경제적 어려움, 국제적 고립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남 적화통일 야욕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핵무기를 비롯한 탄도미사일과 생화학무기를 본격적으로 개발하여 실전에 배치함으로써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시아의 군사적 위협을 고조시켜 왔다.

김정일은 북한의 ‘국가적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정책대안으로 ‘선군정치’와 ‘강성대국론’을 제시하고 ‘우리식 사회주의’ 체제 수호

를 위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정점으로 한 당의 유일사상체계와 유일적 지도체제 확립에 혈안이 되어 있는 모습이다.

또한 남한혁명의 궁극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혁명의 결정적 시기 조성’에 집착 하면서 군사행동과 대남 적화통일의 한 수단으로 심리전 정책을 병행하여 추진하면서 정치심리전을 획책하고, 상호불신과 좌익세력의 시위과격화를 배후조종하는 등 정부와 국민을 이간시키고 한미동맹 약화, 반공의식 희석화, 사회혼란 조장, 국군의 사기 저하, 반미, 반정부 대중투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손자는 “지피지기 백전백승(知彼知己 百戰百勝)”이라 하였고, 중국을 통일한 마오쩌둥(모택동)은 “무엇보다도 민중의 마음을 잡아라”라는 인민전쟁 전략을 구사하여 장제스(장개석)국민당 정부와의 국·공내전에서 승리를 거두었다.¹⁾

이와 같은 역사적 사례는 아무리 현대적 장비로 무장한 강대국이라 할 지라도 이를 다루고 있는 군인들의 정신력이 얼마나 위대한 것이며 적을 교란·와해시킬 수 있는 심리전 전략전술의 중요성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특히 한국은 자유중국과 다소 차이는 있을지라도 한반도에서 국토와 민족, 사상을 통일해야 한다는 점에서 볼 때 자유중국과 근본적으로 다를 바가 없다. 따라서 이들의 뼈아픈 교훈을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1) 마오쩌둥은 장제스에 비해 상당한 열세로 출발하였으나 통일전선 전술의 교묘한 심리전 전술로 최후의 승자가 되었다. 마오쩌둥의 통일전선 전술은 크게 3단계로 나누어 진행되었으며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제1단계는 ‘국·공 합작을 통한 항일전’ 전술로 폭발적인 국민적 지지기반을 확대하였다.

제2단계는 ‘우군화 공작’ 전술로 국민당 내부로부터의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면서 점진적인 지지기반을 확대하였다.

제3단계는 ‘지지세력 분리 및 내부로부터의 민중세력 여건조성’ 전술로 장제스를 반민중세력으로 규정하고 내부로부터의 민중혁명을 완성하였다.

심리전은 인간의 정신적 심리분야와 관련되어 있고 물리력을 가하지 않고도 상대방을 타승 할 수 있는 커다란 위력의 힘을 발휘할 수 있으며 최후의 승리를 보장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다 과학적이고 철저한 심리전 태세를 갖추어 나가는 것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시점이다.

최근 북한은 한국이 정치·경제·군사·외교·사회·문화 등 전반적인 분야에서 대북 우위를 차지하게 되자 기존의 전파 및 인쇄매체를 통한 대남심리전 방법을 보다 진일보 한 각종 문예매체와 국제우편, 팩스, 컴퓨터통신망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적극적인 대남모략 선전·선동을 모색하면서 위장평화공세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현재 ‘친북한 인터넷 사이트’는 중국과 일본, 미국, 스페인, 뉴질랜드, 덴마크, 독일, 남아공 등 제3국을 통해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김일성, 김정일 부자 우상화와 북한체제 찬양, 대남투쟁 3대 과제²⁾에 입각한 반미, 반정부 대중투쟁 선전선동을 강화시켜 나가고 있다.

북한이 인터넷상에서 대남심리전의 중요성을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인터넷은 국가보안법이 무력화된 공간이며 인터넷 게시판은 항일유격대가 다루던 총과 같은 무기”라는 한민전방송의 지침³⁾을 통해서도 입증된 사실이다.

대한민국 국방부의 발표에 의하면 친북한 인터넷 사이트가 2천개에 달

2) 1970년 11월 제5차 당 대회에서 대남투쟁 좌표로 설정하고 1985년 7월 27일 결성된 한민전의 3대 투쟁 강령으로 구체화하였다.

① 자주(반미자주화)란 한국 사회가 자주독립국가가 아니며 미제의 식민지사회이기 때문에 남조선혁명을 이룩하기 위해서 미제를 축출하고 민족의 자주권을 확립하는 것을 의미한다.

② 민주(반파쇼민주화)란 한국사회가 민주주의체제가 아닌 파쇼독재체제이므로 파쇼정권을 타도하고 인민정권을 수립하기 위한 반파쇼민주화투쟁을 의미하고 있다.

③ 통일(연방제통일)이란 한국사회가 염원하는 자유민주주의적 통일이 아닌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연방제 조국통일을 의미한다.

3) 「중앙일보」, 2003. 2. 25.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⁴⁾되었고, 전통적인 주류언론은 ‘인터넷이 적화되고 있을 뿐 아니라 보안기관이 집권층의 눈치만 보고 좌익사이트를 방치하는 등 현재 보안법이 실종된 상태라고 「월간조선」 2003년 4월호는 밝혔다.

북한은 통일전선부와 작전부 등에 대남사이버 전담부서를 신설하여 65개의 친북인터넷사이트와 200여개의 국내 친북좌파 인터넷망을 통해 대대적인 사이버 선동공세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⁵⁾

더구나 한국 내부의 진보계열 인터넷 사이트에는 북한이 치밀하게 추진하고 있는 대남심리전 공작의 선전물들을 여과 없이 홈페이지의 각종 게시물에 게시하여 이를 정치적 수단과 구호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는 것이다.

특히 북한은 정부의 지속적인 ‘햇볕정책’과 남북유화국면 속에서도 대남적화통일 야욕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대남침투 공작은 2006년 한해만 보아도 공개된 간첩사건이 4차⁶⁾에 달하였으며, 2007년에는 NLL(서해북방한계선)침범, 군사분계선 월경, 아군초소총격 사건 등 지속적으로 대남 군사도발을 자행하여 왔다.

2008년 이명박 정부의 출범 직후에도 10여 차례에 걸쳐 전투기의 전술 조치선을 침범하였으며 3월 28일에는 서해상에서 스틱스함대미사일 3발을 발사하였다.

3월 29일에는 김태영 합참의장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북한이 소형 핵무기를 개발해 남한을 공격할 경우 어떻게 대처하겠느냐”의 질문에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을 만한 장소를 확인해 타격하는 것”이란 답변

4) 「주간동아」, 2003. 4. 3.

5) 유동열, “2008년 북한의 대남전략 전망”, 『2008년 북한정세전망과 새정부의 과제』(서울 : 자유민주연구학회 제10차 세미나, 2008), 36면.

6) 2006년 3월 ‘정수평 간첩사건’, 2006년 8월 ‘정경학 사건’, 2006년 10월 ‘일심회 사건’, 2006년 12월 ‘강순정 사건’ 이 발생함.

을 구실로 “선제 타격이 개시되면 모든 것이 잿더미가 될 것”⁷⁾이라고 위협 공갈하면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현재 우리 국민의 70% 이상은 한국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들로써 이들의 사고방식은 자유민주주의 이념과 체제에 대한 신념이 미약하며 한국사회의 정치·경제·사회적 부조리와 빈부격차 등 체제모순과 개인적 불만이 고조되어 있는 반면에 북한의 위협을 경시하는 풍조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은 대남심리전을 통해 주체사상과 김일성·김정일 우상화, 김정일을 통일 대통령 운운하면서 ‘민족공조’라는 명분을 내세워 남한사회 내부의 갈등을 조장하고 사회계급 및 계층간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최근에는 인터넷을 강력한 심리전 무기로 활용하면서 인터넷을 통한 정치 심리전 공세를 강화하고 안보시스템의 무력화를 획책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안당국의 철저한 수사 와 아울러 국민의 정신력 강화 및 대응책 마련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심리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제환경의 변화에도 여전히 세계 최고의 군사적 긴장 상태를 유지하면서 대남심리전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북한의 대남심리전 전략과 전술, 심리전 매체 및 운용 실태, 대남심리전 전개양상 등을 면밀하게 분석 평가하고 한국의 취약요소와 문제점을 도출하여 효율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7) 「조선일보」, 2008. 3. 3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연구의 범위는 김일성 사망 이후 김정일 체제에서도 변하지 않고 있는 북한의 대남심리전 전략 전술과 운용실태, 심리전의 내용, 시기별 전개양상, 한국의 대응방안으로 한정하였다.

연구 방법으로는 기발간된 전문가들의 저서 및 관련 문헌을 중심으로 수집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는 서술적 기술방법을 택하였다.

주요자료는 전문가들의 문헌과 심리전 관련기관의 자료(국정원, 국방부, 국군정보사, 육군본부에서 나온 심리전 자료)와 북한이탈주민들의 진술, 인터넷 자료, 내외통신 등의 자료를 참조하여 이를 현실적 소재로 구체화하였으며, 접근방법은 과거를 조명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사적접근 방법을 선택하였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체계에 입각하여 구성하였다.

제1장 ‘서론’에서는 연구의 목적과 연구의 범위 및 방법을 제시하였다.

제2장 ‘심리전에 관한 배경이론’에서는 ‘심리전의 개념’과 ‘심리전의 역사적 고찰’, ‘심리전의 특성과 유형’, ‘심리전의 수단과 방법’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제3장 ‘북한의 대남심리전 체제’에서는 ‘대남심리전 기본전략’과 ‘북한의 심리전 체제’로 나누어 심도 있게 분석 평가하였다.

제4장 ‘북한의 대남심리전 실태’에서는 ‘심리전 매체별 운용 실태’, ‘대남심리전의 시기별 특징과 전개양상’을 6단계로 나누어 면밀히 분석 검토하였다.

제5장 ‘대남심리전 대응책’에서는 ‘대남심리전의 강점과 약점’,

한국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대응방안을 모색하였다.

특히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추진되고 있는 북한의 대남심리전에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제6장 ‘결론’에서는 연구의 결과물을 요약하여 정리하였다.

그러나 북한의 심리전 자료에 관한 제한성과 국가 및 군사보안상 정보 접근의 본질적 한계는 본 연구도 피할 수 없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기존의 연구 성과물을 토대로 보다 정밀하게 분석 평가하여 올바른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하였으며, 부족한 점은 앞으로의 지속적인 연구 활동을 통해 능히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제2장 심리전에 관한 배경이론

제1절 심리전의 개념

심리전은 원래 전쟁에서 사상자를 최소한 줄이고자 하는 인본주의적 의도에서 출발하여 점차 작전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전쟁의 승리에 기여 하는 수단으로 정착되어 왔다. 더구나 복잡한 국제관계 속에서 심리전은 외교상 중요한 결단을 내리는 문제에 있어 정치·경제·군사적으로 불가분의 관계에 놓이게 되었다. 특히 핵무기의 출현으로 과거 전통적 전쟁방법의 활용이 비대칭 된 상태에서 심리전의 중요성은 점차 부각되는 등 확실성과 예측 가능성의 제4전력으로 자리매김하였다.

현대 사회에서 심리전은 정치·경제·사회·군사·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하고 있다. 따라서 심리전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우며 아직까지도 국가들 간의 통일된 개념도 정립되어 있지 못하다. 다만 활용자의 관점에 따라 사상전, 선전전, 신경전, 정치전, 간접 침략전, 냉전, 기타 외교전략, 기만전략, 지혜의 싸움, 세뇌전 등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다. 또한 심리전을 정략(政略) 및 전략적 측면에서 광의로 보느냐, 군사적 목적의 보조수단으로 보느냐의 관점에 따라 견해를 달리하고 있다.

국내외의 심리전 전문가들은 통상 심리전을 전쟁이란 개념에 포괄하고 있으며 하위개념으로 심리 전략과 심리작전의 용어를 사용한다.

심리전의 용어는 영어로 <Psychological Warfare>이지만 줄여서 <Psywar> 혹은 <sykewar>라고도 한다. 전자는 한국전쟁 후에 사용하게 되었고 후자는 제2차 세계대전을 전후하여 사용되었으며 최근에는

<Psychological operations>라는 용어를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B.C. 15세기에 기술된 중국의 ‘손자병법’은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도 적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모든 책략이 담겨져 있는 일종의 ‘심리전 교과서’라 할 수 있다.

동양의 경우 전략사상가들은 대체로 대중의 마음을 변화·획득하여 부전승에 중점을 두고 있는 반면에 서양의 경우는 무력과 심리적 와해로 적의 저항 의지를 굴복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서양 전략사상가들의 심리 전략 및 정신 전력관⁸⁾을 요약하여 도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2-1> 전략가들의 심리 전략 및 정신 전력관 비교

구분	전략사상가 (연대/저서)	심리 전략	정신 전력관
동 양	손자 (B.C. 5~6세기, 孫子)	○ 부전승 사상 • 不戰而 出入之兵 (부전이 출입지병) 善之善者也 (선지선자야)	○ 五事 중시 • 민심은 천심 인식 • 可與也死精神 強調 (가여야사정신 강조)
	마오쩌둥 (1893-1976, 신민주주의론)	○ 인민전쟁 주창 • 통일전선 형성 • 개인 및 조직간 연대감 조성	○ 대중의 마음 중시 • 민심 획득 강조
서 양	클라우제비츠	○ 자국 의지 강조	○ 정신적 요소 중시

8) 민권기, “북한의 대남심리전과 그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6), 9면.

(1780~1831, 전쟁론)	적국 저항력 고취 • 적에 승산 없음 인식	• 군인의 민족정신 중시 • 국민 총 무장을 강조
루덴돌프 (1895~1937, 총전력)	○ 전국민 총력전 수행 • 적 후방국민 정신적 결속 와해	○ 민족적 전통, 신앙 중시 • 전체국민 단결 강조
리델하트 (1895~1970, 전략론)	○ 양국 무력충돌은 상호 비극·초도화 초래 • 상대방 본능적 저항의지 최소화 • 간접접근, 인간 심리 마비	○ 패전은 내부붕괴 기인 • 내부붕괴로 자살·자위 방지 강조

심리전에 관한 대표적 견해들을 요약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심리전 용어’는 영국의 군사평론가이며 역사가인 풀러(J. F. C. Fuller)에 의해 최초로 사용하게 되었다. 그는 1920년 「영국과 독일의 전차전」 논제의 논문을 통해 ‘미래의 전쟁은 무기와 전장이 필요 없는 심리전쟁으로 전환될 것’임을 밝혔다.⁹⁾ 심리전은 제1차 세계대전에서는 주로 ‘선전’으로 사용하였고, 제2차 세계대전을 기점으로 ‘심리전’으로 부르기 시작하였으며, 한국전쟁을 통해 심리전에 관한 새로운 교훈을 터득하게 되었다.

9) William E. Daugherty, 「Psychological Warfare」,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the Social Sciences (London: The Macmillan Company & The Free Press, 1968), p. 24.

② 1949년 작성된 연합군 최고사령부 “작전 각서 8호” 「심리전 현장」에는 “심리전은 적의 저항의지를 파괴시키고 적의 사기를 저하시키며 아군을 지지하는 자의 사기를 지속시키기 위하여 계획된 선전을 전파하는 것”¹⁰⁾이라고 밝혔다.

미육군성은 1957년부터 심리전을 Psychological Warfare에서 Psychological Operation으로 바꾸었다. 심리전 용어를 전쟁(Warfare)에서 작전(Operation)으로 바꾼 이유는 “심리전이 전형적인 전쟁의 형태가 아니고 그 대상이 적에게만 한정 지향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시가 아닌 평시에도 계속적인 운용이 필요하므로 전자보다 후자의 개념이 더 적시성이 있기 때문”¹¹⁾으로 판단된다.

③ 미국의 심리학자 라인버거(Paul M. A. Lineberger)는 심리전이란 “광의에 있어서는 정치적, 경제적 또는 군사적인 모든 조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심리학이라는 과학을 이용한 것이며, 협의로는 대적 선전이나 기타 선전을 보완하는 군사적·외교적·정치적인 제반조치의 이용”¹²⁾이라는 정의를 내렸다.

④ 자유중국의 왕승 장군은 “적을 정신적으로 패배시켜 전투의지와 조직을 와해시키는 방법으로 사상에 기본을 두고 정보에 입각해서 진행시키는 것으로서 적국의 개개인에게 심리적 변화를 야기시키기 위하여 조직 및 선전과 같은 방법을 사용한다. 또한 집단과 지도층이 심리적인 변화를 의도하는 방향으로 공작활동과 선전활동을 하는 정치전쟁법의 총칭”¹³⁾으로 정의하였다.

⑤ 「정치학사전」에는 “심리전이란 한마디로 심리적으로 싸우는 전쟁

10) 鄭允武, 『現代政治와 心理戰略』(서울 : 博英社, 1974), 165면.

11) US, Army. Field manual 33-5 Psychological Operation(Washington, D. C, 1990), p.27.

12) Paul M. A. Lineberger, Psychological Warfare(Washington, D. C : Combat Forces Press, 1954), p. 25.

13) 왕승, 국제홍보사 역, 『정치작전개론』(서울 : 국제홍보사, 1971), 7~14면.

을 말하며 신경전 또는 선전전이라고 한다. 적대국가의 이데올로기적 통일을 파괴하고 국가의 통일성을 붕괴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심리전은 신문·라디오·영화·인쇄물·전단·확성기 등을 매개체로 해서 고도의 심리전 기술이 총동원되며 실질적으로는 선전의 제방법이 그 무기인 것이며 선전의 전략적, 전술적 응용이 심리전쟁의 프로그램을 이룬다” 고 밝혔다.

⑥ 미 육군 심리전 교범(FM 33-5)에는 “심리전이라 함은 국가의 목적 완수를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적·중립국·우방 단체의 견해, 감정·태도·행동에 영향을 가하는데 주목적을 가진 선전 및 기타 모든 활동의 계획적 사용이다” 고 기술하고 있다.

⑦ 켈스 케메티(Paul Kecskemeti)는 “정부나 정권이 국내외에 벌이는 선전활동 등은 심리전에 속한다”¹⁴⁾는 정의를 내렸다.

⑧ 라스웰(Harold D. Lasswell, 1972)은 “심리전이 적의 전투의욕을 저하시키기 위해 매스 커뮤니케이션이란 말, 인쇄된 문자, 그림뿐만 아니라 신체적인 행위나 심리적인 상태를 포함한다” 고 보았다.

⑨ 대한민국 국방부는 심리전을 목적·기능·주체·출처·매체·대상면으로 나누어 분류하고 있다.¹⁵⁾

심리전¹⁶⁾은 일반 전쟁과 마찬가지로 ‘전략전인 것’ 과 ‘전술적인

14) 차배근, 『커뮤니케이션학 개론(하)』(서울 : 세영사, 1982), 525면.

15) ① 목적면으로 볼 때 심리전은 전략·전술·선무 심리전으로 구분되며,

② 기능면으로 볼 때 정치·경제·군사·기타 심리전으로 구분할 수 있다.

③ 주체면으로 볼 때 심리전은 국가·민간·관군민 협동 심리전으로 구분되며,

④ 출처면으로 볼 때 공개(백색)·비공개(흑색, 회색) 심리전으로 나누어진다.

⑤ 매체면으로 볼 때 심리전은 전단·방송·시각·서신·물포·대인 심리전으로 구분되며,

⑥ 대상면으로 볼 때 대적·대외·대내 심리전으로 분류된다.

16) 전략적 심리전은 냉전체제와 같이 무력사용이 억제될 때 전쟁 수행 목적보다는 국가의 외교 정책 일환으로 사용되며, 반면에 전술적 심리전은 무력투쟁시기에 무력투쟁의 보조수단으로

것' 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최근에는 심리전 구성요소의 하나인 진실¹⁷⁾을 더욱 강조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의 심리전 집행기관의 하나인 USIU(U.S. Information Service)의 임무는 “합중국의 참된 자유는 진보와 평화를 요구하는 제국민과 동일한 견을 희구하며 그 실현을 정치목적으로 삼고 있다는 것을 커뮤니케이션 미디어를 통하여 재외국민에게 증언하는 것” 이 되고 있다¹⁸⁾고 밝혔다.

심리전은 일반적으로 대적 면에서 선전, 선동, 유언비어 등의 자극을 가해 적의 내분 및 사기저하를 유발케 하고 전력을 강화시키는 내부 붕괴전법으로 통용되며, 대내적인 면에서는 사상교양, 의욕고취, 단결심 고양, 리더쉽 발휘 등 자극을 주어 전의 고양과 국민총화를 기하는 전법으로 통용되고 있다.

심리전이나 선전은 동일하게 설득 커뮤니케이션의 형태를 띠고 있으며 심리전은 선전의 기본원리에 의해 운영된다. 또한 그 표적대상에게 심리적 자극을 가하여 그들의 견해, 감정, 태도,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으로 사용한다.

이상의 내용들을 종합하여 심리전의 정의를 내린다면 심리전이란 “국가목표, 정부 또는 군사상의 임무를 달성하기 위해 상대방의 여론·감정·태도·행동을 자기 측에게 유리하게 유도하는 선전, 선동, 홍보 등 심리적 교화 및 설득수단의 계획적인 사용”¹⁹⁾ 다시 말하여 평시나 전시를 막론하고 국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가의 정책과 전략을 수행

사용된다.

17) 이광현, 『현대사회와 심리전략』 (서울 : 화일, 1993), 47면.

18) Malcom G. Mitchell, Propaganda, Polls and Public Opinion(Englewood Cliffs, N.J. : Prentice·Hall, 1970), p. 11.

19) 이광현, 앞의 책, 42면.

함에 있어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제반활동으로 정의를 내릴 수 있다.

제2절 심리전의 역사적 고찰

심리전은 인류역사와 더불어 시작되었고 제1차 세계대전을 기점으로 본격화되고 체계화, 조직화되었으며 국가운명을 좌우하는 결정적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고대부터 현재까지 심리전의 특징과 사례를 시기별로 나누어 살펴보면²⁰⁾ 크게 세 단계 즉, 소극적 심리전시기(고대~시민혁명 이전까지), 심리전 부흥시기(시민혁명 이후~제2차 세계대전까지), 고도의 심리전시기(제2차 세계대전 이후~현재)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1. 소극적 심리전시기(고대~시민혁명 이전까지)

① 심리전은 기원전 약 1245년에 최초로 시행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당시 이스라엘의 영웅 기데온(Gideon)은 300명의 적은 병력으로 미디아나이트의 3만 병력과 대적하여 승리를 거두었다. 기데온은 횃불과 나팔, 향아리를 이용한 심리전을 전개하여 적진을 불안과 공포로 몰아넣고 적을 속이는 심리적 효과를 창조해 내었다.²¹⁾

② 그리스의 유리시즈도 난공불락의 요새 ‘트로이 성’을 함락하기 위해서 10여 년간 공격하였으나, 무력만으로는 이 성을 함락시킬 수 없

20) 金基道, 『정치선전과 심리전략』 (서울 : 도서출판 나남, 1989), 151~156면.

21) 기데온의 심리전법은 당시 군사조직에서는 100명당 1명씩 횃불잡이를 두었으나, 이스라엘 군인은 300명 모두에게 횃불과 나팔을 휴대하고 일정간격으로 산개시킴으로써 미디아나이트의 3만 대군을 포위한 것처럼 위장하여 적군을 불안과 공포로 몰아넣고 추격하여 대승을 거두었다.

음을 깨닫고, 트로이 성 앞에 목마를 버려 둔 채 첩자 시돈을 장사치로 가장하여 성안으로 침투시켜 결국 성을 함락시켰다.²²⁾

③ 징기스칸은 첩자를 이용하여 몽고군²³⁾의 위력과 용감성, 난폭성 등을 사전에 과대 선전하는 공포전술을 활용하였다. 몽고의 첩자들에 의해 유럽에 퍼뜨린 소문은 ‘몽고군은 용감하고 전투력이 강하다.’ ‘평생을 전쟁으로 살아왔다.’ ‘이들이 마을을 지나가면 사람의 씨가 마른다.’ 등으로 유럽인들이 저항을 할 수 없도록 고도의 심리전을 전개했던 것이다.

④ 을지문덕 장군(고구려 영양왕 32년)도 수양제의 113만 3천 대군의 공격에 대항하여 적군을 유인하였다. 그는 적정을 정찰하기 위해 적의 중심으로 들어가 적장 우중문에게 거짓 항복함으로써 적장을 안심시키고 살수대전에서 이들을 전멸시키는 심리전을 전개하였다.

고대부터 시민혁명 이전까지 심리전은 매체로 원시적 매체를 이용하여 뚜렷한 원칙보다는 개인적 경험을 토대로 한 전략전술가의 의도에 따라 전개되었다. 주로 심리전은 본능적, 직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유언비어, 소문, 헛불, 노래, 피리 등을 이용하는 특징을 보였다.

2. 심리전 부흥시기(시민혁명 이후~제2차 세계대전까지)

18세기 들어서 일반 민중은 절대 권력을 타도하고 권력을 장악하기 위한 시민혁명 시기에 들어서게 된다.

22) 유리지즈는 목마 속에 인화물질을 휴대한 군인들을 숨겨 놓고 마치 이 목마가 레오콘 신이 보낸 선물이라는 소문을 퍼뜨려 성안에 들어가는데 성공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토대로 성문을 열어 난공불락의 트로이 성을 함락할 수 있었다.

23) 징기스칸이 제한된 병력으로 역사상 그 예를 찾아볼 수 없는 광대한 지역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은 몽고군의 강한 전투력과 신속한 기동력, 정보의 효율적 수집과 활용으로 적을 불안과 공포에 빠뜨리는 우수한 심리전을 전개함으로써 가능했던 것이다.

시민혁명이 확대되면서 일반 민중의 지지를 얻기 위한 심리전이 혁명 세력과 반혁명세력간에 치열하게 전개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혁명들은 이제까지 군주의 이익에 초점을 맞추었던 것을 국민적, 국가적 이익, 즉 전체 국민의 이익을 도모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따라서 개인적, 과당적 이익을 위해 행해졌던 심리전은 국민전체의 이익을 위해 행해졌으며,²⁴⁾ 제1차 세계대전을 기점으로 현대적 심리전으로 발전하였다.

특히 군사 심리전은 제1차 세계대전 중에 발족되어 부수적인 병기로부터 중요한 무기로 변화되면서 오늘날에는 전쟁을 이겨낸 무형무기라고 부르고 있다. 이때부터 눈에 보이지 않는 무기인 심리전을 전쟁수행 수단으로 적극 이용하면서 그 엄청난 가치와 기능을 새삼 발견하게 된 것이다.²⁵⁾

시민혁명을 전후한 시기에 심리전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이며 의도적인 근대적 심리전으로 발전되었으며 대표적인 심리전 사례로는 ‘나폴레옹의 심리 전략’과 ‘비스마르크의 외교심리 전략’²⁶⁾을 들 수 있다.

① 나폴레옹은 ‘전략이 시간과 공간을 사용하는 학문’이라고 밝히고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방법의 심리전법을 도입하여 활용하였다. 그는 25세부터 47세까지 약 20여 년간 전쟁을 추진하면서 대체로 ‘작전상 결정적 시기에는 될 수 있는 한 최대의 병력을 집중시켜 사용’ 하였으며, ‘병력의 집중 투입은 많을수록 효과가 증대함’을 밝혔다. 또한 ‘전쟁에는 고유한 전술이 있을 수 없으며, 사전 정찰을 통해 적정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전장에서 적으로 하여금 한 사람의 병사가 두 사람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위장전법’ 등을 사용하였다.

② 비스마르크의 외교심리 전략²⁷⁾은 독일통일사업을 성취시켜 대독일

24) 원우현, 『여론선전전』(서울 : 법문사, 1986), 342면.

25) 「국가안전기획부」, 『특수전』(서울 : 국가안전기획부, 1982), 184면.

26) 岩島久夫, 『心理戦争』(東京 : 講談社 : 1969), 74~87면.

27) 고준봉, 『심리전략 시론』(서울 : 고려서적, 1982), 38~42면.

제국을 건설하는데 있어 군사력을 배경으로 한 복잡한 주변국에 대한 외교상의 승리를 국민감정과 잘 결합하여 전개한 ‘외교심리전’으로 역사상 불멸의 업적을 남겼다.

비스마르크의 외교심리 전략은 3단계로 나누어 추진되었다.

제1단계는 독일의 군비확장을 완성하고 오스트리아로 하여금 전쟁을 일으키도록 유도하는 전략이었다. 비스마르크는 의회의 반대를 무릅쓰고 은밀하게 전쟁준비를 계획하였다. 먼저 이탈리아와는 베네치아 회복을 돕겠다는 공수동맹을 맺었고, 소련에게는 폴란드의 반란진압에 간접적으로 도움을 주겠다는 협조관계를 수립하였다.

프랑스와는 전쟁 후 라인 강 왼쪽 언덕의 땅을 넘겨주는 것처럼 유도하여 호의적인 중립관계를 체결하고 국제관계를 자국에 유리하게 변화시켜 결국은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

제2단계는 모락심리전(Ems의 전보사건²⁸⁾)을 전개하여 독일과 프랑스 양국 국민들의 분노를 자극시켜 독일국민들을 흥분시키고 프랑스를 전쟁에 개입시켜 결국은 나폴레옹 3세는 항복하게 되었으며 1871년 1월 18일 파리의 베르사이유 궁전에서 독일제국의 수립을 선포하게 된 것이다.

제3단계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국제적으로 프랑스를 고립시키고 독일의 안전을 도모하는 외교심리 전략을 구사하였던 것이다.

비스마르크는 프랑스의 복수를 사전 방지하기 위해 탁월한 외교 전략을 구사하여 주변국들이 프랑스와의 동맹관계를 할 수 없도록 사전 친선관계를 수립하고 독일제국의 안전보장기구를 완성하였다.

28) 당시 스페인의 왕위를 독일왕족 레오폴드가 계승하려 하였으나 프랑스의 강한 저항으로 인해 좌절되었다. 그 후 프랑스의 외상 그라몽은 엠스에서 휴양 중에 있던 프로이센의 빌헬름왕에게 대사를 보내 “차후 독일계 왕족이 스페인 왕위후보자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문서로 보내 나폴레옹 3세에게 약속할 것을 요구하게 되었다. 그러나 빌헬름왕은 이를 거절하였으며 즉시 전보로 비스마르크에게 알렸다. 프랑스와의 전쟁기회를 노리고 있던 비스마르크는 프랑스로 하여금 전쟁을 유발하도록 유도하였고 결국 나폴레옹 3세는 항복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비스마르크의 외교심리 전략은 독일의 통일이란 이념으로 일관되어 있고 독일의 안전만을 일방적으로 한 안전보장기구의 완성에 커다란 공헌을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국제관계가 상호의존적이며 일방적이고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문제해결이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남겼다.

전시에 심리전이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제1차 세계대전부터이다.²⁹⁾

영국은 1914년 전시 선전국(War Propaganda Bureau)을 설치하여 전쟁의 목적과 당위성을 연합국에 선전하고 독일을 고립시켜 전의를 약화시키는데 선전의 중점을 두었다. 당시 정보성 장관 산하에 전시 선전본부를 창설하여 대대적인 심리전을 전개하여 연합국의 승리에 크게 공헌하였다.

대독일전쟁에서 큰 공을 세운 영국의 노스크리프 경은 “전쟁에서 승리의 열쇠는 선전에 있었다”고 밝혔는데 그의 심리전 활동³⁰⁾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① 매일 20만부의 전단을 살포하여 독일정부에 대한 불신감을 조성하고 독일의 전쟁목적의 무가치성을 선전하였던 것이다.

② 중립국과 독일의 동맹국들에게는 반독일 사상을 자극하는 유인물들을 대량적으로 투입시켰다.

③ 각국어로 인쇄된 전단과 잡지들을 살포하여 관민을 이간시키고 상호불신 및 불안감 조성, 심리적 혼란을 야기하여 전쟁의욕을 크게 상실하게 만들었다.

29) W.J. Severin & J.w. Tankard, Jr. Communication Theories (New York : Hasting House Publishers, 1979), p.115.

30) 金基道, 앞의 책, 165면.

④ 전세계 국민들에게 연합국 측의 “전쟁을 하루속히 종식시키고 세계평화를 바란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1918년 4월 체코인 대부대가 투항하도록 유도하여 독일군의 사기를 저하시켰다.

미국은 「크릴위원회」(Creel Committee)와 미군사령부 G-2 선전반 등 2개 기관에서 심리전을 추진하였다. 크릴위원회는 적에 대한 증오감 동원, 동맹국 및 중립국과의 친분관계 유지, 적의 사기 저하를 심리전 목표로 내세우고 후방 국민을 대상 집단으로 설정하여 포스터 광고, 영화, 만화, 특약기사 등을 통해 심리전을 실시하여 독일군의 사기를 저하시키는데 주력하여 왔다.³¹⁾

심리전이 전쟁에서 결정적 무기로 작용한 것은 1914년부터 1918년 사이 연합군의 정치적 교류, 윌슨 대통령의 민족자결주의, 카이젤의 시대착오, 민족주의 대두 등이 독일 항복의 실제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시기의 심리전은 “대중심리의 조종을 전략적이고 장기적인 목표 하에 조직적으로 진행하는 특징”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종전까지는 국가, 즉 입법·사법·행정부(군주, 대신, 의회, 군대)를 목표로 심리전이 전개되었으나, 이후 현대의 심리전은 민중을 목표로 하여 국가조직의 지지자인 민중에 대한 영향력을 중시하는 쪽으로 선회하였던 것이다.

특히 제2차 세계대전에서는 제1차 세계대전에 비해 냉정성과 사실에 기초한 심리전이 증가하는 반면 극단적인 용어의 사용이 저하되었으며, 전쟁의 양상도 게릴라, 테러, 파괴활동 등 다양한 물리적 활동과 더불어 대중을 획득하기 위한 심리적 활동을 중요시하게 되었다.

31) 위의 책, 166면.

제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과 영국은 라디오를 통한 심리전을 치열하게 전개하였고, 미국은 대적 심리전에서 전단, 만화, 신문, 포스터, 서적, 잡지들을 인쇄 살포하였고, 라디오를 각국의 언어로 방송하면서 선전영화도 적극 유포하였다.³²⁾

대표적인 심리전 사례로는 영국의 대독비밀 송신소 제1호³³⁾, 미국의 대일 라디오 방송³⁴⁾, 독일의 대외 심리전³⁵⁾, 중국의 제18집단군의 대일본군 심리전³⁶⁾ 등을 들 수 있다.

시민혁명 이후 제2차 세계대전시기 심리전은 과거의 소극적 심리전에서 벗어나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현대적 심리전법을 도입하여 정착시켰다. 또한 대중 획득을 위한 심리전에 중점을 두고 심리전을 외교 및 전쟁수행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면서 그 방법에 있어서도 전파 · 인쇄 · 특수매체 등 다양하게 전개하는 특징을 보였다.

32) 金基道, 앞의 책, 164~176면.

33) 제2차 세계대전 중 영국의 정보기관에 의해 영국의 기자 델마(Delmer)가 비밀송신소를 설치하고 두목(Der Chef)이란 이름으로 방송한 심리전 흑색방송국을 말한다. 영국은 독일에 대한 전세계인의 증오심을 자극하고 히틀러와 그의 간부들의 사생활 및 독일군 사령부를 소재로 한 험담, 잡담 등을 통해 심리전의 승리를 거두었다.

34) 종전을 추진하기 위해 일본의 최고 정치지도층을 겨냥하여 무조건 항복권유로 전쟁 종결 유도에 기여함. 특히 무조건 항복이 일본 국민을 전멸시키거나 노예화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끝내고, 병사들을 고향과 직장으로 복귀한다는 것을 강조하여 전쟁기한을 단축하는 등 일본의 무혈상륙에 가능케 하였다.

35) 1936년 나치스는 트에젠에 단파방송국을 설치하여 세계를 6개 지대로 나누어 독일의 위대성과 사회진전 상태의 양호성, 타국의 사회상태 불안, 외국과의 친선교류 등을 소재로 대외 방송을 활발하게 진행하였다.

36) 중국 제18집단군은 1937년부터 1945년까지 일본군 내부를 교란시키고 전의를 상실케 하여 투항하도록 항복자에 대한 처우 개선, 천황전복, 군국주의 타도 등 심리전을 전개하여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다.

3. 고도의 심리전시기(제2차 세계대전 이후 ~ 현재)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동서냉전시대의 심리전은 미·소를 중심으로 한 자유민주주의진영과 공산권 진영이 각기 체제의 정당성을 과시하고 상대방 체제를 교란시키는 데 중점을 두어 왔다. 특히 과학무기의 발달은 ‘전쟁은 곧 공멸’이라는 인식을 확산시키면서 무력을 동원하는 무력전의 가능성이 줄어들고 있는 반면에 정신적 독가스라 할 수 있는 심리전은 적을 내부로부터 파괴하는 무서운 수단으로 부상되었다.

가. 공산주의의 심리전

공산주의자들의 심리전은 “사상이 행동을 결정한다”는 논리에 따라 정치사상적 활동을 강조하면서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고 있다.

공산주의자들은 언론매체를 당의 전위기구로서 공산당의 독재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선전선동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혁명의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커뮤니케이션과 비커뮤니케이션을 병행하여 추진하여 왔다.

국제적 혁명역량 강화의 전세계 공산화를 목적으로 국제 선전에 시·공간을 초월하여 적극적으로 수행하며 이에 의해 국제적으로 우세한 전략대세를 확보하고 거기에서 결정적인 목적을 구하려고 기도하였다.

따라서 선전이야말로 무기 중 가장 기본적 무기이며,³⁷⁾ 대내적 정치사상역량을 강화시키고 대적심리전은 대상국의 내부혼란을 유도하고 체제를 무너뜨리는 공산화혁명을 달성하는데 그 목표를 두었던 것이다.

인류국가 중에서 심리전의 중요성을 가장 잘 인식한 나라는 구소련이

37) 「국토통일원」, 『북괴의 대남심리전 현황분석 및 대응책』(서울 : 국토통일원, 1985), 11면.

었다. 소련의 심리전은 현대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조직과 수단을 가지고 인간의 심리를 자극시켜 왔다.

소련의 기본적인 전략개념은 손자의 병법과 레닌의 간접전쟁이론에 그 기초를 두고 있다. 즉, 손자의 “百戰百勝, 非善之善者也, 不戰而屈人之兵, 善之善者也”란 정의와 레닌의 “가장 약한 곳으로부터 나오라”는 교훈을 구체화시킨 것이다.³⁸⁾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냉전’ 이니 ‘평화공존’ 이니 하는 것도 모두 소련의 태도에 대한 미국의 대응방식의 관계로 볼 수 있다.

소련의 이러한 혁명전략 및 전술은 바로 심리전 그 자체³⁹⁾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공산주의가 추구하는 마르크스·레닌·스탈린으로 이어진 세계혁명이란 프롤레타리아계급 투쟁으로 대중을 선전·선동하여 그들을 조직하고 이를 혁명의 주역으로 이용한다는 면에서 그 자체가 심리전이었던 것이다.⁴⁰⁾

소련에서 정치기구도 그 자체가 심리전기구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소련 국민들은 정부가 공급하는 정보와 사상에만 접하도록 되어 있었다. 또한 국가가 모든 여론 분야를 소유하고 통제하여 왔다.

소련의 선전활동은 당 선전선동부(15개국과)에 의해 지배되었다. 대내 심리전은 각종 언론, 출판 매체 등을 통해 외부로부터의 부르조아 사상의 유입을 차단하고 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사상적 역량 강화에 주력하였다. 대외적으로는 외무성 및 해외주재사절단에서 역할을 부여하였고 심리전부에서는 39개 언어로 번역출판물들을 배포하였으며, 역선전에 대비하여 외국방송을 전면적으로 금지시키고 외국으로부터 흘러오는 전파를

38) 鄭允武, “북한의 대남심리전”, 『안보연구』 제17호(서울 : 동국대학교 안보연구소, 1987), 60면.

39) 鄭允武, 앞의 책, 347~348면.

40) 「북한연구소」, 『공산군의 정치조직제도, 북한연구총서』(서울 : 북한연구소, 1978), 137면.

방해하기 위한 전파방해국을 소련 내에 약 1,500여개, 동구에는 약 750여개가 설치되어 있었다.⁴¹⁾

중공의 심리전은 소련과 그 맥락을 같이 하고 있지만 마오쩌퉁의 사상이라는 독특한 이념으로 중국 국민들을 결속시켜 왔다. 마오쩌퉁은 “우리는 대중에게로 나아가서 해방과 행복을 성취하는 것을 도와주어야 한다”는 국민들과의 대면 커뮤니케이션을 강조하였다. 중국 공산당이 채택한 대중동원을 위한 선전수단은 두 가지 주요 요소로 구성되었다. 하나는 신문, 라디오 등 제도화된 언론이며, 다른 하나는 소집단을 중심으로 조직된 대면 선전이었다.⁴²⁾

당 선전국⁴³⁾를 중심으로 공산주의적 인간형을 만들어 내는데 주력하면서 외부의 사상유입을 철저히 배격하여 추진하였다. 전국민의 정신을 강화하고 개조하기 위하여 신문과 라디오를 통해 정부의 선전내용을 신속하게 전파시키고 지방 당 선전원이 각종 조직과 대중 집회, 구두 대면 선전 등으로 농민과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사회주의와 당의 지지를 이끌어 내었다.

특히 인간의 심리적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여 취약점을 이용하여 상대방을 교란시키는데 중점을 두면서 적국의 민심과 사기를 저하시키고 자국 국민의 정치사상적 역량을 강화시키는데 중점을 두어 왔다.

공산권의 심리전 전개에 대해 존 맥코나기 교수는 다음과 같은 5개의 투쟁 분류로 나누고 있다.⁴⁴⁾

첫째, 소련을 주축으로 하는 공산진영이 이용하는 심리전은 공산주의자가 침략과 투쟁으로 국제연합을 해체하려는 있다.

41) 鄭允武, 앞의 책, 363면.

42) Godwin Chu, 책백, 이범수역, 『혁명과 커뮤니케이션』(서울 : 이성과 현실사, 1987), 39면.

43)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의 지휘를 받는 핵심부서이다.

44) 宋泰均, 『間接戰略』(서울 : 兵學社, 1982), 44면.

둘째, 큰 목표는 아메리카와 그 동맹제국들 간의 통일을 파괴하려는 것이다.

셋째, 촉수(觸手)는 모든 백색 제국주의와 단절하고 공산주의 노선을 따르라고 하는 것은 식민지 국민에 대한 선전이다.

넷째, 방법은 정치적 및 군사적 수단에 의하여 민주주의 내부 분열을 조작해 내는 데 있다.

다섯째, 방법은 혼란방식이다.

나. 한국전쟁에서의 심리전

북한은 민족해방, 미제축출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민족, 반제, 반봉건 등을 외치면서 공산화 혁명에 광분하는 심리전을 전개하였다. 서울을 점령한 이후에는 한국정부에 추종자와 반대자로 나누어 신속한 조치를 강구했다.

또한 “모든 공직자는 누구나 선전자”라는 공산주의자들의 격언에서 볼 수 있듯이 심리전의 대상을 광범위한 모든 계층의 생활면까지 파고들어 “사살되어야 될 정도로 공산당에 적대적이 아닌 사람은 가능한 세뇌시키려는 심리전”을 전개하였다.

① 정책의 중점은 여성해방, 자본가의 착취로부터 해방, 청년의 기회, 사회복지, 토지 개혁으로 농지분배, 통일을 내세워 반미 보다는 반이승만 노선을 강력하게 내세우고 한국정부의 무능력과 무질서를 공박하는데 두었다.

② 방송국, 신문 등 매스 미디어를 독점하여 노동자, 농민들과의 주기적인 좌담회를 통해 주요 내용을 반복 주입하면서 반정부 사상 고취 및 북한 정부에 동조하도록 하는 의식개조에 몰두하였던 것이다. 「서울방송국」을 점령하여 “당신들의 정부는 도피하였고 인민공화국이 지금 지

배하고 있다. 각자의 일에 복귀하라. 일에 복귀하는 자들은 모든 것이 용서된다” 고 방송하는 한편 학교 등을 이용하여 사상적인 노래보급에 주력하였다.

③ 교육수준이 낮은 국민들을 대상으로 북한은 개개인의 집을 방문하고나 회합을 통해 사상교육과 자아비판을 강화하였고, 이들을 여성동맹, 청년동맹에 가입케 하였다. 또한 자아비판을 통해 정치적 과오를 자백 받고 주요한 정보를 획득하는 수단으로 활용했다.

특히 북한과 중·소는 한국전쟁에서 미국이 1950년 12월과 1951년 1월, 1952년 1월 28일부터 2월 17일 사이 천연두를 비롯한 여러 종류의 세균을 다량 살포하는 세균전⁴⁵⁾을 감행하였다고 강력하게 비난하여 왔다. 이에 대해 북한 외상은 1951년 5월 8일 UN에 공식 항의하였고 5월 10일에는 소련신문, 5월 11일에는 중공신문이 일제히 보도하였다.

소련의 「이즈베스차」⁴⁶⁾는 미국의 세균전 준비설과 일본군 세균전 과학자를 보호하고 풍문을 흘리기도 하였고, 1952년 2월 18일에는 모스크바 한국어 방송을 통해 “미제침략자들이 북한의 후방전선을 무너뜨리기 위해 간첩과 파괴분자들을 밀파하여 군사기밀을 탐지하고 곳곳의 우물에 독을 풀어 천연두와 장티푸스균을 퍼뜨리고 있다” 고 방송하는 한편 중국의 신화사 통신⁴⁷⁾도 “미국이 국제법을 위반하여 1월 28일~2월 17일 사이에 7회에 걸쳐 세균전을 감행하였다” 고 보도하였다.

북한 외상 박헌영은 미국의 세균전에 공식 항의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침략자의 만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전세계 인민에게 호소” 하였으며, 당시 중공의 주은래 외상도 “미국정부의 광적 범죄 행위를 중지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세계의 인민과 함께 미국정부의 광적 범죄를

45) John C. Clews, Communist Propaganda Techniques (Frederick A. Praeger : New York, 1964), Chap . IV. 참조, 김기도, 앞의 책, 181~190면.

46) 1916년 2월 창간되어 10월 혁명 이후 볼셰비키정권의 기관지로 됨.

47) 중국의 대표적 통신사로 1937년 4월 연안에서 발족하여 1949년 북경으로 옮김.

막으려는 이 목적을 위하여 투쟁할 것”을 다짐하는 지지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이어 2월 29일에는 세계 노동조합 연맹이 가세하였고, 3월에는 국제민주여성동맹, 국제학생연맹, 세계평화 협의회에서 국제적 세균전 항의 운동이 시작되는 등 중국과 소련 동부유럽의 주요지역에서 항의 집회를 열어 유엔과 국제무대에 직접 호소하는 심리전이 전개되었다.

북한은 4월 2일 UN에 대해 항의서를 제출하였고 5월 11일 소련의 「타스통신」(TASS)이 세균전을 반대하는 미국과학자협회의 트루먼 대통령과 마리크 대표에게 보내는 서한을 공개했다. 6월 18일 마리크는 UN안전보장이 세균무기를 금지하는 1952년 제네바 문서의 비준을 호소하도록 하자는 제의를 하였으나 미국이 문서비준을 거부하였다. 1953년 4월 23일 UN총회는 5인 조사위원단을 찬성 32, 반대, 5, 기권 4표로 가결하였으나, 활동을 개시하지 못하고 해산되었다.

한국전쟁시기 UN군의 심리전⁴⁸⁾은 미그기 귀순 중용, 대중공군 분열에 중점을 두었다. UN군은 북한군에게 “미그전투기를 완전한 채로 UN군 측에게 가져오는 최초의 조종사에게 10만 달러의 상금을 주겠다”는 현상선전과 대중공군의 분열 심리전공작을 한국어, 노어, 중국어로 방송을 실시하였고 약 3개월 동안 압록강에 이르는 북방까지 전단을 살포하였다.

UN군의 대중공군 분열 심리전공작은 8군 심리전부에서 전담하였다.⁴⁹⁾ 8군 심리전부는 서울근방의 중공군부대 연대장이상 지휘관 2/3와 장병의 75%가 국부군 출신임을 이용하여 이들의 투항을 조장하는 대대적인 특수전단작전을 실시하였다. 결과 국부군 출신 중공군 장교(중령급)가 투항하였고 이를 이용하여 확성기 방송을 통한 심리전을 전개했다.

한국전 이후 북한은 한반도의 공산화를 목표로 노동자, 농민을 주요

48) M.W. 클라크저, 이지영 역, 『한국전쟁과 심리전』, 1965. 101~109면.

49) 공보부역, 『심리전의 매체, 방법 및 기술』(서울: 공보부, 1963), 187~190면.

대상으로 포섭하고 각계각층의 동조세력을 이용하려는 소위 통일전선 심리전을 더욱 강화시켜 나갔다.

다. 미 CIA의 중공 문화혁명분열 심리전⁵⁰⁾

미국의 CIA는 1950년대 초반부터 세계 각처에 반공 보루를 구축하기 위해 쿠데타 및 준군사활동을 전개하면서 심리전을 위한 각종 흑색방송을 운영하였으며⁵¹⁾ 1960년대 중반에는 중국의 문화혁명분열 심리전⁵²⁾을 진행하였다.

1967년에는 선전물들을 풍선으로 중국 본토에 날려 보내 중공내부의 혼란을 가증시켰다. 미국은 중공에서의 홍위병들의 관습과 법률 타파적인 행위에 대해 중공인민들이 반발이 일어날 것이라는 일종의 반작용을 기대하였다.

결과적으로 군부와 노동자 단체들에서는 점차적으로 홍위병들에 대한 저항이 가속화 되면서 과거의 법과 질서로 복귀하자는 요구가 강력하게 추진되었다. CIA의 풍선작전은 중공 남부의 여러 성에서 홍위병들에 대한 저항이 늘어나는 등 효과를 나타냈으며, CIA는 대만에 2개의 위장 방송용의 송신시설을 설치하여 이를 확대하는 등 상당히 성공적인 심리전으로 입증되었다.

라. CIA의 대동구권 자유화 선전⁵³⁾

CIA가 소련 및 동구권을 대상으로 전개한 심리전은 주로 「자유유럽방

50) 빅터마제티, 존 마크스, 조순환 역, 『CIA』(서울 : 한일문고, 1974), 187~192면.

51) 가장 규모가 컸던 자유유럽방송(Radio Free Europe)과 자유방송(Radio Liberty)은 1949년부터 1971년까지 소련 및 동구권을 대상으로 방송되었다.

52) 미국은 중국본토에 기구를 이용한 풍선을 살포하여 홍위병들의 관습 및 법률파괴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민중의 거센 불만 등을 소재로 심리전을 진행하여 풍선작전에 성공을 거두었다.

53) 조순환 역, 앞의 책, 172~177면.

송」과 「자유방송」을 통해 진행되었다.

자유유럽방송은 1949년 발족되어 방송국 본부를 서독 문헨에 두고 30여개의 송신소에서 당시 소련의 위성 국가인 폴란드, 헝가리, 루마니아, 체코슬로바키아, 불가리아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자유방송은 소련을 대상으로 하는 방송으로 1953년 3월에 개시되어 1959년 자유방송으로 개칭되었다. 90%이상의 예산을 CIA에서 충당하였으며 문헨에 방송 프로그램 편성 센터(방송국 종업원은 약 1,200명)를 두고 서독, 대만, 스페인 등 17개소에 설치한 송신소를 통해 24시간 방송을 실시하였다.

대부분 심리전 방송과 마찬가지로 자유유럽방송과 자유방송은 주요 대상목표지역에 기존 정세에 파고들어가 이 정세에 박차를 가해 공산정권을 괴롭히는 한편 비밀첩자들에게 대소, 대동구권에서 사용할 비밀자금을 제공해 왔다.

마. 월남전에서의 심리전

월남전에서 베트남은 월맹에 비해 3배의 군대와 7배의 화력을 지니고 있었지만 결국 정치전에서 패배하게 되었다.

월맹과 베트공은 민족, 민주, 자유, 인권을 내세워 월남 주민들을 선전동하고 월남정부의 전쟁명분을 최소화 시키면서 민족 통일이란 명목으로 공산화 혁명을 촉진하였고 테러, 살인, 회유 등의 방법으로 모든 주민들을 인민전쟁에 동원할 것을 강요 했다.

그러나 월남은 공산주의자들의 끈질긴 통일전선 전략전술에 강력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결국은 공산주의자들의 폭력과 내부 분열 및 와해로 패망하게 되었다. 미국이 월남전에서 패한 원인도 군사적 패배보다 심리전에서 패한 것이 더 큰 원인이 있다고 하겠다.⁵⁴⁾

바. 걸프전에서의 심리전

미소의 냉전이 종식한 이후 걸프전에서 미국의 심리전은 정치, 경제, 군사, 외교, 종교, 민족문제 등 총력심리전으로 후세인의 비리와 정권의 취약점을 집중적으로 공격하여 정부와 국민을 이간시키고 전쟁 공포 유발, 지휘체계의 와해 및 전투의지 약화에 중점을 두고 각국으로부터 전쟁 명분을 얻는 데 성공하였다. 반면 이라크는 전쟁 자체를 민족, 종교 전쟁으로 범회교권 성전으로 유도하고 화학무기 공격불사로 전쟁공포를 조성함과 동시에 포로 신문내용을 TV에 방영, 인간 방패를 선언하면서 반전분위기를 확산하려 하였으나 오히려 비인도적 처사에 대한 증오심만 유발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⁵⁵⁾

걸프전은 모든 첨단 정보시스템이 동원된 공보 심리전, 공포 심리전, 정보화 심리전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전세계 5백여 종군기자들이 미·영 지상군과 함께 움직이며 작전 장면이 생중계되었다.

미국의 심리전은 육군 심리전사령부 예하 제4심리전단이 참전하여 방송, 전단, 시청각 자료 등으로 심리전 임무를 수행하였다. 특수작전항공대의 코멘도솔로 항공기가 참여하였고 2900만장의 전단 살포, 대대적인 폭격과 라디오⁵⁶⁾ 및 TV방송을 병행하여 실시했다.

미국의 전술적인 심리전은 작전계획과 통합하여 실시하였으며, 무형 전투력을 극대화시켰다. 반면 이라크는 병사들의 죽음이나 끔찍한 상처를 보도하거나 다국적군 포로를 이용한 염전사상 고취에 주력하였다.

이라크는 심리전 수단으로서 전단 작전을 미군 사상자 처리 장면, 인명 살상 참혹상, 자유와 여신상 눈물, 이슬람 형제 동맹 등을 주제로 살

54) 육군대학, 군사평론 제156호, 『월남전과 심리전』(서울 : 육군대학, 1972), 10~12면.

55) 실광수, 「합동참모본부」, (서울 : 합동참모본부, 1995), 114면.

56) “이라크 해방의 소리”에 의한 2개 지상방송을 실시하였으며, 전단 및 방송을 통해 후세인 일가의 호화생활, 후세인 정권의 과멸론, 이라크군의 항복 권유 등의 심리전을 전개하였다.

포하는 한편 방송을 통해 “미국의 석유 흡치기 위한 전쟁”, “이라크는 반드시 승리한다”, “미군의 이슬람 종교 및 민족 모독” 등을 주제로 방송하였다. 이라크의 심리전은 미국의 필패론, 결사항전의지 과시, 전쟁의 부당성을 부각시켜 아랍권 민족의 자존심과 단결력을 호소하는 특징을 보였다.

특히 미국은 미 공군 제8특수전 부대와 합동으로 폭격 및 심리전을 병행하여 2월 6일 에는 이라크군 진지에 “만일 내일까지 항복하지 않으면 세계에서 제일 큰 폭탄을 투하한다” 는 경고 전단 살포와 함께 2월 7일 재래식 폭탄 중 가장 큰 BLU-82 폭탄을 사용하여 엄청난 성과를 거두었다. 이후 “다른 것을 또 준비 중이다” 라는 후속 전단이 살포되자 그 이튿날 대대장 이하 많은 수의 이라크군이 투항했다. 이때 이라크군 정보장교가 지참한 지뢰 매설 지도에 의해 다국적군은 지상전 개시 1시간 이내에 지뢰지대를 통과했다고 한다.⁵⁷⁾

이 시기 심리전은 첨단 정보시스템이 동원된 공보 심리전, 공포 심리전, 정보화 심리전으로 발전하였다. 냉전시대에서는 미·소를 중심으로 공산주의진영과 자유진영으로 나누어 가장 강력한 조직과 수단을 동원하여 인간의 심리를 자극하는 심리전을 전개하였다.

심리전의 주요 내용은 각기 체제의 정당성을 과시하고 내적인 정치사상적 역량을 강화시키면서 상대방 체제의 내부혼란을 유도하고 교란시켜 체제를 무너뜨리기 위한 고도의 심리전에 중점을 두고 전개하는 특징을 보였다.

57) 육군본부, 『걸프전 분석』(서울 : 군사연구실, 1991), 194~199면.

제3절 심리전의 특성과 유형

1. 심리전의 특성

심리전의 본질적 특성에 관해 켈터(Terence H. Qualter)는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⁵⁸⁾

첫째로 심리전이 다른 활동과 구분되는 가장 중요한 본질적 특성의 하나는 ‘조직적 기도’이다. 이는 곧 어떤 목적의 달성을 위한 조직적, 의도적 행동을 뜻한다. 예컨대 성명을 발표한다든지, 선전용 출판물을 발행한다든지, 포스터를 부착하거나, 유언비어, 동상이나 기념물 건립, 과학적 업적을 과시한다든지 하는 등의 모든 활동은 그 내용의 진위와 수단의 합리성 여부를 막론하고, 모두 어떤 목적을 위하여 조직적으로 행해진다는 것이다.

둘째로 ‘다른 집단성원들의 태도를 형성·통제 또는 변용’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즉 심리전의 목적은 다른 집단의 구성원들로 하여금 어떤 특정 상황에 대처하여 주체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반응하도록 그들에게 새로운 태도를 형성하거나 그들의 기존 태도를 강화 또는 변화시키려한다.

셋째로 이러한 목적의 심리전은 개개인 보다는 집단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심리전은 대상 사회의 기본구조를 변화시키겠다는 의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개인 보다는 우선적으로 집단의 통제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넷째로 커뮤니케이션 수단의 사용이다. 여기에서 커뮤니케이션 수단이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정보나 아이디어 등을 전달하는 수단, 즉

58) Qualter, Propaganda and Psychological Warfare(New York : Random House, 1968), p. 27.

언어, 음악, 전시물을 의미하는데 심리전이란 어디까지나 이러한 수단을 통하여 행해지는 것으로서 무력이나 뇌물 등에 의한 것은 심리전이 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심리적 활동은 심리전 정보의 과학적인 수집에서부터 내용구성, 매스컴의 학문적 이론에 입각한 활동에 이르기까지 원만한 협조와 노력이 바탕이 되므로 어느 한 분야만 소홀히 하여도 효과가 격감될 수 있다.

현대 심리전의 특성⁵⁹⁾을 요약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심리전은 경제적 이면서도 다양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즉 심리전은 그 자체의 성격으로 순수한 무력전 보다 훨씬 경제적인 특성을 가지는 반면 때로는 무력전에서 보다 큰 효과를 획득할 수 있다는 점이다.

② 심리전의 활동성과는 유형적인 것보다는 무형적인 것이므로 소홀히 취급하기 쉬우며 심리전 자체가 일정한 형식이나 규격이 있는 것이 아니다.

③ 국가 목표를 지지하고 전투 수행을 지지한다. 현대전은 무력행사만으로는 전승을 노릴 수 없고 정치전, 외교전, 사상전, 경제전, 과학전 등 제 방법의 총체적인 힘으로만이 소기의 전승을 획득할 수 있다.

④ 심리전은 시간적인 면으로 보아 거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즉 심리전은 수행되는 방법의 다양성과 특수성으로 인하여 무력전의 수행에 비해 시간적으로도 제한 없이 언제라도 수행이 가능하다.

⑤ 상대방의 힘을 이용한 와해전법으로 사기 즉 정신적 조직을 파괴시킨다. 심리전 관계자는 적의 사회조직, 관습, 지도체계, 기타 대상자에 대한 완전한 지식을 바탕으로 하여 세밀한 계획과 기발한 방법으로 적의 집단에 대한 전의 감퇴를 시도한다.

59) 이상중, “한국의 심리전 연구”,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1, 16~18면.

⑥ 심리전은 다수의 대상에 대하여 일시에 침략할 수 있다. 심리전은 적의 전방 전투력뿐만 아니라 후방 국민을 막론하고 광범위한 목표에 대하여 동시에 신속하게 침투된다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심리전은 그 자체로서는 전승이 어렵다 하더라도 제반 특성을 발휘함으로써 효과적으로 국가목표를 지지하고 무력전과 병행 사용하여 적을 내부로부터 붕괴시키고 전쟁 수행과정의 단축뿐 아니라 전후 처리에 있어서도 부담을 경감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2. 심리전의 유형

심리전은 목적과 기능, 주체, 출처, 매체, 대상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⁶⁰⁾

가. 목적에 따른 심리전

심리전은 목적에 따라 전략 심리전, 전술 심리전, 선무 심리전으로 분류된다.

① 전략 심리전은 극히 중대하고 비중이 큰 작전 임무를 위한 것으로 장기적이고 간접적인 심리전으로 국가 목표 하에 광범위하고 장기적인 효과를 노리고 수행한다. 따라서 국가수준의 기관에서 계획하여 대상국의 전 영토,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② 전술 심리전은 단기전 목표 하에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실시하는 것으로서 전략심리전 범위 내에서 계획되고 운용된다. 전술 심리전의 목표는 인적, 물적 목표를 최소로 하여 적의 투항 및 전쟁 이탈을 권유

60) 李光憲, 『北韓開放化 心理戰』(서울 : 국방부, 심리전 자료 91-1, 1991), 448~452면.

하고 사지를 저하시켜 저항 의지를 약화시킴으로서 지휘체제의 혼란을 야기하여 전투능력을 상실시키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③ 선무 심리전은 군의 점령 또는 해방지역에서 효과적인 군사작전을 수행하고 피점령지역 주민과의 최대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행하는 심리전이다. 이질적인 집단이나 개인의 심리전 주체에 대한 반발 또는 저항을 무마시키기 위해 선전·홍보·계몽 등 교화 및 설득수단으로 평화를 수호하고 승리를 거두는 것을 돕기 위한 심리전이다.

나. 기능에 따른 심리전

기능에 따라 심리전은 정치 심리전, 군사 심리전, 기타 심리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① 정치 심리전은 정치 전략을 기획하고 수행하는 국가기관과 그의 통제 하에 있는 기구에서 수행한다. 주로 자국의 정책이나 의견을 상대측에 알리는 노력의 선전, 홍보 등 심리전 수단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② 군사 심리전은 국방목표와 군사전략을 수행함에 있어 무력행사를 하지 않고 심리적으로 싸워 승리하기 위한 제반조치를 말한다. 국가 심리전과 병행하여 군사기관 내에서 독자적인 체계를 갖추고 시행된다. 고성능 무기 보유, 한미합동군사훈련, 군사퍼레이드, 해외병력 파병 등도 군사심리전의 범주에 속한다.

③ 기타 심리전에는 경제심리전, 외교심리전, 문화심리전 등 해당 분야의 정책과 전략을 수행함에 있어 이를 심리적 무기로 활용할 때 심리전이란 용어를 널리 사용하고 있다.

다. 주체에 따른 심리전

심리전은 주체에 따라 국가 심리전, 민간 심리전, 관·군·민 협동 심리전으로 분류할 수 있다.

① 국가 심리전은 상대국의 국민 정신기반을 동요시키고 전복시키기 위한 결정적 수단으로 자국의 국가 목적 달성을 위해 국가적 수준과 국가적 규모로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공공연하게, 때로는 은밀히 탄력성을 가지고 시행된다.

② 민간 심리전은 민간인들이 주체가 되어 실시하는 심리전이다. 현대전은 총력전의 특징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 국가의 산업 능력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단체와 조직까지 전쟁에 참여를 필요로 하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시 영국의 BBC방송, 자유유럽방송과 공산국가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미국의 소리방송(V.O.A)이 이에 속하며, 한국의 사회교육방송(대북 및 공산권 대상)이나 종교계의 대북방송 그리고 사회 각계 단체들의 대북 성명발표 등도 민간 심리전의 범위에 속한다.

③ 관·군·민 협동 심리전은 일명 연합 심리전이라고 한다. 추구하는 목적과 전개 양상에 따라 협동적이고 융통성 있게 전개되며 국가적, 국민적, 사회적 힘으로 심리전이 작용할 때 협동 심리전은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

라. 출처에 따른 심리전

심리전은 출처에 따라 공개 심리전(또는 백색 심리전), 비공개 심리전(또는 흑색, 회색 심리전)으로 분류된다.

① 공개 심리전은 심리전을 수행하는 주체가 스스로 출처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방법으로 계획하고 실시하는 것으로 내용

자체가 진실을 위주로 실시되어야 한다.

북한의 대남방송을 전담하고 있는 평양방송, 개성 TV방송과 한국의 KBS 방송, 휴전선 확성기 방송, 국적을 표시하고 있는 전단, 물포 심리전이 이에 속한다.

② 비공개 심리전은 심리전을 수행하는 주체가 출처를 모방 또는 도용하여 실시하는 심리전인데 그 특징은 주체를 공포하되 위장하고 있다는 데 있다.

회색심리전은 심리전을 수행하는 주체가 출처를 밝히지 않고 실시하는 심리전으로 주체를 은폐하여 심리전의 객체로부터 저항감을 감소시켜 민심교란 및 사회적 불안감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주로 전단, 통신, 비어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마. 매체에 따른 심리전

심리전은 매체에 따라 전파 심리전, 시각 심리전, 대면 심리전, 매개물 심리전, 행동 심리전으로 분류된다.

① 전파 심리전은 라디오, TV, 확성기, 무선통신 등 전파매체를 통하여 상대방에게 전달함으로써 심리전의 효과를 달성하려는 심리전이다.

② 시각 심리전은 주체 측의 의도를 전단, 화보, 시각 표시물 등 시각매체를 통하여 상대방에게 전달함으로써 심리전의 효과를 달성한다.

③ 대면 심리전은 주체 측의 의도를 대화를 통해 전달하거나 상대방이 요구하는 대화에 대응하여 대화를 통한 심리전이다.

④ 매개물 심리전은 상품심리전으로 대상 집단에게 물질적, 본능적, 소유욕을 자극시키는 심리전으로 주체 측의 국력, 경제발전상 등을 과시할 수 있다.

⑤ 행동 심리전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실시하지 않으나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최대로 활용하고 있다. 행동으로 심리전의 효과를 얻고자 하는 요인 암살, 시설폭과 등이 이에 속하며 주요 목적은 민심동요와 사회 질서 혼란 조성 등에 있다.

바. 대상에 따른 심리전

심리전은 대상에 따라 대적 심리전, 대외 심리전, 대내 심리전으로 분류된다.

① 대적 심리전은 적국 또는 적의 집단에 대해 실시하는 심리전으로 적의 마음을 정복하고 적의 정신과 의지력을 제압하여 승리를 가져오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② 대외 심리전은 우방국이나 중립국 또는 적대관계에 있는 국가나 집단에 대하여 수행되는 심리전이다.

③ 대내 심리전은 국내에서 국민정신의 통합과 심리적 안정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심리전이다. 전체주의, 공산주의 국가나 독재국가에서는 선전, 선동 기구를 조직하여 공개적으로 심리전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나,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심리전의 어감이 주는 부정적인 면 때문에 홍보, 계도, 정훈, 계몽, 교육 등의 수단으로 기본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

이처럼 심리전은 그 시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고 규모의 차이는 있을 지라도 거시적으로는 이 모든 것을 합하여 심리전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제4절 심리전의 수단과 방법

1. 심리전의 수단

심리전을 수행하기 위한 수단은 심리전의 목표달성을 위한 선전내용을 전달하는 매체를 말한다.

TV, 라디오, 확성기, 인쇄물, 영화, 화보, 사진, 전단 등을 사용할 수 있으며 어떠한 매체를 선정하여 사용하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⁶¹⁾

① 라디오는 전술 심리전보다는 전략 심리전과 선무 심리전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된다. 표적 대상자에게 적시에 전파할 수 있는 신속성과 광활한 지역을 포괄하며 선전의 저의가 노출되지 않고 선전내용을 전달할 수 있는 융통성이 있다. 인쇄물보다 감정변화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반면에 전파 방해 등으로 인한 제약성을 지닌다.

② TV는 대부분 가정에 생활도구로 사용하고 있으며 전시에는 이동 방송을 통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③ 전단은 다른 유인물과는 달리 단 한 장의 종이 양면에 문자 및 그림으로 수록하여 표적 대상지역에 살포하는데 사용한다.

중요하게는 적합한 모양과 크기, 무게, 선전문과 살포의 용이성을 고려해야 하며, 특히 설득력, 보도형, 지시형 전단 등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④ 확성기는 일정한 음량을 증폭시켜 다양한 청취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냉전 상황 하에 활동, 반계털라 활동, 전시작전의 공격과 방어, 그리고 선무활동에 있어서 기회를 이용하는 전술 심리전에서 기본

61) 육군본부, 『심리전실무참고』(서울 : 육군본부, 1973), 21면.

무기로 사용되어 왔다.⁶²⁾

특히 확성기는 다른 매체에 비해 심리전 거리를 단축시켜 효과적으로 표적 대상적중이 용이한 반면 범위가 제한되고 적의 포화의 표적 대상이 되고 난청 또는 불청지역의 제한성을 갖고 있다.

⑤ 영화는 누구나 신뢰하는 경향이 있어서 심리전 신뢰성 확보에 도움이 된다.

⑥ 신문은 독자와의 최초 접촉하는 정보의 중요한 원천으로 지역 내 모든 사회생활 분야를 포함한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무기로서 활용하고 있다.

심리전에 있어서 비밀 출판물에 의한 공작활동은 선전의 진출처를 숨기고 진행되는 흑색·회색선전에 사용되며 이는 적 지역 내의 반항운동에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목표 대상지역내의 민심혼란, 상호이간 등을 야기 시키는데 주로 이용된다.⁶³⁾

심리전 주요 매체의 장단점을 도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2-2> 주요 매체의 장점과 단점

분류	장점	단점
라디오	① 속보성 ② 광역성 ③ 다양성(극, 음악, 보도 등 여러 형식의 내용) ④ 습관성(라디오 청취는 당연)	① 전파방해(공간상황, 지형, 그 밖의 요인) ② 상대방의 제한(수신 통제) ③ 출력 부족 ④ 일시성

62) 육군본부, 위의 책, 26면.

63) 육군본부, 『심리작전』 야전교범 33-5(서울 : 육군본부, 1980), 150~151면.

	<p>한 생활)</p> <p>⑤ 친근성(문맹도 청취할 수 있음)</p> <p>⑥ 선전성(언어의 억양, 템포, 리듬에 의해 청취자의 마음을 움직임)</p>	
텔레비전	<p>① 속보성</p> <p>② 동시성</p> <p>③ 다양성</p> <p>④ 창조성(이미지 창조가 용이 함)</p> <p>⑤ 공감각적(시청각)</p> <p>⑥ 현장성</p>	<p>① 비싼 가격</p> <p>② 상대방의 제한(수신통제)</p> <p>③ 수신기의 결여</p> <p>④ 고도의 전문성 요구</p> <p>⑤ 필요한 출력을 위해 강력한 전원 공급 시설을 필요로 함</p>
인쇄물	<p>① 지속성</p> <p>② 해설성</p> <p>③ 권위성(들은 것보다 눈으로 본 것을 믿는 인간의 심리가 있음)</p> <p>④ 집중성(특정목표의 특정 주제에 초점을 맞출 수 있음)</p> <p>⑤ 프라이머시(인쇄물 읽는 행위가 노출되지 않을 수 있음)</p> <p>⑥ 보충성(충분히 보충설명을 가할 수 있음)</p>	<p>① 지연성</p> <p>② 지속성(장점인 동시에 단점, 내용의 정확성과 일관성이 요구됨)</p> <p>③ 목표 도달의 불확실성</p> <p>④ 문맹의 존재</p> <p>⑤ 현재성(인쇄물 살포 행위가 발견되기 쉬움)</p>
영화	<p>① 신뢰성</p> <p>② 박진감, 현장감</p>	<p>① 준비가 복잡(돈, 시간, 노력)</p>

	③ 문맹에도 이해 가능	② 시설의 요구(장소, 기재, 전원) ③ 청중의 범위와 한계
확성기	① 인격성(대면 접촉과 같은 효과) ② 가동성(운반, 휴대가 용이함) ③ 유연성(주변 환경에 적응력이 큼)	① 도달 범위의 한계 ② 노출성(상대의 목표가 되기 쉬움) ③ 자연현상의 영향을 많이 받음(바람, 지형 등)

※ 출처 : 김기도 편저, 『정치선전과 심리전략』 (서울 : 도서출판 나남, 1989), 230면.

2. 심리전의 방법

심리전에 활용되는 방법은 전술한 심리전 수단을 이용하여 표적, 대상 지역 및 집단의 욕구불만 상태를 자극하여 주체 측에서 요구하는 반응을 얻기 위해 사용한다. 어떠한 국가나 집단이라 할지라도 정치, 경제, 군사, 사회, 제도상의 모순과 취약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심리전에서는 이와 같은 상대방의 취약점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분석하여 정확한 대응책으로 시기적절한 공격을 계획적, 지속적, 단계적으로 실시할 때 심리전은 가공할만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심리전 활동방법은 공세적 방법과 방어적 방법을 병행하여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세적 활동은 아측에서 방송, 전단, 대면전달, 기타 매체를 통해 적측으로 향하여 전개되는 심리전 활동분야(주로 백색선전)와 적측에 침투된 아측의 심리전 공작원에 의하여 적측 내부에서 진행되는 심리전 활동분야(주로 흑색선전, 파괴활동, 분열공작)를 말한다. 방

어적 활동은 적의 간접침략, 심리전 공세를 막기 위하여 아측내에서 진행되는 심리전 활동분야(홍보, 정훈)를 말한다.

심리전 활동은 다음과 같은 것을 목표로 한다.⁶⁴⁾

첫째는 상대국민의 정신적 단결과 정신적 무장의 파괴에 의한 국민정신의 약화와 무력화이다.

둘째는 상대국민의 이데올로기의 전환에 의한 현 지배체제에 대한 반항과 자기 진영에의 참가 共鳴(공오)로 유도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목표를 달성해 나가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일곱 가지 방법에 중점을 두고 있다.⁶⁵⁾

① 자기의 전력 특히 핵전력이나 경제전력 등의 우위와 위협을 과시하고 상대국민에게 공포심, 불안감 및 위기감을 일으켜서 상대를 굴복하고 惑亂(혹난)시켜 자기 진영으로 끌어들이거나 또는 정복을 도모한다.

② 상대방 국민 층에 썩기를 박아서 분열시키고 국내 대립항쟁을 조성하여 격화시키며 자기측이 좋아하지 않는 현 지배세력에 대한 반란을 교사선동하고 그들이 자연적으로 互解(호해)하도록 유도한다.

③ 전쟁을 싫어한다고 하는 인간의 자연심리에 호소해서, 예를 들면 평화주의 또는 중립주의 등을 교묘하게 조작 선전하여 무저항 사상과 패배주의를 주입시킴으로써 국가 의식의 약화 및 군비의 무력을 도모한다.

④ 상대진영의 동맹제국 간에 이간과 분열을 획책하고 각국의 고립화와 진영내부의 분쟁을 도모한다.

⑤ 민족의 자유와 해방과 독립을 외쳐서 종주국의 지배에 대한 반항과 이반을 선동한다.

64) 宋泰均, 『間接侵略』(서울: 兵學社, 1982), 43면.

65) 위의 책, 43~44면.

⑥ 상대의 국민사상을 세뇌하여 이데올로기적으로 정복지배하고 자기 진영으로 흡수한다.

⑦ 기타 경제교란이나 정치 혼란 및 사회불안의 조성격화를 기도하는 각종 공작의 침투를 전개하는 것이다.

이러한 심리전은 그 활동에 있어 통상 '6W' 원칙 하에 이루어진다. To Whom, what is to be done, when, where, why, with what results의 여섯 개의 'W'인 것이다. 그러나 6W 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유효한 심리전이 행해지기 위한 중대한 요소로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⁶⁶⁾

① 심리전의 내용이 진실할 것, ② 이데올로기의 힘을 중요시 할 것, ③ 여론의 지지를 받을 것, ④ 말에 그치지 않는 적극적인 행동의 뒷받침이 있을 것, ⑤ 강력하고 창조적인 리더십을 가질 것, ⑥ 관계기관의 협조가 이루어질 것, ⑦ 효율적이고 통일적인 조직을 가질 것, ⑧ 국가정책의 일관성이 심리전에 담겨질 것, ⑨ 국가정책 목표에 대한 심리전 목표의 일치, ⑩ 우수한 심리전 전문가를 양성할 것, ⑪ 심리전 기구와 결정 작성자를 직결 시킬 것, ⑫ 전략적 심리전과 전술적 심리전 간에 연관성을 부여할 것, ⑬ 심리전 기관과 활동가의 지위를 향상시킬 것, ⑭ 정확·신속·풍부한 정보를 가질 것, ⑮ 세밀한 목표 분석과 효과의 평가 등이다.

이상과 같은 요소들은 국가정책의 도구로서의 심리전에 관한 것이며, 국가란 말 대신 기업 등에도 충분히 통용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더구나 과거 냉전시대의 심리전은 대항적인 성격을 띠고 있었으나 현대의 심리전은 공격적 측면에서 평화적인 대화의 무대로 변화하였다.

66) 정충무, 앞의 책, 79면.

최근에는 커뮤니케이션의 역할을 더욱 강조하고 있으며, 심리전의 효과도 공포로부터→설득→이해→신뢰로 나아가고 있다.

그렇지만 동서냉전이 종식된 이후에도 핵군축을 둘러싼 강대국들 사이에는 물론 세계 각국에서 용어와 형태를 달리하면서 심리전을 전개해 나가고 있는 양상이다.

특히 북한은 국제정세의 변화와 한국 내 사정을 감안해 위장평화공세를 강화하면서 김일성 사망 이후 심각한 경제난과 국제적 고립 속에서도 무력 증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한국의 사회혼란을 위한 대남 선전·선동을 강화시켜 나가고 있다.

제3장 북한의 대남심리전 체제

제1절 대남심리전 기본전략

대남심리전 기본전략은 레닌의 “공산혁명전략”을 모방한 것으로 그 목적은 한반도의 적화통일을 이룩하는데 있다.

북한은 남한혁명을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으로 규정하고 대남심리전을 전개하여 왔다. 더구나 한반도의 공산화를 위한 혁명적 인간상을 정립하고 혁명적 인간형성단계를 ‘심리의식개조’라는 유물론적 심리학 개념으로 체계화하였다. 이를 도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3-1> 북한이 설정하고 있는 혁명적 세계관 형성과정

구분	심리의식	비고
認識段階	○ 자본주의 사회의 반동적 본질과 부패상 폭로 ○ 불합리한 사회제도를 반대	인지
憎惡段階	○ 착취계급과 착취사회를 미워하는 사상교양 ○ 계급적으로 각성하여 적극적인 변혁태도	감정
決心段階	○ 최후까지 투쟁하려는 혁명적 각오	행동

	○ 모조리 때려 부수려는 사상적 결심	
--	-------------------------	--

※ 출처 : 박갑수, “북한의 대남심리전 내용 및 전개양상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1987), 26면.

북한은 사회주의 헌법 제9조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북반부에서 인민정권을 강화하고 사상·기술·문화의 3대혁명을 힘 있게 벌여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자주·평화통일·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한다” 67)고 밝히고 있으며, 당 규약 전문에도 “조선로동당의 당면 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여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의 혁명과업을 완수하는데 있으며 최종목적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와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는데 있다...조선로동당은 남조선에서 미 제국주의 침략군대를 몰아내고 식민지통치를 청산하며 그리고 일본군국주의의 재침 기도를 좌절시키기 위한 투쟁을 전개하고 남조선 인민들의 사회민주화와 생존투쟁을 적극 지원하고 조국을 자주적 평화적으로 민족대단결의 원칙에 기초하여 통일을 이룩하고 나라와 민족의 통일적 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한다” 68)고 규정하고 있다.

김일성은 1964년 2월 27일 당 중앙위 제4기 8차 전원회의에서 “우리 조국의 통일, 조선혁명의 전국적 승리는 결국 3대혁명역량의 준비에 달려있다고 말할 수 있다. 첫째로, 공화국북반부에서 사회주의건설을 잘하여 우리의 혁명 기지를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더욱더 강화하는 것이며 둘째로, 남조선인민들을 정치사상적으로 각성시키고 튼튼히 묶어세움으로써 남조선의 혁명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며 셋째로, 조선인민과 국제혁명역량과의 단결을 강화하는 것” 69)이라고 밝혔다.

67) 「북한연구소」, 『북한대사전』 (서울 : 북한연구소, 1999), 1130면.

68) 「북한연구소」, 『북한대사전』, 위의 책, 1141~1142면.

69) 김일성, 『김일성저작선집 4권』 (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68), 239면.

특히 해방 후 현재까지 「선 남조선혁명 후 조국통일」이라는 혁명관을 일관되게 견지하면서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리론은 남조선혁명을 완수하고 분열된 조국을 통일하여 조선혁명의 전국적 승리를 이룩할 데 대한 리론이다...오늘 남조선인민에게 있어서 미제의 식민지통치와 그 앞잡이들의 파쇼통치를 뒤집어엎고 짓밟힌 남조선인민의 자주성을 되찾는 이상 영예롭고도 중요한 과업은 없으며 전체 조선인민에게 있어서 미제를 내쫓고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적자주권을 확립하는 것보다 더 간절하고도 숭고한 혁명과업은 없다. 이 두 혁명과업은 다같이 인민대중의 간절하고도 자주성을 옹호하기 위한 투쟁이므로 하여 남조선인민과 전체 조선인민의 사활적 리익에 관련된 지상의 과업”⁷⁰⁾으로 내세워 왔던 것이다.

북한의 심리전 목표는 이러한 정치적 목적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한반도 공산화통일을 위한 혁명전략 목표를 달성하는데 있다. 다시 말하여 대내적으로는 김정일 유일체제 공고화 및 북한의 혁명기지 강화에 주력하고, 대외적으로는 북한의 고립 탈피를 위한 국제지원역량 강화 및 위장평화 선전을 강화하면서, 대남면에서는 한국 국민들에게 반미, 반정부 투쟁의식을 고취하여 한국의 사회혼란을 조성하고 통일전선을 구축하는데 주력하여 왔다.

대남심리전의 기본방향으로는 다섯 가지를 중점방향으로 설정하였다.⁷¹⁾

첫째, 남한 대중에게 공산주의 혁명의식을 전개하여 각계각층(노동자, 농민, 청년, 학생, 지식인, 군인 등)에게 공산주의 혁명의식을 주입시켜 대중적 투쟁기반을 구축하고 혁명 의식화를 실현하는 것이다.

둘째, 남한사회에 반미 자주화 및 반독재 민주화 투쟁을 선동하고 이

70) 허중호, 『주체사상에 기초한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리론』(평양 : 사회과학출판사, 1975), 3면.

71) 「국방부」, 『국방백서(1994-1995)』(서울 : 국방부, 1994), 70~72면.

를 적화통일과 연계되는 심리전을 전개하는 것이다. 북한은 민족자주화를 내세워 반미투쟁을 선동하고 북한 체제에 반하는 집단을 독재로 규정하여 반독재 민주화 투쟁을 선동하여 왔다. 즉 반미 자주화와 반독재 민주화 투쟁을 선동하여 반미, 반정부 투쟁을 연결시켜 적화통일을 위한 혁명적 기반의 구축을 꾀하고 있다.

셋째, 위장평화공세를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전개하는 것이다. 북한은 한반도에서 주한미군 철수와 남한사회 내부를 분열시켜 공산화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전민족 대단결 10대강령”, “전민족대회 소집”,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 할 것 등을 주장하는 한편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고조의 책임을 한미에게 전가시키고 호전적인 반통일 세력으로 대내외에 인식시킴으로써 정치, 군사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장 평화공세를 전개하여 왔다.

넷째, 한국사회의 내분을 조장하고 남한의 체제와해에 주력하는 것이다. 즉 한국 국민을 대상으로 김일성, 김정일 부자의 혁명사상과 영도력을 부각시키고 주체사상의 당위성과 공감대를 형성하여 청년, 학생들과 노동자, 농민, 지식인들 속에서 혁명의 핵심지도자를 양성하고 남한 사회의 혼란과 주민사상의 분열을 조성하여 국민과 정부를 이간시키면서 지배계층과 국민대중의 대립을 촉진시키기 위한 정치 및 사상공세를 꾀하고 있다.

다섯째, 남한 혁명에 유리한 국제적 환경을 조성시키는 것이다. 남한 주민을 이용한 반미자주화, 반파쇼민주화, 공산혁명투쟁의 불가피성과 정당성을 선전하여 국제사회의 이해와 동정을 획득하며 지지와 성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국제환경을 조성시키고자 하였다.

전술한 바와 같이 북한은 군사적 기반을 기초로 하여 대남심리전을 다양한 방법과 기술을 이용하여 전개해 나가고 있다. 또한 심리전 활동의 최종 목표를 적화통일에 두고 한국에서 반미, 반정부적 민중봉기를 촉구

하고 국제 정세에 편승한 위장 및 기만 전술인 평화통일 공세에 박차를 가하면서 간첩을 남파시키고 각종 사건 도발 등을 병행하여 추진하여 왔다.

최근에는 합법적인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철폐, 한총련·범민련 합법화, 국정원 및 보안수사기관 해체, 반보수대연합 구축, 반통일 우익세력 척결, 연방제 통일 관철, 미국의 대북강경정책 분쇄 투쟁을 집중적으로 선동하면서 남한사회의 혼란과 분열을 획책하는 등 남한지역의 혁명역량 강화에 총력투쟁을 경주하고 있다.

제2절 북한의 심리전 체제

북한의 심리전 체계는 당과 내각의 이중 조직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권력의 핵심인 당 중앙위를 정점으로 일원화된 조직기구를 갖추고 있으며, 그 조직은 크게 3개 부문으로 구분되어 있다.⁷²⁾

첫째, 목표 결정기관이다. 심리전 목표 결정은 당 정치국 상무위원회에서 작성한 뒤 당 중앙위의 의결을 거쳐 당선전선동부를 통해 대내외로 전달된다.

둘째, 심리전 방향결정기관이다. 당에서 채택된 목표는 사상적 측면은 당 중앙위 선전선동부에서 계몽적 측면은 내각의 문화성에서 결정하여 대외로 전파한다.

72) 육군본부, 『북괴군 심리전』(서울 : 육군본부, 1989), 26면.

셋째, 집행기관이다. 당과 내각, 그리고 사회문화단체에 예속된 모든 매체를 총동원하는 곳으로 심지어 무역성까지 동원하고 있다.⁷³⁾

당의 최고기관인 당 대회에서 심리전 정책이 추진되면 비서국은 그 정책에 입각하여 당과 내각의 심리전 기관에 지침을 하달하고 모든 심리전 기관의 활동사항을 지도감독 통제한다.

따라서 당 중앙위 비서국은 정책을 수립하고 그 집행을 지도감독 하는 최고 권력기관인 동시에 심리전의 지도기관이다.

특히 대남사업담당 및 국제사업담당비서는 심리전과 직접관계가 있는 조직체로서 그들은 노동당의 대외조사부, 통일전선부, 대외연락부, 작전부, 인민무력부 정찰국을 통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남한 내에 혁명정세의 조성과 동조 및 호응세력 확보를 위해 반미, 반정부 선동, 지하당조직 및 기만적 평화통일 공세를 그 선전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다.⁷⁴⁾

대남심리전의 전술기구로는 인민무력부 총정치국 적공부와 내각 문화성 산하 조선중앙방송위원회를 두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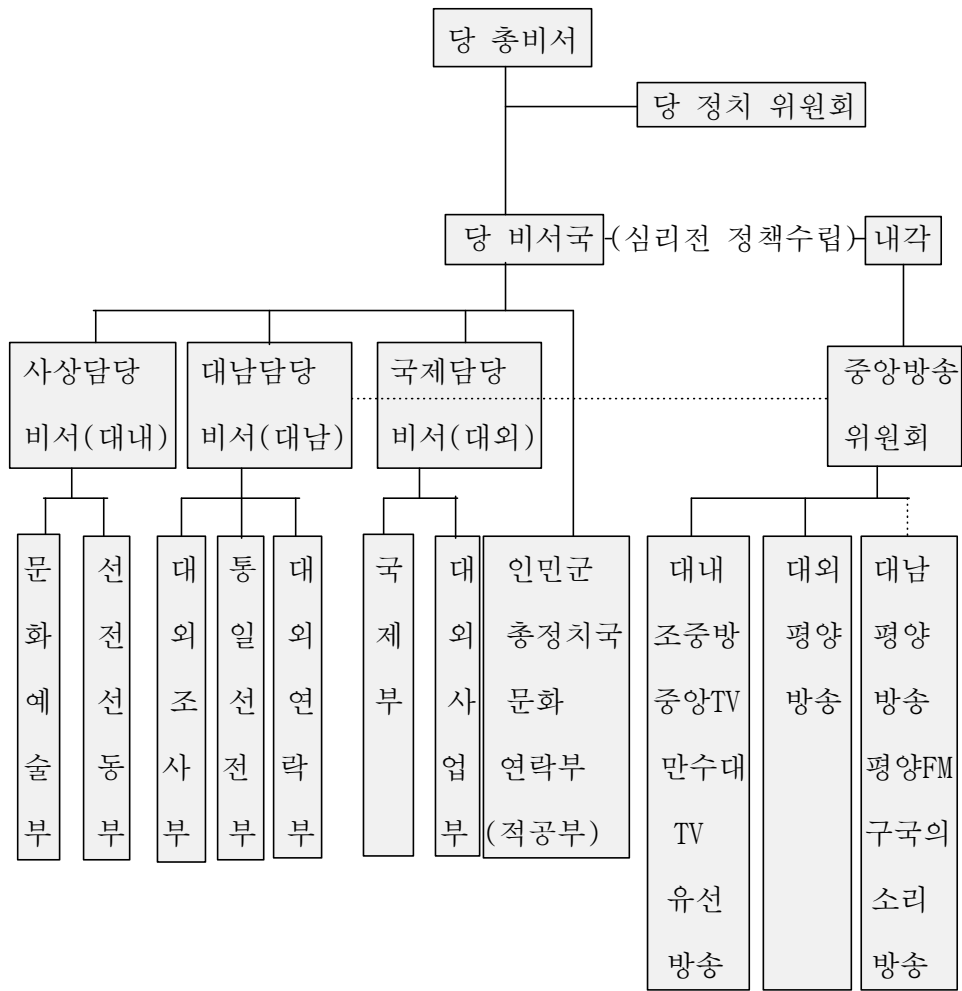
당 선전선동부는 내각의 문화성이나 출판총국에 대해 정치권력의 일원적 지시와 통제를 가할 뿐 아니라 행정부, 군, 하급당과 각종 예술·문화·사회단체 및 중앙의 신문과 방송 등 언론기관의 모든 활동에 대해서도 구심적인 의사결정기구로 군림하고 있으며 북한의 최종적인 언론통제기구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북한의 심리전 기구를 요약하여 도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73) 합참본부, 『99 대북심리전 지침』(서울 : 국방부, 1999), 59~61면.

74) 선동식, 『심리의 전쟁』(서울 : 영진문화사, 1979), 182면.

<표3-2> 북한의 심리전 기구도



※ 출처 : 국방부, 『국방백서(1997-1998)』 (서울:국방부, 1997), 59면.

이와 같이 북한의 심리전은 대내, 대외, 대남부문으로 세분화되어 체

계적이고 조직 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전반적인 심리전의 지도, 감독은 당중앙위원회 정치국과 비서국에서 총괄하며, 대내외 심리전은 당 중앙위 선전선동부에서 대남심리전은 통일선전부가 전담하고 있다.

1. 대내심리전 기구

대내심리전 기구는 당중앙위원회 산하 선전선동부와 특별시 및 도당 선전선동부 군 및 지역당과 직장, 기업소의 초급 당 선전선동부, 리 및 동(읍), 노동자구 지역 당에 선전선동원을 두고 중앙으로부터 하부말단 당원에 이르기까지 심리전 조직이 체계화되어 있다.

북한은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결정적 요인은 무기나 기술에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위업의 정당성을 자각한 군대와 인민대중의 높은 정치적 열의와 혁명정신에 있다”⁷⁵⁾고 강조하면서 내부의 결속을 강화시켜 왔다.

내각 산하에는 문화성과 중앙방송위원회, 시·도행정위 선전처 군행정위 선전부, 리, 동(읍), 노동자구 행정위원회에 선전원을 상주시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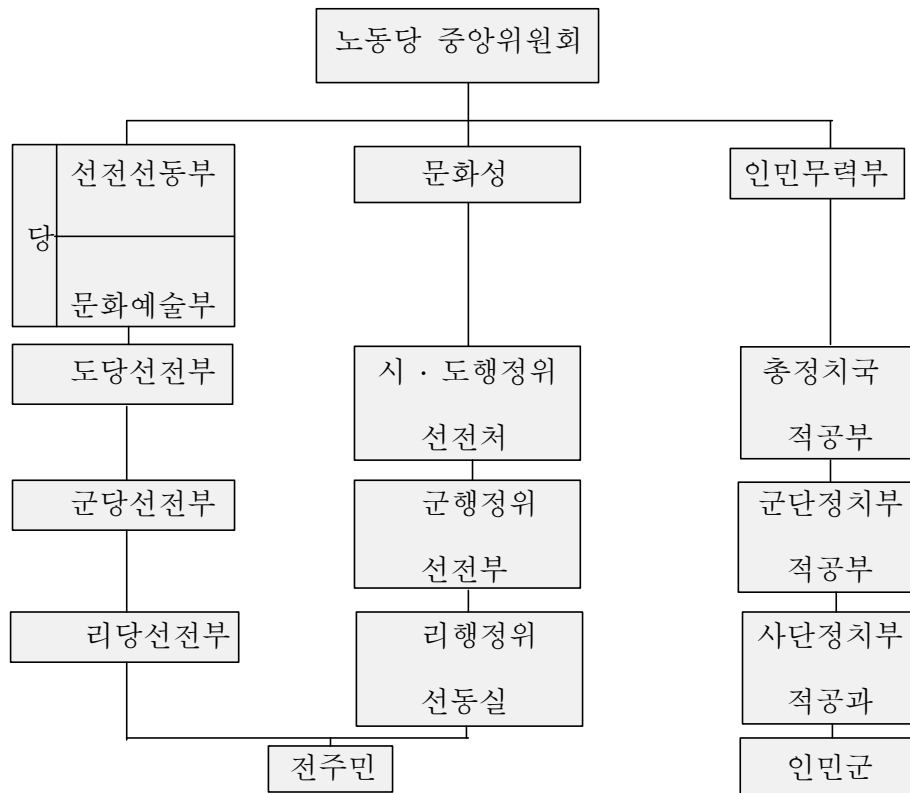
북한군의 심리전기구로는 인민무력부 총정치국 적군외해공작부를 정점으로 각 전방군단에 적공부, 사단에 적공과 등 심리전 담당부서를 두고 인민군내 정치교양사업과 대남심리전을 수행하고 있다.⁷⁶⁾

대내심리전 기구를 요약하여 도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75) 「로동신문」 1982. 6. 28.

76) 「통일원」, 『북괴의 대남심리전 현황분석 및 대응책』(서울 : 통일원, 1985), 21면.

<표3-3> 대내심리전 기구⁷⁷⁾



2. 대외심리전 기구

대외심리전 기구는 당의 엄격한 통제를 받으면서 당이 지향하는 심리전 정책을 수행한다. 당비서국 국제사업담당 비서가 대남사업담당비서 및 사상담당비서와 협조하여 국제부를 통해 전개된다.

77) 이항구, 『심리전 연구보고서』 (서울 : 민족문화연구소, 1989), 5면.

<표3-4> 대외심리전 기구⁷⁸⁾



78) 안기부, 『북한의 선전선동 체계』 (서울 : 안기부, 1988), 217면.

대외선전선동사업은 주체사상에 기초한 김일성 김정일 부자의 국제적 우상화와 권위 확보, 세계혁명운동 추진을 위한 자주, 평화, 친선이라는 외교정책 이념 하에 비동맹 운동의 강화발전, 제3세계 국가들과의 친선 및 단결을 강화하여 세계적 지지기반을 확대하고 대남 우위를 확보하는 것을 구체적 임무와 과업으로 내세우고 있다.

대외심리전 수행의 주요기관⁷⁹⁾은 노동당 예하 각종 국제공산주의 선전기구들을 비롯하여 내각의 외교관계 담당부서, 대외연락위원회 및 그 예하의 친선문화기관, 방송, 통신, 출판기관들을 들 수 있으며 주요 임무는 다음과 같다.⁸⁰⁾

① 당 선전선동부 및 국제부는 대외 선전지침 수행 및 집행과 해외 각종 친북, 반한단체 활동을 협조, 조정, 감독하고, 내각은 대외 선전에 필요한 자료 전파와 친북 및 좌경 인사 초청, 북한 발전상 선전(연회, 영화, 사진전시회 등)은 물론 정치적 침투를 위한 선전 공작 및 친선경기를 통한 스포츠 교류를 주요 임무로 하고 있다.

② 사회단체⁸¹⁾는 국제공산주의 선전조직들인 「세계직업연맹」, 「세계민주청년동맹」, 「민주여성동맹」 등과 연계하여 한반도 공산화를 이룩하기 위한 지원세력으로 만들기 위한 대외 선전활동을 주로 담당한다. 이 밖에도 「세계평화이사회」,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단결위원회」, 「조선아시아, 아프리카 단결위원회」 등을 통해 대외심리전을 강화시켜 나가고 있다.

③ 출판지도국 및 외국출판사는 선전 출판물을 제작 통제하고 러시아, 중국, 일본, 영어, 불란서, 서반어로 선전 책자 발간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④ 대외문화연락위원회는 외교 친선단체 교류 및 문화활동을 통한 대

79) 자유평론사, 『공산주의와 언론』 (서울 : 자유평론사, 1976), 190면.

80) 국정사, 『정보실무참고서』 (서울 : 국정사, 1992), 37면.

81) 북한 내에 조선직업총동맹,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여성동맹에 각각 국제부를 두고 이들 조직을 통한 대외심리전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외선전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⑤ 외무성 및 무역성 등에서는 외교 및 경제교류를 통한 선전활동을 계획하고 수행한다.

⑥ 조선중앙방송위원회 및 언론기관은 방송에 관한 업무를 계획하고 당과 정부의 정책보도 및 선전을 주요 임무로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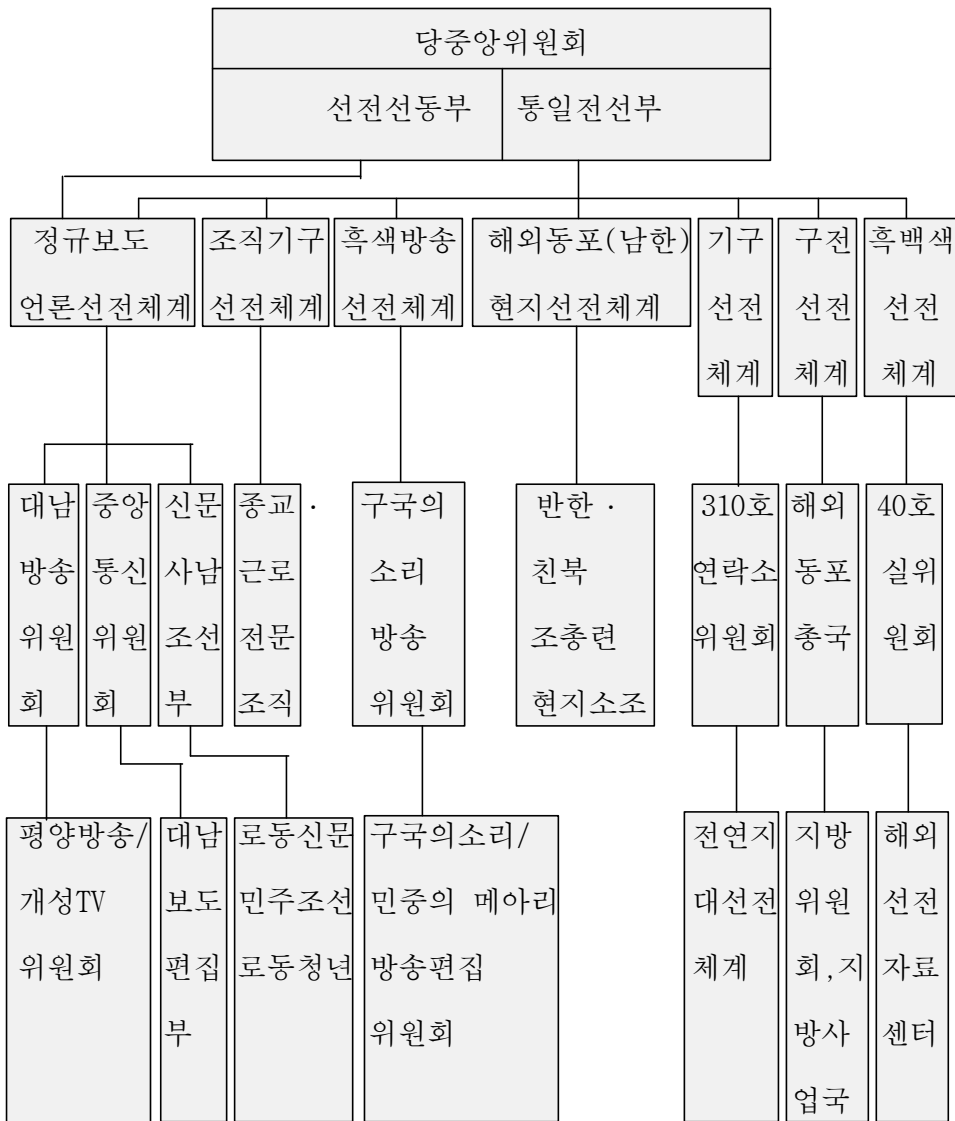
3. 대남심리전 기구

대남심리전 기구는 당비서국 대남사업담당비서 예하에 대외조사부, 통일선전부, 대외연락부를 통하여 수행한다. 통일선전부는 대남심리전을 계획, 운영, 지도감독을 총화 하는 부서로서 남조선문제연구소, 전단을 담당하는 40호실, 전단을 살포하는 310호 연락소를 직접운영하고 있다.

대외연락부는 통일선전부의 요청에 따라 대남전략 행동심리전에 소요되는 인원을 제공한다. 또한 필요시 인민무력부 정찰국 산하의 요원을 소환하여 동원하거나 제3국에 부식한 간첩망을 동원시키고 있다. 대외조사부는 통일선전부의 요청에 따라 대남 심리전에 필요한 정보와 첩보를 제공하고 있다. 대남 선전선동사업은 적화통일 실현과 남한에서의 폭력혁명 유도를 위한 한국 국민을 김일성, 김정일 부자의 혁명사상과 영도력 등을 부각시켜 남한 내에 혁명정세의 조성과 동조 및 호응 세력의 확보를 위한 반미 자주의식, 반정부 투쟁의식을 고취하고 지하당 조직 및 기만적 평화통일공세를 조성하여 폭력혁명운동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기본사명과 임무로 수행한다. 전술적 차원에서는 인민무력부 총정치국 적공부를 정점으로 각 전방군단에 적공부, 사단에 적공과 등 심리전 담당부서를 두고 인민군내 정치교양사업과 확성기 방송, 전단 살포, 대면, 시청각 등의 대남심리전을 전개하였다.

북한의 대남심리전 기구를 도료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3-5> 대남심리전 기구도



※ 출처 : 국정사, 「정보실무참고서」(서울 : 국정사, 1995), 참고

4. 대남심리전 체제

대남심리전은 당비서국 산하 통일전선부의 책임 하에 라디오, TV, 확성기방송, 전단, 시각매개물, 인터넷 등의 수단을 이용하여 실시된다. 대남심리전의 주요수단으로는 라디오와 TV, 인터넷이며 통일전선부가 직접 통제하는 대남방송위원회에서 평양방송, 평양FM방송, 개성 TV와 대남 흑색방송인 반제민전방송을 실시하여 왔다. 확성기 방송은 노동당 통일전선부의 지도감독을 받아 인민무력부 총정치국 적군와해 공작부에서 담당하며, 전단은 노동당 통일전선부 통제 하에 310호 연락소와 인민무력부 기구대대에서 실시하고 있다.⁸²⁾

총정치국 적군와해공작부는 조직공작과(침투 납치), 의거과(월북 유인) 방송선전과(확성기), 회색선전과(전단), 적군와해과(대면), 미군/대남과(외국군 와해공작), 전술연구과(심리전연구), 기구대대 등으로 편성되었다.

적공부의 임무는 대남심리전 전전 및 전투력 와해, 월북과 투항 종용, 남한사회 혼란, 점령지에서의 대민교양, 포로관리 및 신문임무를 맡고 있으며, 군단정치부 적공부에서는 적공조에 대한 대면 접촉과 담판 및 납치공작 지도, 전단 살포, 확성기방송 운용 지도 임무를 사단정치부 적공과는 휴전선의 확성기방송 지도, 대면접촉 및 납치공작 임무를 적공조는 DMZ선상에서 대면 접촉 심리전 및 시청각심리전을 전개하고 있다.

82) 「국방부」, 『국방백서(1996-1997)』 (서울 : 국방부, 1996), 58면.

군단적공부에는 기구중대(전단 살포)와 적공조(대면), 방송국(확성기 방송)을 두고 있으며, 사단정치부에는 적공과를 두고 적공조를 운영하고 있다.

대남심리전의 최고수행 책임기관으로는 당 비서국 예하 통일전선부에서 심리전 전문 연구부서인 남조선연구소, 계관연락소, 40호실을 두고 있다.⁸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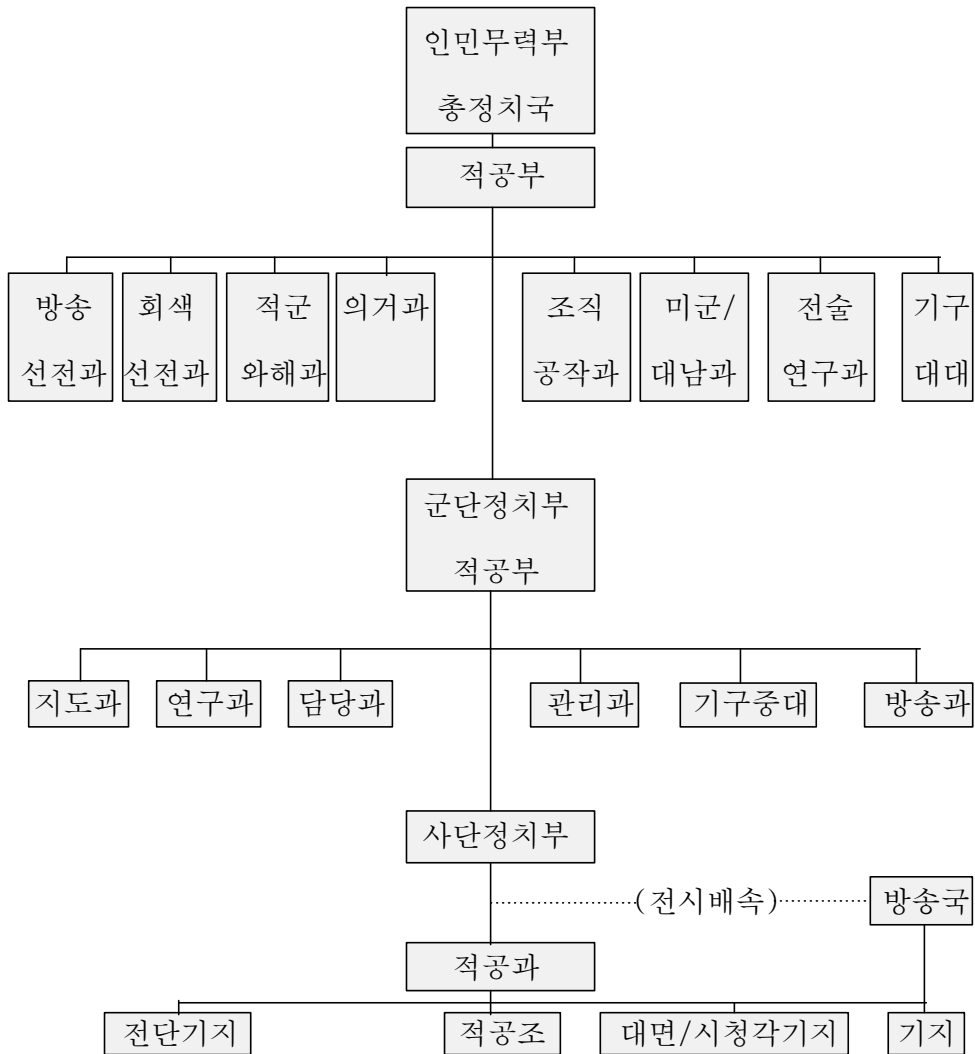
남조선연구소는 연구소장 예하에 종합편집실, 해외교포문제연구실, 교통통신연구실, 종교, 노동, 학생연구실, 종합경제연구실 등 총9개실로 편성되어 있고 한국 정세 및 제반정보 연구 분석, 해외혁명역량 조성문제 연구 분석, 공작 및 심리전 발전연구와 자료제공, 단행본 “남조선문제연구”(주간) 발행을 주요 임무로 수행한다.

계관연락소(「한국민족민주전선」중앙위원회)의 구성은 소장 예하에 국제부, 선동부, 방송부, 자료부, 경리부 등 6개부서가 있으며 한국민족민주전선 중앙지도부 행세, 구국의소리방송, 한국민족민주전선 조직 확대 추진업무를 담당수행하고 있다.

40호실의 구성은 실장 예하에 조직부, 문예부, 출판부, 단행본부, 선전물과, 조사연구과, 기획과, 기구연구실 등이 있으며 주요 임무로는 대남전단·책자 제작배포, 배포용 기구 제작 및 개발연구, 각종 유인물 제작 등의 임무를 맡고 있다.

83) 이항구, 앞의 책, 4면.

<표3-6> 북한군 심리전 체계도



※ 출처 : 합참본부, 『북한의 대북심리전에 대한 방어체계』 (서울 : 합참본부, 1999), 20면 참고, 국정사, 『정보실무참고서』 (1995) 참고.

전술한 바와 같이 북한의 심리전은 대내, 대외, 대남심리전으로 분류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심리전의 중심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대내적으로는 북한 주민들의 의식을 발달하기 위한 세뇌와 사상개조를 실시함과 동시에 공산주의사상 및 주체사상으로 무장시키면서 김일성, 김정일 우상화 및 사회주의 경제 건설과 국방건설 강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왔다.

대외적으로는 각종 친북관련 기구 및 단체들을 통해 북한의 체제 및 김일성, 김정일 부자의 우상화와 친북 및 좌경 인사를 초청 북한의 발전상 선전(연회, 영화, 사진전시회 등)하고 각종 선전책자 제작 배포, 친선단체교류 및 활동 강화, 주체사상연구소⁸⁴⁾를 통한 선전활동을 강화시켜 나가고 있다.

대남적으로는 간접침략의 방법으로 위장평화 통일공세 등 심리전을 감행하여 남한 내 반미 반정부 투쟁이 유발하도록 하는 한편 간첩을 침투시켜 활동거점 확보를 획책하면서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의 목적을 남한 내에 혁명정세를 조성하는 것이며, 투쟁 목표는 한국에서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정권 타도, 민주세력을 구축하여 소위 새로운 인민정권을 수립하여 북한과의 적화통일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혁명적인 당을 조직하고 반미 반정부적 구국통일전선을 형성하여 대중투쟁을 전개하여 한국 내에 분쟁을 조장하여 남한사회를 분열시키고 그 결과 초래되는 혼란을 역이용하려는 심리전을 전개하고 왔다.

84) 1984년 말 현재 친선협회는 103개국에 410개, 김일성 연구소조가 88개국 704개를 만들어 놓고 북한의 우월성을 선전하고 친북정책 유도에 널리 활용하여 왔다. 『평화통일연구소』, 『북한개요』(서울 : 평화통일연구소, 1986), 285~288면.

북한의 대남심리전 전략전술⁸⁵⁾은 한국 국민들 속에 마르크스·레닌주의와 주체사상을 전파하고 한국 사회를 무질서와 혼란에 빠뜨리며, 내부를 분열시키고 노동자, 농민, 학생, 지식인 등을 중심으로 하는 국민대중을 반체제적으로 유도하는 것으로 3가지 전술을 사용하고 있다.

첫째는 선전선동 전술이다. 북한 공산당은 사상전파를 위하여 공산주의를 선전하고 사회내부를 혼란, 분열시키기 위하여 흑색선전을 계속 반복하고 선전이 성공을 거두면 군중을 조직하여 대중의 시위와 파업, 그리고 폭동을 선동하게 된다.

둘째는 테러전술이다. 남한사회의 지도급 인사들을 폭력으로 제거하고 테러로서 불안과 혼란을 야기하여 정부에 대한 국민대중의 불신감을 조성시키며 폭력과 그 폭력의 선례에 대한 공포로 대중을 협박하여 정부와 협조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셋째는 위장과 기만전술이다. 공산주의자들은 모든 구호, 선전 주장, 제안 등을 기만으로 위장 하게 마련이다. 그들은 기만과 위장전술을 자기들의 궁극적 목표가 달성 될 때까지 철저하게 지키며, 기만과 위장을 통하여 자기의 실체를 숨기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착각에 빠지게 하여 그들에게 유리한 정세를 조성시켜 나가는 것이다.

대남심리전 선전선동의 주요 내용은 북한체제의 정당성과 김일성, 김정일 부자의 우상화, 고려연방제통일방안의 정당성, 위장평화공세 강화, 한반도 긴장 요인과 책임을 한미에 전가, 남북대화 왜곡선전, 한미이간,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철폐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계층별, 대상별로 구분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85) 육군본부, 『반공교육전서』(서울 : 육군본부, 1981), 595면.

〈표3-7〉 주요 대상별 선전선동 내용

대 상	선전선동 내용
노동자, 농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자들의 생존권 옹호 및 생활 향상을 위한 임금문제 • 노동조건 및 환경문제 • 민주주의적 자유와 권리 쟁취 • 반제 · 반미 · 반자본가, 계급 · 혁명 · 민족 자주의식 고취 • 주체사상 침투 및 보급, 김일성, 김정일 우상화 • 북한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 및 지지 • 혁명의 주력군으로서 역할 수행 • 혁명조직의 의식화, 조직화
청년, 학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원 자율화, 반파쇼민주화, 반미, 반정부 투쟁 촉구 • 주체사상을 노동자, 농민들 속에 침투시켜 의식화 촉진 • 청년학생들을 자주화 민주화 투쟁과 노동자들의 생존권 쟁취 투쟁과 연계 · 연대투쟁 강화 • 각종 투쟁에서 청년학생들이 선구자적 역할 수행
군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족 · 민족의식 및 미국의 식민지 용병이라는 반미, 적대의식 고취에 중점을 두고 • 군내부를 상층부, 중상층부, 하층부로 구분하여 선전선동 전개 • 상층부는 폭로, 타격, 고립시키는 방법으로 내부 갈등 및 이간 · 불신 · 대립을 조장하여 분열을 초래 • 중상층부는 혁명의 적대계급으로 규정하고 이들을 폭로, 타격하여 병사들과 중하층 장교들로부터 고립시키는데 중점을 둠 • 하층부는 포섭, 동조 대상으로 규정하여 반전, 염전사상 고취, 명령 불복종, 반항, 반란, 귀순을 유도하여 군 내부를 와해, 약화시키는데 중점을 둠.

※ 출처 : 육군본부, 『심리작전』(대전 : 육군본부, 1992), 39~49면.

제4장 북한의 대남심리전 실태

제1절 심리전 매체별 운용실태

북한의 언론은 사상성, 당성, 계급성, 대중성을 특성으로 하고 있으며, 그 임무를 “조국통일과 남조선혁명을 위하여, 주체위업의 세계사적 승리를 위하여 투쟁하는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주체사상과 그 구현인 남조선 혁명에 관한 우리 당의 전략 전술적 방침과 자주적 조국통일 방침을 널리 해설·선전하고 남조선 인민들을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의 두리에 굳게 묶어 세워야 하며, 미·일 침략자들과 그 주구들을 반대하는 거족적 투쟁에 전체 인민을 힘 있게 불러 일으켜야 한다⁸⁶⁾고 강조하고 있다.

대남심리전 매체별 운용방법은 전파매체, 인쇄매체, 문예매체, 특수매체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를 요약하여 도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4-1> 심리전 매체별 운용 현황

전파매체	방송	라디오	조선중앙방송, 평양방송, 평양FM방송, 구국의소리방송, 제3방송(유선방송)
		TV	조선중앙TV, 만수대 TV, 조선교육문화 TV, 개성 TV(중영)

86) 박현민, 『북한의 언론 그 실제』(남북문제연구소, 1993), 35면, 송경호, “북한의 대남심리전에 관한 연구”, 공안연구 제51집(경기 : 공안문제연구소, 1998), 82면.

	통신	통신	조선중앙통신사
인쇄 매체	신문	중앙일간지	로동신문, 민주조선, 청년전위, 조선인민군
		지방일간지	평양신문, 평남일보, 평북일보, 함북일보, 함남일보, 자강일보, 량강일보, 강원일보, 황북일보, 황남일보, 개성신문, 남포신문
		특수지	건설신문, 사회안전, 교통신문, 로동자신문, 통일신보, 교원신문, 철도신문, 농업신문, 수산신문, 대학신문 등
		영자지, 불문지	The Pyong Yang Times(주간)
	잡지, 서적, 화보	주체사상총서, 김일성저작집, 정치사전, 항일무장투쟁사, 근로자(잡지), 조선(화보) 등	
	전단	월북종용, 공산주의 및 북한의 사회주의제도 찬양, 김부자 우상화, 체제 불만 및 체제붕괴유도, 노사분규, 사회혼란 및 각종 정치공세, 연방제통일 등	
문예 매체	영화, 음악, 미술, 소설	피바다. 한자위단원의 운명, 밀림아 이야기하라, 꽃파는 처녀, 시, 소설, 만화, 역사, 철학 등	
특수 매체	인터넷	구국전선, 조선통신, 조선신보, 모악산, 주체사상, 자주성, 우리민족끼리, 통일학연구소, 조선인포뱅크, 민족통신, 조선영화시리즈, 범민련 등	
	DMZ 확성기방송	대남 비방 및 북한체제 우월성 선전, 월북종용	
	대면, 시청각, 집단체조, 인공기개양, 접경지역 대형구호 현수막	DMZ 북방지역의 각종 선전 구호판, 전연지역 위문 공연, 아리랑공연 등	

1. 전파매체

북한의 방송은 표면상 내각 직속의 「중앙방송위원회」의 지도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으나, 당과 내각의 2원체제로 구성되어 있다. 전반적인 방송편성은 당 선전선동부와 통일선선부에서 지도감독하며 시설관리 등 방송업무는 「중앙방송위원회」에서 담당한다.

북한은 방송을 “인민대중을 당의 유일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그들을 혁명위업 실천에로 조직 동원하는 강력한 무기”로 규정하고 김정일 체제를 공고화하기 위한 당의 유력한 선전선동 매체로써 당의 노선과 정책을 구현하는 도구이며, 이데올로기 교육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

특히 남한 내에서 공산당의 합법적 활동이 봉쇄되고 있는 상황에서 방송은 시간과 지역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현실을 가장 신속 정확하고 현실감 있게 전달하며, 대중성을 띠므로 그 영향력이 직접적이어서 대남심리전 수단 중에서도 방송수단을 중요시하고⁸⁷⁾ 있는 등 가장 효과적인 대남심리전 수단으로 활용하여 왔다.

가. TV방송

북한의 TV방송은 조선중앙TV, 만수대TV, 조선교육문화TV, 개성TV방송이 있다.

① 조선중앙 TV방송⁸⁸⁾은 북한의 대표적 TV방송으로 제4차 당 대회 이후 7개년 계획에서 수립되어 1962년에 착공되었다. 1963년 8월 15일 완

87) 「국가정보대학원」, 『북한체제연구』(서울 : 국가정보대학원, 1999), 599~601면.

88) 평양시 모란봉구역 전승동에 위치하며, 주요 프로그램은 보도, 교양, 오락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양프로그램은 김부자의 영도력과 주체사상 찬양,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 등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오락프로그램은 혁명적인 시, 소설, 음악, 스포츠 소식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 목표로 추진하였으나 소련의 원조 부진으로 인해 1963년 3월 3일 시험방송만을 실시하였다.

1969년 4월 「조선중앙 TV방송국」을 완공 개국하여 5KW출력으로 정규 흑백방송을 시작하였으며, 1974년 4월 15일 김일성 63회 생일을 기해 칼라방송을 시작하였다. PAL방식으로 송출되며 평일에는 오후 5시부터 11시까지 6시간, 일요일과 공휴일에는 오전 10시~오후 1시, 오후 3시~11시 30분까지 총 11시간 30분을 방영한다.⁸⁹⁾

② 만수대TV는 평양시민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방송으로 1980년에 들어와 개국하였다. 토·일요일에만 오전 9시~오후 1시, 오후 4시~10시 등 10시간 동안 예술 공연과 영화, 스포츠를 중심으로 방영하고 있다.

③ 조선교육문화TV는 교육문화프로 전문방송이다.

④ 개성TV방송은 1971년 4월 15일 출력 20KW로 개국한 대남 전용 심리전 방송으로 북한의 TV 송출방식인 PAL방식이 아닌 한국과 같은 NTSC방식으로 전파를 송출하여 평일 오후 5시~10시까지 5시간, 일요일과 공휴일에는 오후 3시~10 등 총 10시간을 방영하여 왔다.

개성TV는 북한의 TV송출방식인 PAL방식이 아니고 한국과 같은 NTSC방식으로 송출되며, 주요 방송내용은 한국정부를 비방하고 한국국민의 혁명의식 고취, 김일성, 김정일 부자의 우상화 및 북한체제 선전에 주력하였다.

나. 라디오 방송⁹⁰⁾

라디오 방송은 조선중앙방송, 평양방송, 평양FM방송, 한민전방송(구

89) 「내외통신사」, 『북한조감』(서울 : 내외통신, 1994), 59면.

90) 「북한연구소」, 『북한총람』(서울 : 북한연구소, 1983), 1172~1182면.

국의소리방송)등이 있다.

① 조선중앙방송은 1945년 10월 14일 개국한 평양방송을 모체로 출발⁹¹⁾한 북한의 대표적인 라디오방송이다. 1967년 12월 조선중앙방송을 제1방송(300KW), 제2방송(500KW)로 분리하여 제1방송은 대내, 제2방송은 대외 및 대남방송을 담당하여 왔다.

1970년에는 조선중앙방송위원회 제1방송, 제2방송, TV방송, 대외방송을 조직하여 각도(직할시)와 시, 군에 지방 방송위원회를 설치하였고, 1972년 11월 10일 새벽 5시를 기해 제1방송을 조선중앙방송으로 개칭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대내·대남방송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중파 3채널, 단파 4채널로 1일 22시간 방송된다. 대내적으로는 김정일을 중심으로 한 정치사상적 역량을 강화시키는데 주력하면서 김일성, 김정일 부자의 우상화, 계급투쟁의식 고취, 전투준비 독려, 적화통일 사명감 고취 및 대남적으로 한국에 관한 보도기사를 왜곡 주입시켜 반미, 반정부 투쟁을 선동하고 혁명의식 고취에 운용되고 있다.⁹²⁾

② 평양방송은 1972년 11월 조선중앙방송에서 분리된 대남·대외전용 심리전방송이다. 중파 5채널, 단파 3채널로 1일 23시간 30분씩 방송된다.

평양방송은 마르크스 레닌주의 방송대학 강좌와 김일성 방송통신대학 강좌 등을 설치하여 한국어, 노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로 동남아, 구라파, 중동, 남미를 비롯하여 아프리카 지역을 대상으로 남조선 혁명을 위한 주력군 편성, 통일전선의 구축, 반혁명 세력의 약화 등을 기도하면서 북한의 성과를 과장하고 공산주의 이론 교육과 한국비난

91) 일제 하의 평양방송국 기능을 정비하여 500W 출력으로 방송을 시작하여 1955년 4월 9일 150KW의 출력으로 대폭 강화하였고 다시 300KW로 증강시켰다.

92) 국방부, 『최근 북괴심리전 동향』(서울 : 국방부 정훈국, 1989), 22면.

및 위장평화공세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③ 평양FM방송은 1989년 1월 1일 개국하여 3개의 주파수로 평일에는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8시간이며 공휴일은 24시간 방송한다.

한국 청소년들을 주 대상으로 프로그램의 편성은 세계명곡, 혁명가극, 소설 낭독, 단막극 등을 소재로 북한체제를 선전하고 김일성, 김정일 부자 우상화 및 한미정부를 비난하는 내용의 방송을 실시하고 있다.

혁명가곡과 고전 명곡이 각각 40%를 점하고 있으며 북한의 혁명가곡이 전체의 55%를 차지한다.

④ 구국의소리방송은 1967년 3월 15일 소위 “남조선해방 민주민족연맹방송”으로 평양 순안에서 개설한데 이어 1970년 6월 1일 (150KW) “통일혁명당목소리방송”으로 개칭하여 통혁당의 대변 방송을 실시해 왔다.

한민전의 전신인 통일혁명당 대변 방송을 시작으로 중파 1채널, 단파 6채널로 16시간, FM방송은 2개의 주파수로 1일 8시간 방송하였다.

송신소는 황해도 해주 남산에 위치하며, 1985년 7월 27일 통일혁명당목소리방송을 구국의소리방송으로 개칭하였고, 1985년 8월 10일 7개의 주파수 중 1개를 예고 없이 중단조치 하는 한편 8월 25일 한민전 결성 25주년을 기해 한민전방송으로 환원 조치하였다. 남한 내 반체제세력에게 북한의 이데올로기, 이른바 주체사상을 전달하는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으며, 남한 내 주사파 형성의 배경요인으로 작용하였다.⁹³⁾

한민전방송은 철저히 북한의 대남전략·전술적 지도하에 매년 초 신년메시지를 통해 당해연도 투쟁지침을 하달하여 왔다. 한국에 대한 보도내용을 왜곡·날조하여 비언비어를 유포하고 지하당 활동에 대한 방송

93) 「조선일보」, 1989. 6. 27.

을 지시하고 있으며, 한국 내에서 방송되는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한국 출신 납북자들을 이용하여 방송하는 한편 황해남도 해주에 송신소를 두고 통일전선부 산하 칠보산 연락소(평양시 흥부동 소재)가 방송을 관장하고 있다.

북한은 2003년 8월 1일 구국의소리방송을 일방적으로 중지한데 이어 2004년부터는 인터넷 홈페이지 구국전선을 개설하고, 2005년 3월 23일에는 이를 반제민족민주전선으로 개칭하여 신년메시지, 시국선언, 방송 및 운동 강좌 등으로 한국변혁운동의 투쟁방향과 투쟁지침을 하달하고 있다.

반제민족민주전선은 북한의 통일전선부 소속으로 소위 남한에서 자생적으로 조직된 공산지하조직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대남위장단체로서 국내에 2.16동지회, 태양회, 백두회 등 가공단체 및 가공인물들을 내세워 활동하고 있는 것처럼 날조하고 김부자 생일 등 기념일에 축하편지, 충성맹세 등을 보도하여 왔으며, 수시로 내외신 기자회견과 성명, 담화, 투쟁구호 등을 발표하여 한국 국민들의 반미, 반정부, 반보수투쟁 등을 선동하고 있다.

다. 유선방송

유선방송은 1961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현재 10개소의 지방유선 방송국⁹⁴⁾이 있다. 유선방송은 평양으로부터 각도·시·군까지 연결되어 공장, 기업소와 협동농장의 유선방송을 통해 각 가정에 스피커로 중앙방송이 중계된다.

북한은 유선방송을 통해 주민들에 대한 정치선전과 교양에 주력하고 있으며 80%의 가청율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4) 개성, 사리원, 해주, 남포, 신의주, 강계, 함흥, 청진, 혜산, 원산.

또한 방송을 제1~2방송(전파방송)과 제3방송(유선방송)으로 나누어 운용하고 있으며, 1975년 이후부터는 주민들에게 제3방송만을 청취할 수 있도록 다이얼을 고정시켜 놓았고 각 가정과 군부대는 중·소대 단위로 유선방송을 청취하고 있다.

북한의 라디오 방송국 현황과 특징을 도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4-2> 북한 라디오 방송국 현황과 특징

구분	조선중앙방송	평양방송	평양FM방송	구국의소리방송
성격	대내, 대남 백색방송	대남, 대외 백색선전	대남심리전 음악방송	대남전용, 흑색선전
위치	평양	평양	평양	해주
내용상 특징	○ 대내적 정치동원 - 김부자 우상화 - 대내적 적개심 고취 - 전투준비 독려 - 적화통일 사명감 고취	○ 전략적 선전 - 북한 성과 과장 - 공산주의 이론 교육 - 위장평화 공세	○ 청소년 대상 ○ 혁명가곡 ○ 고전명곡 ○ 민요가곡 ○ 문예물	○ 전술적 선동 - 한국보도 왜곡 날조 - 유언비어 유포 - 지하당 활동 방향 제시
운용상 특징	○ 한국기사 왜곡 주입 ○ 북한전역 획일화 ○ 김부자 우상화 고취	○ 신속성 결여 ○ 주체사상 전파 ○ 대남정치 해설	○ 평일 : 8시간 ○ 공휴일 : 24시 간	○ 보도의 신속성 ○ 사실에 기초를 둔 과장 왜곡

※ 출처 : 평화문제연구소, 『통일, 북한 핸드북』 (서울 : 평화문제연구소, 1997), 363~368면.

라. 조선중앙통신사

조선중앙통신사는 북한 유일의 통신사로 1946년 12월 5일 설립되었다. 당과 정부의 공식대변기관으로 내각 직속으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당의 지휘·통제를 받으면서 북한 주민들을 김일성, 김정일 부자에 충직한 주체형의 공산주의 혁명가로 육성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를 완성하는데 이바지 할 수 있는 정치사상교양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일간 조선중앙통신, 사진통신, 영문통신, 로동신문, 불문통신, 서문통신, 조선중앙연감을 비롯한 대내외선전사업에 필요한 출판물을 편집 발행하고 있으며, 러시아, 중국, 영어, 프랑스, 아랍, 한국어, 스페인어 등으로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유럽을 대상으로 11개의 주파수로 송신하는 등 국내외의 정보를 지도 총괄하는 북한 언론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⁹⁵⁾

2. 인쇄매체

가. 신문

북한의 신문은 당의 노선과 정책을 옹호 관철하는 위력한 사상적 무기이며 집단적 조직자, 선전자,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벗이며 대변자임을 자처함으로써 사회주의 공산주의건설의 물질적 사상적 요새를 점령하기 위한 대중동원 및 사상교양의 도구로 활용⁹⁶⁾하여 왔다.

북한에는 서방세계와 같은 신문은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편집활동이

95) 「북한연구소」, 『북한총람』, 앞의 책, 1167~1168면.

96) 위의 책, 1152면.

당 선전선동부의 통제 하에 김정일과 당, 체제수호를 위한 선전선동 무기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생활 정보 및 범죄, 도난사건, 체제비판, 광고 등의 기사는 전혀 없고 속보성과 진실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다.

중앙일간지로는 당·정권기관·사회단체들에서 발행하는 기관지(로동신문, 민주조선, 청년전위, 조선인민군)와 지방일간지(도 일보 9개, 평양·개성·남포신문), 특수지(건설·사회안전·교통·로동자·통일·교원·철도·농업신문) 등 30여종이 있다.

북한의 신문은 다음과 같은 특성⁹⁷⁾을 지니고 있다.

① 노동당 및 내각에 의해 장악되며, 주민을 조직·교육하여 공산주의 인간형으로 만들기 위한 강력한 수단으로 활용된다.

② 노동당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지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 아니다.

③ 당에 대한 전투적 충성이란 원칙에 입각하여 활동하며 당의 완전 통제 하에 있다.

④ 신문 활동은 객관성을 부인하고 공산주의혁명의 목적만을 추구한다.

⑤ 뉴스란 오직 사회주의 건설 과정에서 유용한 것만이 뉴스로서의 가치를 가질 뿐이다.

⑥ 뉴스의 속보성을 부정함으로써 신문으로서의 보도의 가치는 없으며 철저한 사전 제작 계획에 의하여 제작된다.

⑦ 따라서 뉴스의 전달이라는 본래의 사명은 찾을 볼 수 없고 선전·선동 및 교화의 기본사명을 갖고 있을 뿐이다.

97) 위의 책, 1153면.

대표적인 신문은 로동신문으로 1946년 9월 1일 창간되어 일일 150만 부가 발행된다. 로동신문은 총6면으로 연중무휴 발행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1~2면에 김일성, 김정일 부자 관련 기사나 사설, 각종행사, 담화문, 중대시책, 공산주의교양 및 당 선전, 인사 관련 사항을, 3면에는 대내 경제관련 뉴스(공장, 기업소 등 모범기사 및 사회상 조작)를, 4면에는 국내외 대표단의 활동 동향 및 문화관련 기사를, 5~6면에는 대남 관련 기사, 논평과 국제기사, 반제투쟁소식, 북한 자화자찬 등의 내용을 집중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나. 전단

북한은 전단이 다른 매개물에 비해 규모와 내용에 구애를 받지 않고 선전 효과 및 신뢰도가 높다는 장점⁹⁸⁾을 활용하여 지난기간 대대적으로 전단 살포를 통해 대남 심리전을 전개하여 왔다.

당 중앙위 통일전선부 산하 기관과 인민무력부 총정치국 적공국으로 2원화되어 있다. 통일전선부 산하 40호실은 대남 정치 선전선동물의 출판, 제작을 담당하고 있으며, 310호 연락소에서는 기구를 이용한 선전물의 운반 살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인민무력부 총정치국 적공부⁹⁹⁾에서는 별도의 출판물 선전 업무를 수

98) 첫째, 목표 대상 집단의 계층별, 주체층의 의도대로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으며 둘째, 전락·전술, 선무심리전 등 광범하게 활용 할 수 있다. 셋째, 자유롭게 소지 및 보관 할 수 있으며 넷째, 타인에게 보여줄 수도 있다. 다섯째, 취급이 간편하고 대량전파가 가능하며 여섯째, 목표대상자의 수준 및 의견에 적합하도록 고려하여 사용 할 수 있다. 일곱째, 사전에 많은 종류의 전단을 준비하여 상황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할 수 있다. 육군본부, 『심리전』(서울: 육군본부 야전교범 33-5, 1988), 130면.

99) 통칭 제563군부대(적군와해공작부)로 평시에는 통일전선부의 통제를 받아 국군병사와의 접촉 공작, 월북 및 납치공작, 전단 살포, 화성기방송 등의 임무를 수행하며 전시에는 점령지역 주민대책사업과 반혁명분자 색출, 한국의 역량타지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1998년 2월 3일 귀순한 변용관 상위(판문점 적공조 근무)는 판문점 대표부 정치부 공작과에도

행하며 통일전선부의 간접적 지도를 받아 전단을 인쇄하여 전방 군단의 기구중대에서 기구를 이용하여 전단을 살포¹⁰⁰⁾하여 왔다.

초기에는 흑색전단만 살포하여 오다가 1974년 5월 이후부터는 백색전단과 회색전단까지 다량으로 살포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김일성, 김정일 부자의 우상화, 위장평화, 월북종용에서 반정부, 반미, 특정인, 사회상 비방이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고 민족, 통일, 평등, 자유 등 인간의 본질적 욕구를 호소한 체제 불만 및 체제붕괴를 유도하는 선전선동이 주류를 이루었다.

1992년 북한이 실시한 대남심리전 전단작전은 총 1600만매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¹⁰¹⁾ 과거에는 휴전선과 수도권 일부지역에 극한 되었던 전단 살포능력이 크게 상향되어 한국의 전지역을 사정권에 두게 되었다.

1997년 지역별 전단 수거현황을 보면 서울, 경기지역 75%, 강원 21%, 한강이남 4%로 나타나 인구밀집지역에 중점적으로 대량살포 하였다.

합참(북한의 전단분석 1998.11)의 발표에 의하면 북한이 살포한 전단은 김일성 사망 이후 1995년에는 500만매, 1996년 270만매, 1997년에는 150만매로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2002년 월드컵을 계기로 1500만매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단의 주요 내용은 반미감정을 부추기거나 김정일 우상화 등 15종에 달하였으며, 이들 전단은 인민군 내 8개 기지와 3개소의 당 기지에서 제

2개의 대남 공작조를 운영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그에 의하면 북측 공작조가 한국군 경비 중대 소속 병사 40여명(1소대 6명, 2소대 20명, 3소대 6명, 4소대 10명)과 접촉하여 4명을 포섭하였다는 놀라운 사실을 밝혔다.

100) 1980년 이전까지는 고무풍선 및 기압식 살포가 주류를 이루었고, 1980년대 중반까지는 고무풍선, 애드벌룬, 연을 이용하였으며, 1985년 이후부터는 고무풍선 이용 시한장치, 도르레이용, 기구회수, 기구 부력에 의해 살포되어 왔다.

101) 「북한연구소」, 『대남심리전 분석자료』(서울 : 북한연구소, 1993), 1면.

작되어 살포한 것으로 국방부는 추정하였다.

북한은 연간 1억 6천 만장에 달하는 전단 및 선전책자들을 살포하여 왔으며, 6.15공동선언 이후 대폭 줄여오다가 2003년 8월 이후 전면 중단조치 하였다.

시기별로 북한이 살포한 전단 내용을 요약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960년대에는 한일회담 반대, 헌법 개정안, 국민투표 획책 등 정부 붕괴를 위한 선전에 치중하면서, 월부종용, 공산주의 및 김일성 찬양, 위장평화공세에 주력하였다.

1970년대에는 7.4남북공동성명에 편승하여 표면적으로는 평화공세를 강화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남침용 땅굴을 파고 남한 체제를 붕괴시키기 위한 선전선동에 치중하면서 반미, 반정부 투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1980년대에는 1979년 10.26사건을 집중적으로 비난하면서 한국 사회 내부의 분열을 조장하면서 비상계엄령 배격, 노사분규 조장, 연방제통일 방안, 미문화원 사건 등 반미, 자주, 민주화를 최대한 활용하였다.

1990년대에는 문민정부를 흠집 내 투쟁 분위기를 조성하고 각종 정치 공세와 함께 이념 혼란의 갈등, 부정부패, 체제붕괴를 유도하기 위한 선전선동을 강화하였다.

2000년 중반부터는 조총련을 통한 소포 및 전단 유입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다.

다. 잡지 · 서적 · 화보

북한은 잡지를 비롯한 서적, 화보 등 출판물들을 당 선전선동부의 철저한 통제와 검열 대남심리전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내각 직속의 출판총국 출판처 산하에는 5개의 검열부를 두고 있다. 검열 1부에서는 전단, 광고 및 번역물을, 검열 2부에서는 정치 분야의 출판물을, 검열 3부에서는 문예, 예술 분야의 출판물을, 검열 4부에서는 경제, 사회, 교육 분야의 출판물을, 검열 5부에서는 과학, 기술 분야의 출판물을 관장하며 각부에는 책임 검열원, 검열원, 교정원 등이 배치되어 있다.¹⁰²⁾

조선로동당 출판사를 비롯한 30여개 출판사에서 간행물, 단행본, 각종 선전 책자 등을 발행하고 있으며 김일성저작집, 주체사상총서, 장편소설, 시집 등을 남한 내 단체명¹⁰³⁾으로 위장하고 문답식 형식으로 간편하게 제작하여 전단과 함께 살포하여 왔다. 또한 해외친북단체를 활용하여 북한체제의 우월성을 과시하고 남한의 비참상 등을 날조하여 남한을 고립시키기 위한 심리전을 전개하였다.

국방부가 1998년 발표한 심리전 지침에 따르면 1995년 이후 서적은 계속 감소추세를 보이는 반면 화보는 1995년 5천 건에서 1997년에는 4만 3천 건으로 점차 증가세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3. 문예매체

문예매체를 통한 대남심리전은 문학 서적이거나 영화, 미술품 등을 고무 풍선과 기구 부력, 해외친북단체를 통해 국내에 유입 또는 복제 출판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선전선동 공세를 펼쳐 왔다.

북한의 출판물은 일간 29개, 격일간 2개, 주2회 발간 9개, 주간 2개, 반월간 2개, 격월간 3개, 계간 1개, 월간 22개 등 124종에 달하며 단행본은 200여종이 출간된다. 이중 50여종의 간행물을 대남 선전용으로 활

102) 「북한연구소」, 『북한총람』, 앞의 책, 1192면.

103) 한국학생총연맹, 구국반독재 행동대, 국군 애국동지에 등으로 위장하여 학생, 군인, 근로자, 종교인, 언론인 등 사회 각계각층에 한국의 정치정세와 사회혼란에 집중하여 왔다.

용하고 있다.¹⁰⁴⁾

① 대표적인 서적으로는 주체사상총서, 김일성저작집, 정치사전, 철학사전 등이며 1987년 출판자율화 조치 이후 중국과 일본 등으로 밀반입된 북한 원전이 무려 370여종에 달하며 최근에는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주요 내용은 공산주의 교양, 김일성, 김정일 부자 우상화, 남한의 비참상, 반미, 반한선전을 중점으로 한국을 고립시키며, 허위날조, 보도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② 북한 영화보기 운동 활성화를 기도하면서 연극, 음악, 가극, 무용, 교예, 영화 등을 소재로 한 비디오를 한국에 우회 투입하여 대학가를 중심으로 상영토록 유도하는 한편 미술의 한 형태인 걸개그림이나 김일성, 김정일 부자의 초상화를 대학가 등에 부착하도록 유도하여 왔다.

특히 조총련 및 반한단체, 비동맹 국가들을 이용하여 누구나 신뢰할 수 있도록 위장 및 왜곡된 내용을 제작하여 국내외에 홍보하고 있다. 이 밖에도 남과 간첩과 고정간첩, 반한 인사들을 이용하여 유언비어¹⁰⁵⁾를 유포시켜 정부와 국민간의 이간을 조장하여 정국혼란을 가증시키고 있다.

4. 특수매체

가. 대남확성기 방송

확성기는 일정한 음량을 증폭시킴으로써 다양한 청취자들에게 영향을

104) 「북한연구소」, 『북한총람』, 앞의 책, 1199면.

105) 유언비어는 심리전의 가장 오래된 무기로 문서상에 기록이 남기지 않은 채 전파속도가 신속하며 강력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미칠 수 있으며 따라서 냉전 상황하의 활동, 반게릴라 활동, 전시작전의 공격과 방어, 그리고 선무 활동에 있어서 기회를 이용하는 전술심리전에서 기본 무기로 사용되어 왔다.¹⁰⁶⁾

대남확성기방송¹⁰⁷⁾은 통일전선부의 지도 감독 하에 인민무력부 총정치국 적군와해공작부에서 담당하고 있다. 1990년대 중반까지 전방 106개소 160개 시설에서 가청거리 약 6Km, 확산범위 90도인 확성기로 1일 2-10회 반복적으로 10-11시간 대남 심리전방송을 실시하였다.

확성기는 조립형과 단일형의 2가지 종류가 있다. 조립형은 통상 공격용으로 사용하며, 단일형은 방어용으로 사용한다.

주요내용은 김일성, 김정일 부자 우상화, 북한체제 찬양, 한국정부 및 사회상 비난, 주한미군 철수, 연방제 통일, 국군장병 월북 유인 등을 소재로 단막극, 대담, 음악 등 다양한 소재로 구성하여 진행되었다.

따라서 확성기 방송은 적과 대치하고 있을 때에는 고정하기도 하지만 통상 각종 차량이나 탱크, 항공기 등에 장착하여 이동하면서 활동할 수 있어 다른 매개체보다 효과적이면서 기민하게 활용할 수 있다.

1967년 이전까지는 소형 스피커 1~2개형을 이용한 확성기방송을 실시하였고 1970년대 말까지는 이를 증설하여 10~30개형을 사용하였으며 1980년 이후에는 30~80개형 등 다양하게 사용하였다.¹⁰⁸⁾

그러나 북한의 확성기방송은 1990년대 말 이후 방송장비의 노후화와 전력난 등 내부 사정으로 인해 방송시간의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2004년 6월 3일 남북장성급회담에서 “선전활동 중지 및 선전수단 제거” 합의 이후 15일부터 잠정 중단하였다.

106) 육군본부, 『신리전실무참고』(서울 : 육군본부, 1973), 26면.

107) 전방사단 지역 내 2-3개소의 방송국이 설치되어 있고 유선으로 GP와 연결된 고성능 확성기를 통해 총정치국 및 군단 적공부의 통제 하에 라디오 방송 중계 및 녹음테이프(군단 적공부에서 현지 상황에 맞게 제작)를 이용하여 방송된다.

108) 육군본부, 『북괴군 심리전』(서울 : 육군본부, 1989) 참고.

나. 인터넷

북한은 인터넷 매체를 통해 대남심리전의 효과를 증폭시켜 나가고 있다. 1986년 인민군 총참모부 예하 자동화대학을 설립하고 해킹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왔는데 이에 대해 미 국방부는 북한의 해킹능력이 미 중앙정보국(CIA)수준이라고 평가¹⁰⁹⁾한바 있다.

1993년 호주와 시험적으로 인터넷을 연결하고 1995년에는 유엔개발계획(UNDP) 평양사무소에서 외부세계와 인터넷을 시작하였다.

1996년 12월 동경에서 평양으로 인터넷 사이트가 개설되고 1997년 1월에는 세계통신 기구에 가입하였다.

1997년 북한 체제를 지지, 찬양하는 인터넷 사이트(Pro-North Korean Internet Site)를 시작으로 2003년 4월 말 현재 친북한 인터넷 사이트는 일본, 미국, 중국, 스페인, 남아공 등 세계 각국에 20여개, 국내에서 운영되는 친북 사이트 98개, 이념 동아리 사이트 2,053개 등 2,168개 사이트가 북한의 선전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¹¹⁰⁾

주요 친북한 인터넷 사이트를 도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4-3> 주요 친북한 인터넷 사이트

사이트명	인터넷 주소	운영주체	개설지	주요 내용
구국전선	ndfsk.dyndns.org	한국민족민주전선	일본	• 대남비방선전, 한글 • 백두넷(주체일지) 연결
조선통	www.kcna.co.jp	조선통신사(조총)	일본	• 1997년 1월 10일 개설

109) 「연합뉴스」, 2003. 4. 18.

110) 「주간동아」, 2003. 4. 3.

신		련통신보도기관)		• 조선중앙통신 및 로동신문 기사 제공(한국어, 영어)
조선신 보	www.korea-np.co.jp	조선신보사(조선 련 통신기관지)	일본	• 1997년 2월 14일 개설 • 한국어, 일본어, 영어
모악산	www.moaksan.net		일본	• 김정일 21세기 세계전략 • 김일성 · 김정일 노작
주체사 상	www.cnet-ta.ne.jp/ juche/defaulte.htm	국제주체사상 연구소	일본	• 일, 영, 불, 스페인어
자주성	www.01.co.za/ default.html	주체사상연구소 호주협회	남아공	• 김일성 김정일 찬양 • 주체사상 연구
우리 민족끼 리	uriminzokkri.com	silibank	중국	• 사상과 이념선전(한글) • 신문잡지 게재, 동영상 등
통일학 연구소	www.onekorea.org	미주평화통일 연구소	미국	• 조국통일문제(한글) • 미국의 한반도 정책
KFA	korea-dpr.com	조선친선협회	스페인	• 스페인 친북단체 홈페이지 (영어 등 5개 구어)
조선 인포뱅 크	www.dprkorea.com	범태평양 조선민족 경제개발 촉진협회	중국	• 1999년 10월 13일 개설 •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민족통 신	www.minjok.com	민족통신 운영위원회	미국	• 한글, 영어 판 • 민족논단, 민족성명서
North Korean Tours	www. koryogroup.com	고려여행사	중국	• 북한관광 안내 및 선전(영어)
평양 TIMES	www. times.dprkorea.com	범태평양 조선민족 경제개발촉진 협회	일본	• 2000년 7월 8일 개설 • 북한동향 선전(영어)
조선영 화	tangun.co.jp/movie		일본	• 북한의 각종 영화

시리즈				
범민련	www.bommin.org	조국통일범민족 연합	일본	• 서울, 평양, 도쿄

2004년 8월 경찰청이 한나라당 박찬숙의원에게 제출한 해외개설 친북한 인터넷사이트는 40개¹¹¹⁾로 집계 되었고 이후 9월 8일 국회 행정자치위에서 최기문 경찰청장은 현재 43개의 친북사이트가 활동 중임을 밝혔다.¹¹²⁾

“조선인포뱅크” 사이트에서는 특집, 뉴스, 안내, 공지사항, 영화소개 등 북한의 정치, 경제, 문화, 지리, 역사, 관광 등 다양한 내용을 소개¹¹³⁾ 선전하고 있으며, “우리민족끼리” 사이트에서도 선군일지, 백두산 3대장군, 새소식, 주체사상, 신문, 도서, 잡지, 영화, 음악 등의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¹¹⁴⁾

더구나 국내 친북사이트인 전농¹¹⁵⁾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김일성, 김정일 혁명투쟁업적과 반미자주화 투쟁, 항일빨찌산참가자들의 회상기, 우리식대로살아나가자 등 북한의 선전선동 내용을, 남북공동실천연대¹¹⁶⁾ 홈페이지 자료실에는 김일성, 김정일 노작, 주체의 정치경제학, 영광스러운 선군혁명의 길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통일뉴스¹¹⁷⁾ 홈페이지에

111) 주요 개설지는 미국 11개(사이트명 : 백두산, 자주평화민족대단결, 재미동포 전국연합회, 민족통신, 통일학연구소, 백두넷, 조선우호협회, 조선의 노래, 현장의 소리, 조국통일21, 선군정치연구소조), 일본 17개(애국의 길, 범민련 공동사무국, 조선신보, 민족자주대학, 구국전선, 조선통신,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 주체사상, 코리아북센터, 조국통일을 논하는 홈페이지, 조선관광, 조국평화통일협회,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 겨레사랑터, 코리아네트워크, 조선음악, one-corea), 중국 10개(조선인포뱅크, 조선북권, 고려바둑, 통일아리랑, 우리민족끼리, 실리은행, 주폐사이트, 조선우표, 조선출판물,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싱가포르 1개(평양정보센터), 독일 1개(내나라)로 나타났다.

112) 「동아일보」, 2004. 9. 9.

113) <http://www.dprkorea.com>.2008.5.17.

114) <http://www.uriminzokkiri.com>.2008.4.18.

115) <http://ijunnong.net>.2008.5.19.

116) <http://www.615.or.kr>.2008.5.17.

는 김일성 자서전 세기와 더불어,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 북한정권의 정통성, 현정부의 대북 대외정책을 비방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북한은 인터넷을 통한 안보의식 무력화에 주력하고 있으며, 인터넷 통신상에 주체사상총서 등을 게재하여 하루 100페이지 읽기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김정일을 통일 대통령으로 부각시키고 김정일 우상화, 국가보안법 철폐, 주한미군 철수, 민족공조를 선전선동에 주력하면서 ‘핵무기를 동족에게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김정일 지도자 덕분에 남북정상회담이 성공했다.’ ‘한민족 7천만의 안전을 북한이 보장한다.’ 라는 논리를 전파시키고 있다.

다. 대면 및 시각 매개물

대면 심리전은 군단 적공부의 통제 하에 DMZ상에서 적공조¹¹⁸⁾에 의해 수행되고 있다.

대면접촉을 통한 북한의 심리전 활동은 주로 군사분계선에서 아군을 포섭하거나 군사기밀을 탐지하고 접촉에서 주도권 장악으로 전방 병사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도발행위를 하도록 유인하기 위한 심리전 활동으로서¹¹⁹⁾ 전문적으로 훈련된 적공요원의 접촉시도에 호응할 수 있는 여건 조성, 포섭 후 정치교양 실시 및 임무부여, 월북 종용 등 3단계로 나누어 실시하여 왔다.

시각 매개물로는 DMZ 북방지역의 각종 선전 구호판과 예술인들의 위문 공연 등을 들 수 있다. 전연지역에 설치한 북한의 선전 구호판은 다양한 형태의 입간판, 돌글씨, 전구글씨로 북한의 사회주의 및 김일성, 김정일

117) <http://www.tongilnews.com.2008.5.17>.

118) 적공조 요원의 선발기준은 정치군관으로 당성이 강하고 경찰부대 경력이 있는자, 공산주의 이론 및 군부대 실정이 밝은 신체건강한자 중에서 선발하여 정치군관학교에서 3개월간의 심리전 원리, 대적공작, 적군학, 정치학을 수료한 후 배치하고 있다.

119) 육군본부, 『심리전(적전술편람) 제1집』(서울 : 육군본부, 1976), 56면.

부자 이상화, 한미비난, 월북종용의 내용을 담고 있다.

체제 선전 및 이상화 구호로는 콘크리트장벽 철거, 두개의 조선 반대, 미군철수, 핵무기 철폐, 주체조선, 지상락원, 주체사상만세, 믿음정치, 사랑정치 등이 있다.

북한이 전개한 선전 구호판 변천과정을 요약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4-4〉 선전 구호판 변천 과정

구 분	내 용
1980년 이전	· 대내 이상화선전 및 작업독려 목적으로 설치 운용
1980~1984	· 철책추진 설치(대남심리전 목적)
1985~1986	· 매개물 증가 설치(목재 입간판) · 최초 야간 전구 글씨 매개물 설치
1987~현재	· 다양한 형태와 수적 증가 (입간판, 돌 글씨, 전구 글씨)

※ 출처 : 육군본부, 『북괴군 심리전』(서울 : 육군본부, 1989) 참고.

1997년 현재 시각매개물은 입간판 321개, 전구전광판 8개, 돌 글씨 20개로 집계 되었다. 또한 김일성, 김정일 부자의 생일 및 인민군 창건 기념일 당 및 정권 창건일을 기념하여 대대적인 예술단이 최전방 GP 등을 방문하여 선물전달, 위문공연, 사진촬영 등을 실시하고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북한의 대남심리전은 자국의 강점을 과시하여 정신적 의지를 고양시킴과 동시에 한국의 약점 등을 자극하여 정신적 의지를 패배시키기 위해 공산주의 및 김일성, 김정일 부자를 찬양선동하면서 위장 평화통일 선전, 반미자주화와 반정부투쟁 선전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여 왔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남조선혁명이라는 목표 하에 한국의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들을 의식화하기 위해 주체사상으로 무장시키고 계급 및 민족의식을 함양시키기 위한 대남심리전을 강력하게 추진하였다. 북한은 중앙방송을 통해 “주체사상을 연구 학습하고 따라 배우는 것은 시대적 흐름으로 되고 있고 보편화되어 남조선 청년학생들과 광범한 대중 속에 널리 보급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애국 청년 학생들도 주체사상의 빛받아래 자주·민족·통일의 앞길을 개척해 나가야 한다”고 선동하여 왔다.¹²⁰⁾ 또한 국군 및 남한 사회 실상을 왜곡 날조하여 국론 분열을 조장하고 국군의 복무환경 등을 왜곡 비방하면서 복무염증 유발 및 사기저하를 획책하였다.

② 김일성, 김정일의 혁명투쟁 업적과 영도력 등을 과장 날조하여 김일성을 항일무장투쟁의 민족적 영웅으로 부각시키고 민족의 영도자로 받들어 나갈 것을 선전하여 왔다. 김일성 사후에는 “오늘 우리 혁명의 진두에는 주체혁명의 위업에 대한 계승자이며 우리 당과 인민의 탁월한 영도자이시며 우리 혁명 세력의 최고 사령관 이신 김정일 동지께서 계신다”고 강조하면서 김일성, 김정일 부자의 세습 체제를 합리화하고 김정일을 불세출의 영도자, 위대한 전략가, 통일 대통령 등으로 부각시키는 등 김정일을 중심으로 적화통일을 달성해 나갈 것을 선전하고 있다. 더구나 동구사회주의권의 몰락 이후 김정일의 영도력을 대대적으로 부각시키면서 내부적으로는 김정일에 대한 충성심을 부각시켜 체제 내부의 결

120) 「통일원」, 『월간 북한동향』(서울 : 통일원연구소, 1994.10), 120면.

속을 도모해 나가는 한편 다른 한편으로는 남한 정부와 특정인을 모략 비방하면서 남한 사회의 혼란 조장, 대남 적화통일의 기반구축을 획책하여 왔다.

③ 고려연방제통일방안, 민족대단결 10대 강령,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 북미평화협정 체결 등을 대대적으로 선전선동 하는 대남심리전을 전개하였다. 북한은 남북한이 사상과 제도를 초월하여 남북한 동수의 대표와 해외 동포로 구성되는 최고민족연방회의를 구성하고 민주주의 이념, 민족 경제, 민족연합군을 창설해 나갈 것을 주장하면서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국가보안법 폐지, 공산주의 활동 합법화, 주한미군 철수를 내세우고, 고려연방제통일방안이 가장 합리적이며 공명정대한 통일방안임을 강조하면서 한국 정부의 정통적 권위를 연방제 안으로 수렴시킴으로써 정부와 국민간의 불신을 조장하고 있다.

④ 계급투쟁 및 반미, 반정부 투쟁의식을 고취하는 대남심리전을 전개하여 왔다. 북한은 시종일관 “미제의 남조선강점과 그의 식민지 통치는 남조선인민들이 격고 있는 모든 불행과 고통의 근원이며 우리 조국의 통일을 가로막고 있는 기본 장애이다. 남조선에서 미 제국주의 침략세력을 몰아내며 그의 식민지통치를 분쇄하지 않고는 남조선인민들이 식민지노예의 처지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우리나라의 통일도 실현할 수 없으며,”¹²¹⁾ “오늘 남조선인민에게 있어서 미제의 식민지통치와 그 앞잡이들의 파쇼통치를 뒤집어엎고 짓밟힌 남조선인민들의 자주성을 되찾는 이상 영예롭고도 중요한 과업은 없으며 전체 조선인민에게 있어서 미제를 내쫓고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적자주권을 확립하는 것보다 더 간절하고도 숭고한 혁명과업은 없다”¹²²⁾고 강변하면서 “남조선 백만 청년학생들이 이들에게 반드시 준엄한 철퇴를 내릴 것과 그 날을 위해 정권 타도 투

121) 김일성, 『김일성저작선집 4권』(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68), 389면.

122) 허중호, 앞의 책, 3면.

쟁”을 전개해 나갈 것을 선동하였다. 더구나 “남조선 00정권의 계급적 기반은 력대로 침략자의 주구로 복무하여온 지주, 매관 자본가들과 반동 관료배들이며 따라서 남조선 괴뢰정권은 이놈들을 위하여 복무하고 있다. 남조선 00정권의 력대통치자들은 그 어느 놈을 물론하고 미제와 일본군국주의자들이 길러낸 주구들이며 자기 상전에게 나라와 민족을 팔아 먹는 매국역적들이다”¹²³⁾고 비난하는 등 한국의 반공체제를 약화시키기 위해 특정인을 비난하고 반정부 선전 및 군부를 비방하는 선전선동을 강력하게 추진하여 왔다. 특히 역대 정권이 미제를 끌어들이어 조선반도를 전쟁의 참화로 몰아가고 쌀 시장 개방으로 농촌을 황폐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반미, 반정부투쟁에 쫓겨난 애국적 청년학생들과 노동자, 농민들을 총칼로 탄압하여 왔다고 주장하면서 민족의 자주권을 되찾고 미제와 파쇼정권을 몰아내기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려나갈 것을 촉구하는 한편 핵 문제와 관련한 일련의 대응조치와 한미 군사연습을 북침책동으로 매도하고 한미주둔군지위협정 및 국가보안법 폐지, 주한미군 철수 투쟁을 강력하고 추진하고 있다.

123) 「사회과학출판사」, 『정치사전』(평양 : 사회과학출판사, 1973), 209면.

제2절 대남심리전의 시기별 특징과 전개양상

지난 반세기 동안 북한은 한반도의 공산화를 궁극적 목표로 설정하고 대남심리전을 상황에 따라 신축성 있게 추진하여 왔다.

북한의 대남심리전은 대남 정치선전선동과 대남 전략 전술적 목적과 목표, 대남 혁명임무 및 과업의 요구, 한국사회의 변천과 변화뿐만 아니라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정세의 변화 등에 따라 시기별로 일련의 특징을 나타내었다.¹²⁴⁾

대남심리전의 변천 과정을 크게 6단계(제1단계 : 무력통일 추진기, 제2단계 : 위장평화공세기, 제3단계 : 폭력혁명시도기, 제4단계 : 대화와 대결 병행시기, 제5단계 : 반정부 연합전선 형성기, 제6단계 : 남북화해와 평화공존 모색기)로 나누어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1. 제1단계 : 무력통일 추진기(1945~1953)

해방 이후 한국전쟁 이전까지는 북한에 인민정권을 수립하고 남한에 인민정권 수립을 유도하면서 각종 소요와 폭동을 유도하기 위해 비방, 중상모략 선전과 무력남침 정당화에 중점을 두었다.

김일성은 1945년 12월 “남조선 해방과 통일을 조속히 실현하기 위해서는 북반부 인민들이 혁명적 대사변을 주동적으로 맞이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북한에 인민정권을 수립하고 소위 남조선 해방을 위한 무력남침준비에 주력하면서 남한에도 북한과 같은 인민정권 수립을 위한 선전공세를 전개하고 한국내의 남로당과 좌익세력을 총동하여 소요와 폭동을 일으키는 한편, 무장계털라 대량 남파, 남로당 세력과 배합한 각종 테러, 폭동, 파괴, 암해책동을 간행하여 한국 사회를 교란

124) 김기도, 『정치선전과 심리전략』(서울 : 나남출판사, 1989), 246-277면)

하고 마비시키려는 책동을 획책하여 왔다.

당시 소련(1947~1948년)은 미소 양군이 철수하고 조선 문제 해결을 조선인에게 맡길 것을 역설하면서 자주적 해결을 주장¹²⁵⁾하고 나섰으며 김일성은 대한민국 정부를 타도하고 한반도의 적화통일을 이룩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무력통일 만이 가장 빠른 통일의 지름길이라는 인식에 도달하였다.

한국전쟁시기에는 기습남침으로 일시적이거나 한국의 많은 지역을 강점(남한 전지역의 90%이상과 총인구의 92%)하고 온갖 살인 만행과 공산화시책을 강구하였던 시기로 정치 선전선동은 주로 백색선전과 공개선전 위주로 전개되었고 게릴라부대와 지하조직들의 비합법선전도 병행하여 3단계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제1단계는 무력침공 단계로서 남침을 정당화, 합리화하고 북한군의 사기를 부추기면서, 점령지역에서 인민군을 지원하기 위한 대대적인 의용군 강제 모집, 노동자, 농민들에게 폭동과 파괴, 교란을 부추기는 선동을 강화하는 한편 전쟁승리와 남한사회의 공산화 실현을 위한 각종 선전선동을 진행하였다. 특히 “우리의 적은 남한주민이 아니라 이승만과 그 일당”이라며 일면 공포감을 해소시키면서 남조선 해방군으로서 선무공작을 실시하였다.¹²⁶⁾

제2단계는 북한군이 패주하는 시기로서 연합군의 진격을 지연시키고 북한군의 퇴로를 보장하면서 제2전선형성 및 연합군에게 강력하게 저항

125) 임봉춘, “북한의 대남심리전에 대한 효과분석”,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1992), 28면.

126) 박갑수, “북한의 대남심리전 내용 및 전개양상에 관한 연구”(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1987), 26면.

하는 심리전을 전개하였다.

북한은 주력군의 후퇴를 보장하기 위해 일부 부대들이 남아 제2전선을 형성하고 진격하는 한국군과 연합군에게 저항하는 투쟁을 독려하는 선전 선동, 남아있는 남로당원들에게 남한에서 게릴라 투쟁을 비롯한 각종 투쟁을 전개하여 연합군에게 저항하여 싸우도록 고무 충동하면서 한국군과 미군을 중상 모략하는 반미 반한 선전선동을 전개하였다.

제3단계는 3·8선상에서 전선이 고착화된 시기로서 강원도와 경상북도, 전라도를 중심으로 게릴라 부대와 남로당 조직 및 당원들의 저항 의식을 고무 충동하는 선전선동, 한미에 반대하고, 한·미군을 비방 중상하는 모략선전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였다.¹²⁷⁾

이 시기 북한은 인민정권을 수립하고 친일파 및 민족반역자 숙청,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지지, 남한 단독정부 수립반대, 남북협상회의 개최, 남북통일 최고 입법 설치 등 한반도의 공산화를 위한 기만적인 위장평화 정치공세를 전개하였고, 다른 한편으로는 남로당을 비롯한 지하조직들을 중심으로 폭동과 파업, 사회혼란을 조성하고 무력남침을 정당화시키면서 북한군의 사기진작, 국군과 미군 비방, 대대적인 의용군 모집, 게릴라 부대와 남로당의 저항투쟁 고무 추동 등 백색선전과 합법·비합법선전을 병행하여 진행하는 특징¹²⁸⁾을 보였으며, 방송매체를 통한 정치선전선동과 북한이 발행한 신문, 잡지, 전단 등 출판물들을 한국에 대대적으로 유입시키는 방식을 구사하였다.

127) 자유아카데미, 『북한과 공산전략』 (서울 : 자유아카데미, 1976), 198면.

128) 「정신문화연구원」, 『북한의 실상』 (서울 : 정신문화연구원, 1986), 277면.

2. 제2단계 : 위장평화공세기(1954~1960)

정전협정체결 이후 북한은 정전이라는 시간적 계기를 최대한 활용하여 3개년 계획 및 제1차 5개년 경제계획을 수립하고 전후복구건설과 정치적 안정에 우선순위를 부여하면서 재남침 준비에 박차를 가하여 왔다.

또한 한국전쟁으로 실추된 이미지를 개선하고 한국을 와해시키기 위한 위장평화공세를 강력하게 추진하면서 한국전쟁의 책임을 한미에 전가시키고 남북한 정통성 경쟁에서 우위 확보, 군중 의식화 등 북한의 지지기반 구축에 주력하는 한편 다른 한편으로는 1954년 10월 남북정치협상안, 1955년 3월 남북 상호감군 및 불가침협정체결, 1956년 4월 유관국회의를 제의하는 등 대남평화공세를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왔다.

북한은 당면 목표를 전국적 범위에서 반제반봉건 민주주의 혁명을 수행하는데 있다고 규정하고 이에 따른 혁명의 임무와 과업을 남한 내에서 미군 축출, 지주, 예속자본가 청산, 민주정권 수립, 민주개혁실시, 민주주의 제도 수립을 내세우고 통일대학과 송도정치경제대학을 신설하여 대남공작원을 대대적으로 양성하여 남파시키는 등 지하당 재건 공작을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이 시기 북한은 남북총선거 및 다방면적인 남북교류 실시, 모든 외국군대 철수, 한국전쟁의 책임을 한미에 전가시키면서 위장평화공세를 대대적으로 전개하면서 한국 내부의 교란을 위한 모략 선전공세, 남북한 간의 정통성 경쟁에서 우위 확보를 위한 지지기반 구축, 혁명적 대중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선전공세를 강력하게 추진하는 특징¹²⁹⁾을 보였다.

대남 선전선동 방식은 1950년대 중반까지는 잔존하는 지하세력과 게릴

129) 정윤무, 『현대정치 심리전』 (서울 : 박영사, 1989), 59~60면.

라에 의한 비합법 선전과 남파공작원에 의한 북한 출판물의 유입 배포 등으로 진행되었고 1950년대 후반부터는 선전매체에 의한 대남 선전, 주로 방송에 의한 선전에 중점을 두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3. 제3단계 : 폭력혁명시도기(1961 ~ 1970)

1960년 4.19의거를 계기로 북한의 대남심리전은 통일에 대한 적극적인 정치공세와 무력도발, 재남침을 위한 폭력혁명선전에 치중하였다.

북한은 이승만 정권에 항거한 청년학생들이 남북대화와 협상문제까지 들고 나오는 등 평화통일에 대한 염원이 가열되자 북한이 이에 호응하는 갖가지 평화통일 방안을 비롯한 남북교류 협상문제를 연속적으로 제기하는 등 통일문제에 대한 정치선전선동¹³⁰⁾을 강화하면서 한일회담 반대, 헌법 개정, 국민투표 등을 앞세워 정권 붕괴를 획책하여 왔다.

1961년 군사정권이 들어서고 강력한 반공정책을 추구하게 되자 군사정권을 독재정권으로 매도하고 중상모략과 대남비방선전을 강화하는 한편 다른 한편으로는 특수전 부대를 대폭으로 증강시켜 남한에 무장공비를 대대적으로 침투시켰다. 또한 한국 내에 침투하여 활동하였던 지하당조직 간부들을 복송하여 재교육하는 등 남한 사회 혼란 및 지하당 구축에 주력하면서 독자적인 전쟁능력을 갖추기 위한 전쟁준비에 박차를 가하였다.¹³¹⁾

북한은 1962년 12월 당 4기 5차 전원회의에서 전군간부화, 전국토의 요새화, 전인민무장화, 전군현대화를 내용으로 한 4대 군사노선을 제시하고, 1964년 2월에는 당 4기 8차 전원회의에서 3대혁명역량 강화 방침

130) 안기부, 『북한의 선전선동 체계』 (서울 : 안기부, 1988), 202면.

131) 북한은 1961년 7월 중국 및 소련과의 「우호 협조 및 상호원조에 관한 조약」이라는 군사동맹조약을 체결하고 1961년 9월 당 4차 대회에서 남한혁명의 성격을 “민족해방 민주주의혁명”으로 규정하고 남한 내 독자적인 혁명정당 건설과업을 제기했다.

을 제시하였다. 김일성은 “남조선혁명은 미 제국주의 침략자들을 반대하는 민족해방혁명인 동시에 미제의 앞잡이들인 지주, 매관자본가, 반동관료배들과 그들의 과소통치를 반대하는 인민민주주의혁명입니다...남조선혁명가들과 인민들은 정치투쟁과 경제투쟁, 합법 및 반합법 투쟁과 비합법투쟁, 폭력투쟁과 비폭력투쟁, 큰 규모의 투쟁과 작은 규모의 투쟁과 같은 여러 가지 형태와 투쟁방법을 옹계 결합하여 혁명운동을 적극 밀고나가야 할 것”¹³²⁾을 촉구하였다. 1960년대 하반기부터는 특수부대를 대폭 증강하였고, 1968년 1월 21일 무장공비를 침투시켜 청와대 기습사건, 프예블로호 납치사건, 울진·삼척 무장공비사건, 열차 폭파 사건 등을 자행하는 등 대남공작¹³³⁾을 강화시켜 왔다.

이 시기 북한은 4.19의거를 지지성원 하고 혁신정당 활동 고무 선전, 주한미군 철수, 군사정권 비난, 지하당건설에 박차를 가하면서 재남침의 여건 조성을 위한 무장도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반미구국통일전선 형성, 조총련을 통한 대남 정치선전공세를 강화시키는 특징을 보였다.¹³⁴⁾

주요 선전선동 방식으로는 유선방송체계를 확립하고 중앙방송과 평양방송 외에 흑색방송인 남조선해방 민주민족연맹방송, 전방의 확장기 방송을 병행하여 추진하는 선전체계의 다원화를 추진하였다. 또한 북한에서 발행한 책자 등 간행물들을 남파간첩, 조총련 등을 통해 대대적으로 한국에 살포하는 정치 선전선동과 무장공비를 침투시켜 구두선동과 선전책자 및 선전물 살포 등의 정치 선전선동¹³⁵⁾을 전개한 것으로 평가된다.

132) 김일성, 『김일성저작선집 (5)』 (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68), 479~487면.

133) 대표적인 지하당 공작사건은 통일혁명당 사건을 들 수 있다. 북한은 1964년 초 전남 무안 입자도출신 간첩 김송무를 남파시켜 최영도, 김종태, 이문규, 정태복 등을 포섭, 월북시켜 재교육 후 남파하였으며, 이들을 중심으로 통일혁명당을 조직하고 당 기관지로 청맥, 혁명전선을 발행하고 조직 확대 및 정권 붕괴를 꾀하였으나, 1968년 7월 적발되어 소탕되었다.

134) 李啓熙, “북한의 사상정책과 정치교육”, 『통일문제연구』 통권 제1호(서울 : 통일문제연구원, 1989), 240~249면.

135) 「국정원」, 『북한의 선전선동체계』 (서울 : 국정원, 1988), 205면.

4. 제4단계 : 대화와 대결 병행시기(1971~1980)

북한은 1960년대 재남침 준비를 완료하고 미소의 데탕트에 의한 국제 정세의 급변과 한국 내의 반체제, 반정부운동 등 대내외적인 여건을 감안하여 북한을 국제적 고립에서 탈피하고 한국을 고립시키기 위한 전술적 방편으로 남북대화를 추구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남침용 땅굴작전을 착수하는 양면성을 보였다.

특히 1969년 11월 닉슨 대통령의 ‘독트린’에 의한 주한미군의 점진적 철수 방안이 제기되고 미중 화해분위기 조성, 미소간의 데탕트는 북한으로 하여금 위장평화 정치공세의 전술적 전환을 가져오게 하였으며 남북한의 대화분위기를 조성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¹³⁶⁾

북한은 7.4남북공동성명과 남북대화 진행기간에는 방송, 전단 등 대남 비방, 중상, 선전선동을 일시 중단하고 통일문제를 중점으로 정치선전 공세를 확대해 나가는 등 조총련을 이용한 대남 정치선전 공세에 총력을 투쟁을 경주하면서 적화통일과 폭력혁명 수행의 유리한 여건을 성숙시켜 나감과 동시에 전략적 여건 조성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러나 1972년 한국에서의 유신헌법 채택 및 반공체제 강화, 1973년 6.23 평화통일 외교정책 발표는 대화를 통해 혁명여건을 조성하겠다는 북한의 전술에 커다란 타격으로 작용하게 되었으며, 1973년 8월 28일 김대중 사건을 구실로 한국정부를 군사과소정권, 분열주의자로 비방 중상하면서 한국 국민들이 반정부투쟁에 총궐기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더구나 북한은 1976년 8.18 도끼만행사건을 도발하고도 이에 대한 책임을 미국에 전가시켰으며 1979년 10.26사건을 계기로 남한의 사회혼란을 가증시키고 12.12사태에 대한 맹비난과 함께 대남 방송을 통해 노사

136) 「통일연구원」, 『북한의 대남혁명전술』(서울 : 통일연구원, 1993), 153면.

분규를 조장하고 광주항쟁의 전국적 확산을 부추겨 왔다.

이 시기 북한의 대남 선전선동은 북한의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과 주체사상 정당화, 김일성 우상화를 대대적으로 선전하면서 한국정부를 군사파쇼독재로 규정하고 미주, 구라파 등 해외 반한교포세력을 결집시키는 한편 흑색방송인 통일혁명당 목소리방송의 출력을 30배 증폭시킴과 동시에 방송시간을 30시간 이상으로 확대하였다.

또한 미국과의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하고 10.26사태와 관련한 모략선전, 위장평화 정치선전공세를 강화하면서 휴전선 일대의 대남 확성기 출력 증폭, 방송 초소 증설, 전단 및 선전물 살포 등 모든 대남심리전 매체의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한국사회의 혼란과 분열을 조장하는 대대적인 반미, 반정부 선전선동 공세를 전개한 것으로 평가된다.

5. 제5단계 : 반정부 연합선전 형성기(1981 ~ 1993)

북한은 한국에서 새로운 군사정부가 출범하고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계기로 반미, 반정부 투쟁이 고조되자 대남 강경노선을 추구¹³⁷⁾하였다.

북한은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은 북과 남의 상반되는 두 체도를 그대로 두고 어느 한쪽의 이익을 침해함이 없이 서로 싸우지 않으면서도 통일은 통일대로 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공정한 민족공동의 통일방도¹³⁸⁾라고 주장하면서 김일성, 김정일 부자 우상화와 족벌세습체제 확립의 정통성 및 당위성을 합리화하기 위한 정치선전을 강화하고 제5공화국에 대한 허위날조, 비방 중상, 인신공격을 본격화하였다.

또한 남한사회 혼란을 조장하기 위해 위장평화공세를 추진하면서 반미

137) 통일원, 『북한개요』 (서울 : 통일원, 1995), 518면.

138) 「로동신문」, 1991. 5. 12.

자주화 구호를 새롭게 전면에 내세우고 T/S훈련 비난, 반미투쟁의식 고취, 반미, 반정부 투쟁과 민주화 투쟁, 통일 투쟁을 결부시키는 정치 선전선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버마 아웅산 묘지 테러만행을 저지르고도 한국에 책임을 전가시켰다.

더구나 남북대화 문제를 왜곡 비방하면서 한국 내에서 개최하는 국제회의 및 86년 아시안게임, 88서울올림픽을 방해하기 위한 모략선전을 자행하는 등 각계각층의 반체제 인사들의 방북을 유도하여 한국 내 혁명기지 구축을 꾀하고 남북 국회회담, 고위급회담, 적십자회담, 체육회담, 종교교류 등 다방면적인 대화를 제기하여 왔다.

특히 민주화 운동에 편승한 한국 내 지도층 인사들에게 북한에 대한 대적관을 희석시키고 한국 정부가 마치 통일에 대한 관심조차 없으며 북한만이 통일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처럼 위장평화공세를 실시하여 한국 내의 사회혼란을 조성시킬 목적으로 반정부 연합선전을 형성하기 위한 대남심리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왔다.

동구사회주의권의 몰락 이후 체제위기에 직면한 북한은 우리식 사회주의체제 고수 및 내부결속을 강화하면서 주민들의 사상적 동요를 방지하고 개방 및 자유사상 차단 등 김정일의 영도력을 부각시키는 선전을 강화하는 한편 1989년 1월 1일 평양 FM방송을 신설하여 대남선전에 이용하는 등 우편물을 이용한 편지, T셔츠, 포스터, 그림 유인물까지 대대적으로 유포하였다.

1992년 2월 29일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남북합의서” 발효를 전후한 시점에서 북한의 대남심리전은 오히려 대남 비방 방송의 빈도가 2월 초순 1일 평균 10회에 비해 중순에는 17회 3월 초에는 16회로 오히려 증가하였으며 대남 보도는 한결같이 정치, 경제, 사회현상들을 부정적 시각에서 취급하는 내용이 주류를 이루었다.

이시기 대남 선전선동은 모든 심리전 매체를 총동원하여 한국의 민주화운동에 편승한 학생, 노동자, 농민을 중심으로 반미, 반정부 투쟁의식을 함양시켜 반정부 연합전선을 형성에 주력하였다.

또한 북한의 사회주의 제도와 김일성, 김정일 부자 세습의 당위성을 피력하면서 남북대화 문제 왜곡 비방, 허위날조 및 인신공격을 자행하는 한편 한국사회의 불안을 조장하면서 해외공작거점을 발판으로 한 유학생 및 저명인사들의 방북을 유도하는 등 상층부 통일전선전술을 구사하는 특징을 보였다.

6. 제6단계 : 남북화해와 평화공존 모색기(1994~현재)

동구사회주의권의 붕괴와 김일성의 사망, 자연재해, 핵문제 등 국내외적 어려움에 봉착한 북한은 우리식 사회주의 체제의 우월성과 김정일의 영도력 등을 부각시키면서 주민들의 사상적 동요를 막고 체제결속에 박차를 가하면서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철폐, 남한 정부와 국민이간, 위장평화공세 강화, 정전협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북미평화협정 체결 등 과거와 변함없는 대남 선전선동 공세를 취하여 왔다.

1990년대 중반 북한이 전개한 대남 확성기 방송의 주제별 현황을 분석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표 4-5〉 대남 확성기 방송 주제별 현황

구분	계	대남비방(46.6%)					북한선전(53.4%)		
		특정인	반정부	반미	반군	사회상	우상화	자찬	위장 평화
계	3577	168	576	301	364	259	726	740	443

1994	1179	63	225	120	150	59	95	281	186
1995	1201	12	242	92	110	114	227	283	121
1996	1197	93	109	89	104	86	404	176	136

※ 출처 : 합참, 『대북심리전 작전방향』 (1994~1996) 참고.

북한은 문민정부의 개혁정책을 모략 날조하여 특정인과 정부에 대한 비방 증상을 강화하고 만미, 반정부 투쟁을 선동하면서 국군 내부의 부조리와 농어촌 및 서민층간의 생활상을 왜곡, 날조하여 정부와 국민을 이간시키고 대정부 불신감을 조장하면서 고려연방제통일방안에 입각한 민족통일과 김정일을 통일대통령으로 부각시키면서 전민족회의 소집 등 위장 평화공세를 추진하였다.

특히 해외 교포를 대상으로 혁명의 결정적 시기에 무장투쟁을 주도할 수 있는 지하당 구축 공작과 한반도 공산화 통일의 장애가 되는 국가보안법 철폐, 주한미군 철수 투쟁을 전면에 내걸고 합법적이고 공개적인 대화 및 접촉공작을 전개하면서 북한을 축으로 전위조직과 한국내 반정부세력과의 연합전선 형성을 위한 통일전선공작 및 조총련을 비롯한 중국, 러시아 등 해외거점을 통한 우회침투공작에 총력투쟁을 경주하여 왔다.

김일성 사망 이후에는 대외적인 개방 압력과 주민들의 사상동요와 사기저하, 북한이탈주민의 증가등을 타개하기 위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조장하면서 한국체제 비난을 통해 고도의 심리전을 전개하였다.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대남 교란 작전에 중점을 두고 김정일에 대한 충성명세, 김정일 체제의 당위성 선전, 한국 사회문제를 왜곡, 모략하여 사회혼란 조성, 김정일 우상화, 국군 내 장교와 사병 간 이간 및

고립화 획책, 노사분규, 핵무장 및 평화협정체결의 정당성, 반미, 반정부, 반군 선동 사회 혼란을 조장하면서 위장평화 공세와 김정일의 영도력을 부각시키는데 중점을 두었다.

북한은 1996년 한총련 사태와 관련하여 “청년학생들의 새로운 통일행사를 남조선 당국이 유혈적으로 탄압했다”고 강조하면서 “민족대단결 10대강령을 높이 받들고 김정일의 영도에 따라 조국통일의 선구자적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을 선동하기도 하였다.¹³⁹⁾

2000년 6.15공동성명 이후에도 북한의 통일전선 전략과 대남심리전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은 일본, 미국, 중국 등 제3국을 통해 친북한 인터넷 사이트를 직접·간접적으로 개설하고 주체사상과 김일성, 김정일 부자 우상화, 우리식 사회주의체제의 우월성, 김정일의 영도력 등을 부각시키면서, 민족공조를 내세워 남한 내부갈등을 조장하고 반미, 반전운동과 국가보안법 폐지, 주한미군 철수투쟁을 부추기고 있다.

2000년 8월 1일에는 180개 구호를 생산해서 로동신문에 게재하였고, 2003년 구국의 소리방송을 통해 “인터넷은 국가보안법이 무력화된 공간이며 인터넷 게시판은 항일유격대가 다루던 총과 같은 무기”라는 지침을 내렸다.

더구나 국내의 진보계열 인터넷 사이트에는 북한의 선전물들이 여과 없이 게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근로조건 개선 및 임금투쟁, 노동악법 철폐 투쟁을, 농민들을 대상으로는 수매가 인상과 농수산물 개방 철회 투쟁을, 한총련·민노총·전농의 역할 강화 및 노·농·학 연대투쟁을 선동하는 한편 국군장병들을 대상으로 군의 자주화 실현, 군내 의식화활동

139) 내외통신사, 『내외통신』 종합판(62)(서울 : 내외통신사, 1996), 456면.

강화, 애국적 군인조직 결성, 자주, 민주, 통일 투쟁에 적극 동참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최근에는 기존의 전과 및 인쇄매체의 방법에서 진일보 한 각종 문예매체와 국제우편, 팩스,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여 적극적인 대남 모략 선전선동을 모색하고 위장평화 공세를 전개해 나가고 있다.

일본의 시사월간지인 『문예춘추』(文藝春秋) 2003년 1월호에는 2002년 김정일이 극비 지령한 『학습제강』을 “김정일 최신비밀지령”이란 제목으로 소개한 바 있다. 이 비밀문서를 통해 김정일은 “미제는 작년(2001년) 아프가니스탄 전쟁 후 우리에게 ‘악의 축’이라는 렷뎡을 붙여놓고 새로운 전쟁준비 책동에 광분하고 있다. 모든 군인은 이 학습을 통하여 적군와해공작이 갖는 의의와 중요성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공작준비에 모든 힘을 집중하여 각자가 적군와해의 명수가 되어야 한다...적군와해공작은 전쟁승리의 중요한 조건의 하나이다. 대포를 쏘고 총을 쏘는 것만으로는 적과 싸워 이길 수 없다. 와해공작을 강화하는 것이야말로 적을 사상적으로 무장해제 시킬 수 있다”고 심리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현대전이란 최신무기와 전투기술의 모든 것이 동원된 전후방의 구분이 없는 격렬한 입체전임과 동시에 고도의 지혜가 발휘되는 두뇌전이다. 상대측을 사상 심리적으로 와해시키는 일이 커다란 힘이 된다”고 김정일은 밝혔다.

북한은 2008년 대남 투쟁 방향으로 우리민족에 기초한 자주통일 및 평화번영 실현, 보수 및 친미사대주의 배격, 남북정당사회단체 연합, 국가보안법 철폐 투쟁을 제시하였다.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3월 28일에는 서

해상의 미사일 발사를 비롯하여 10여례에 걸쳐 전투기의 전술조치선 침범하였고, 815기계화군단의 남하 훈련을 강행하는 등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왔다.

또한 김태영 합참의장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북한이 소형 핵무기를 개발해 남한을 공격할 경우 어떻게 대처하겠느냐”는 질문에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을 만한 장소를 확인해 타격하는 것”이라는 답변에 대해 “선제타격 폭언”이라고 과민한 반응을 보이면서 “우리식의 선제타격이 개시되면 모든 것이 잿더미로 될 것”이라고 위협하고 정부의 ‘비핵·개방·3000’을 반통일 선언이자 핵문제에 장애만을 초래할 것이며 이 00 대통령을 역도라고 비난¹⁴⁰⁾하는 강경노선을 추구하고 있다.

최근 북한의 대남심리전 양상은 북한원전의 한국내 복제 출판을 유도하고 북한 영화나, 노래, 가극 등을 대대적으로 전파하면서 팩스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김일성, 김정일 부자 우상화, 북한체제 찬양, 민족공조, 민족자주통일, 국가보안법 폐지,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통일대통령으로 추대, 주한미군 철수, 한미간 이간, 한국 비방 등 반미, 반정부 투쟁의식을 고취하는 등 고도의 심리전을 전개해 나가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140) 「조선일보」, 2008. 3. 31.

제5장 대남심리전 대응책

제1절 대남심리전의 강점과 약점

북한의 대남심리전은 한반도 적화통일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대남 기본전략의 선봉적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강점을 갖고 있다.¹⁴¹⁾

첫째, 심리전 정책면에서 해방 후 현재까지 대남 기본정책에 입각한 일관된 심리전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다는 점이다.

김일성은 제5차 당 대회 보고를 통해 “우리의 당면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보장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의 혁명과업을 수행하는데 있으며 최종목적은 공산주의를 건설하는데 있다” 고 밝혔다.

북한은 대남심리전의 전략목표(대남 적화통일 지원)를 한반도 적화통일을 위한 반정부 및 반미모략 심리전을 전개하여 연공세력 확산으로 설정하였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한국사회에 공산주의 사상과 주체사상을 전파시키고 한국 사회를 무질서와 혼란에 빠뜨려 내부를 분열시키고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 지식인 등을 중심으로 하는 국민대중을 반체제적으로 유도하는 세 가지 전술을 사용하여 왔다.

① 선전선동 전술이다. 북한은 공산주의 사상을 전파시키기 위하여 공산주의를 선전하고 한국 사회 내부를 혼란, 분열시키기 위하여 흑색선전

141) 국가안전기획부, 『심리전 개요』(서울 : 안기부, 1984), 379면.

을 계속적으로 반복하였고 선전이 성공을 거두면 군중을 조직화하여 대중을 시위와 파업, 그리고 폭동을 꾀하였다.

② 테러전술이다. 남한사회의 지도급 인사들을 폭력으로 제거하고 테러로서 불안과 혼란을 야기하여 정부에 대한 국민대중의 불신감을 조성시키면서 폭력과 그 폭력의 선례에 대한 공포로 대중을 협박하여 정부와 협조를 불가능하게 만들고자 획책하였던 것이다.

③ 위장과 기만전술을 사용하였다. 공산주의자들은 모든 구호, 선언, 주장, 제안 등을 기만으로 위장 하고 있다.

북한은 기만과 위장전술을 자기들의 궁극적 목표가 달성 될 때까지 철저하게 지키면서 기만과 위장을 통하여 자기의 실체를 숨기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착각에 빠지게 만들어 결국 그들에게 유리한 정세를 조성시켜 나가고자 하였다.¹⁴²⁾

또한 철저한 폐쇄정책으로 외부의 선전 및 오염을 방지하고 외교의 심리전을 운용하면서 당의 직접적인 통제 하에 선전선동 수단들을 국가가 독점하고 여론을 임의 조작하는 등 교육 및 예술을 심리전 수단으로 활용하여 왔다.

특히 평시의 선전선동 체계가 전시에도 변함없이 수행할 수 있는 심리전 체제가 구축되어 있다.

둘째, 일원화된 심리전 기구와 조직으로 당의 의도 하에 심리전을 수행하고 있으며 각종 사회단체를 심리전 조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강점을 지니고 있다.

142) 육군본부, 『반공교육전서』(서울 : 대한민국 육군, 1981), 595면.

심리전에 관한 종합적인 지도 감독은 당 중앙위 정치국과 비서국에서 총괄하고 있으며 대남심리전은 통일전선부가 전담하고 있다.

정규보도 언론 체계는 대남방송위원회, 중앙통신위원회, 신문사 남조선부에서 수행한다.

대남방송위원회 산하에는 평양방송 및 개성TV방송위원회가 있으며, 중앙통신위원회 산하에는 대남보도편집부를, 노동신문과 민주조선, 노동청년 등 신문사에는 남조선부를 두고 있다.

조직기구 선전체계는 종교 및 근로전문조직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흑색방송 선전체계로는 구국의 소리방송위원회 산하 구국의 소리 및 민중의 메아리방송 편집위원회를, 해외동포 현지선전체계로는 반한 및 친북 조총련 현지소조를 두고 있다.

40호실위원회 산하 40호실에서는 각종 유인물을 제작하며 310호위원회 산하 310호 연락소를 통해 전단 살포 임무를 수행한다.

특히 인민무력부 총정치국에는 적공부→군단 정치부 적공부→사단 정치부 적공과→적공조를 두고 있고, 각 지역 직장에 이르기까지 심리전 전문요원이 배치되어 있다.

정당·대남 단체로는 조선천도교청우당, 조선사회민주당,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반제민족민주전선,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북측본부,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북측본부, 민족화해협의회, 단국민족통일협의회, 남조선의 비전향장기수구원대책 조선위원회, 남조선의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대책위원회, 조선평화옹호전국민족위원회, 재북평화통일촉진협의회 등이 있다.

대외 단체로는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조선대외문화연락위원회, 세계인민들과의 연대성조선위원회, 조선외교협회, 조선아시아·아프리카 단결위원회, 일제의 조선강점피해조사위원회, 조선일본군위안부

및 강제연행피해자보상대책위원회, 조선반핵평화위원회, 조선인강제연행 피해자유가족협회, 아시아여성들과 연대하는 조선여성협회, 조선유네스코민족위원회, 조선유엔식량 및 농업기구민족위원회, 조선유엔개발민족조정위원회, 유엔아동기금민족조정위원회, 일본의 과거청산을 요구하는 국제연대협의회조선위원회 등이 있다.

사회단체로는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조선직업총동맹, 조선농업근로자동맹, 조선민주여성동맹, 조선적십자회, 조선기자동맹, 조선자연보호연맹, 조선민주법률가협회, 조선중앙변호사협회, 조선학생위원회 등이 있다.

기타 경제단체로는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와 조선국제무역촉진위원회가 있으며, 종교단체로는 조선카톨릭교회협회, 조선그리스도교연맹, 조선불교도연맹, 조선천도교회중앙지도위원회, 조선종교인협의회가 있으며, 학술 및 체육단체로는 조선사회과학자협회, 조선문학예술총동맹중앙위원회, 조선과학기술총연맹중앙위원회, 조선건축가동맹중앙위원회, 국제문제연구소, 조선역사협회, 조선김일성·김정일화위원회, 조선올림픽위원회, 조선태권도위원회 등이 있다.

셋째, 심리전 예산을 우선적으로 편성할 수 있고 심리전 요원의 정예화 및 특수 관리, 심리전 소재를 자유자재로 적시적기에 사용하여 왔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북한은 우수한 심리전 자산으로는 예산의 약 20%를 정치사상사업의 일환으로 선전선동 분야에 투입하고 있으며, 방송수단이 국영화, 지하화되어 있고, 심리전 요원을 정예화, 특별관리 하고 있는 강점이 있다.

심리전 요원의 선발은 핵심 당원 중에서 엄격하게 선발하여 정치학교에서 체계적인 심리전 교육을 받고 배치하고 있으며, 각종 인사관리 측

면에서도 특전이 부여되고 있다.

또한 대남심리전 소재를 한국의 어두운 부분과 잘못된 부분을 다양한 소재로 파악하여 이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 대남심리전의 강점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북한의 대남심리전은 현재와 같이 정보의 통제 상황에서는 그들이 의도하는 대로 단기적인 심리전 기대효과를 창출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볼 때 강한 강철이 외부로부터 강한 힘을 잘못 받으면 구부러지는 것이 아니라 사정없이 부러지는 역학적 원리와 같은 것이라 하겠다.

대남심리전의 약점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심리전 정책면에서 북한의 폐쇄정책은 오히려 주민의 동경심을 과생시키고 과도한 보도통제로 주민의 불만을 고조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현재와 같은 정보통제의 상황에서는 북한이 의도하는 효과를 단기적으로는 기대할 수 있으나, 정보의 공개가 필수적임을 감안할 때 장기적인 욕구의 성취는 미비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방송, 신문 등 출판시설이 낙후하고 수적 열세에 놓여있으며, 과도한 통제로 인해 융통성과 창의력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이다.

셋째, 공산주의와 자본주의의 이념경쟁에서 자유민주주의의 체제의 우월성이 입증된 만큼 북한이 한국의 사정을 무시한 채 일방적인 허위선전을 일삼고 있다는 것은 그 신뢰성이 점점 약화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더구나 북한의 경제력이 남한의 35분의 1수준에 머물러 있고 북한이탈 주민이 1만 3천명이 넘어선 상황에서 북한의 실정은 한국 국민들에게 점점 가까이 접근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북한의 대남심리전에 비추어 볼 때, 한국의 대북심리전은 상해 임시정부를 계승한 민족 정통성과 상대적으로 월등한 경제력, 국제적 지위의 절대적 우위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심리전 정책을 추구하지 못하였다.

더구나 심리전을 전담하는 심리전 통합부서와 기구가 별도로 편성되어 있지 않은 채 심리전 협의회에 의해 각 부서가 수평조직을 갖고 심리전 업무 중에서도 방어 및 선무 심리전을 실시하고 있다는 점을 약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¹⁴³⁾

한국의 심리전 기구는 정보 및 공보체제로 이원화되어 있고, 집행기관의 분산과 기능이 미비하며 심리전운영면에서 상급제대로부터 하급제대까지의 통일성과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¹⁴⁴⁾

또한 심리전 요원의 양성 및 인사관리 측면에서 전문 교육기관의 부재와 빈번한 보직교류 및 비전문화가 약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통합된 심리전을 전개하기 위해 국가정보원(국가심리위원회)나 국방부(합동참모본부→국군심리전단), 문화체육관광부(KBS→사회교육방송) 등 정부조직 뿐만 아니라 민간기구 및 단체도 심리전에 과감히 참여할 수 있는 통합된 조직기구가 절실하게 요구된다.

143) 李愚貞, “최신북한전력, 엘리트의 변화와 정책전망”, 『통일문제 연구』 통권 제2호(서울 : 국토통일원, 1989), 39~53면.

144) 이수복, “통일정책 변화에 따른 남북한의 심리전 실태에 관한 비교연구”(석사학위 청구논문, 성균관대학원, 1992), 112~113면.

전술한 바와 같이 북한의 대남심리전은 북한 정권의 수립과 더불어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으며 앞으로는 사회주의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 조국통일 실현 조항이나, 당 규약에 명시되어 있는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혁명과업 완수,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와 공산주의사회 건설 조항 등을 포기하지 않는 한 대남심리전은 변함없이 전개될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대남심리전의 전개양상은 한국 국민들의 대북 적개심 해소, 동조세력 확산, 연합세력 분리, 친북세력 결집에 중점을 둘 것으로 전망된다.

① 대북 적개심을 해소하기 위해 북한은 자주, 민주, 통일에 기초하여 민족공조를 내세워 우리민족끼리 한반도의 제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는 대남심리전을 앞세워 나갈 것이다.

특히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은 남한에 대해서는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선전과 함께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면서 민족적 정서를 자극할 것으로 보인다.

② 동조세력을 확산해 나가기 위해서 북한은 민족을 내세워 북한의 논리를 적대적으로 생각하지 않도록 유도하고 반복적으로 주입 설득함으로써 친북세력을 통한 북한의 주의 주장에 관해 지지 세력을 확대하고 한국정부의 정책을 정면에서 반대하여 남남갈등을 유도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북한의 정통성과 우리식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 연방제통일방안, 주체사상을 대대적으로 전파시키고 김일성, 김정일의 투쟁업적과 영도력 등 김일성, 김정일 부자 이상화에 주력해 나갈 것이다.

③ 연합세력을 분리하기 위해 대남적화에 걸림돌이 되는 외부세력을

척결해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민족과 민족의 자존심을 내세워 외부세력 척결 및 자주성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고 주한미군을 민족의 적으로 내세워 한미갈등을 유도하고 주한미군 철수투쟁을 본격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대남적화통일의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한반도 긴장고조의 책임을 한미에 전가시키면서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북침도발 책동으로 날조하고 미국을 침략자, 한국을 미국의 식민지로 매도하면서 반핵, 반전운동과 평화협정 체결, 연방제통일 등 대남위장공세를 강화시켜 나갈 것이다.

④ 남한 내 친북세력을 강화하여 각계각층 핵심 분야에 침투시켜 지지기반을 확대시킴과 동시에 연합세력을 각개격파 하여 그들의 목적 달성에 기여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위해 친북세력의 조직 사상적 역량을 강화하면서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 지식인 등 각계각층을 대상으로 정부정책을 왜곡 날조하여 정치사상적 공세를 전개하고 대정부 불신조장, 혁명의식 고취, 사회혼란 및 국론분열 책동을 획책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제2절 한국의 대응방안

심리전 대응태세는 한반도에서 새로운 전쟁이 일어날 경우 전쟁을 승리에로 이끌기 위한 목적에서도 중요하겠지만 그 이전에 한반도에서 전쟁억제와 평화정착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실현하려는 국가목표 달성과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이끌어 내기 위한 당면 국가정책의 수행을 지원하는 목적에서도 반드시 준비되어야 한다.

심리전은 무엇보다도 인간의 정신과 의지를 공격의 대상으로 삼고 자기 진영의 사기를 북돋우고 적 진영을 교란시키는 정신의 조작이 심리전의 주요 목적¹⁴⁵⁾이기 때문에 심리전 목표 달성을 위한 대적심리전의 기본임무는 북한을 공격하고 다음으로 북한의 대남심리전에 대한 방어태세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한국의 대북심리전 방향은 진실에 바탕을 두고 선전기법도 북한의 변화하는 상황에 맞게 개발하여 우리가 요구하는 방향으로 북한 주민들을 적극 유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대적심리전 임무수행을 위한 심리전방법은 다음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① 공산주의자들의 비인간적, 비인도주의, 비도덕주의적인 점을 북한 주민들에게 이해시키는 사상적 비판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② 북한 내부의 모순점을 연구 분석하여 그들의 취약점과 맹점을 찾아내어 이를 공격하는 것이다.

③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우월성과 선진 한국의 경제적 풍요 상을 대대

145) 김우태, 『정치학 원론』(서울 : 형설출판사, 1992), 614면.

적으로 전파하여 한국을 동경하게 만들어야 한다.

④ 김정일 체제가 반민족적이며 반역사적임을 체계적으로 입증시켜야 한다.

⑤ 한국의 민족사적 정통성을 선양하여 북한당국의 반민주적, 반인륜적 측면과 남북한 사회의 민족적 감정을 세계 인류의 양심에 호소하고 고발¹⁴⁶⁾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방어적 심리전을 강화하여 스스로 자주민주주의 국민으로서 자질을 갖도록 추호도 북한의 대남심리전에 오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정치, 사상교육을 결속함과 동시에 필요성은 공산체제에 대한 사상적 대응책으로서 통일정책과도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시각에서 볼 때 통일 후의 국민형성을 위해서라도 절실히 요청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¹⁴⁷⁾

특히 북한이 대남적화통일 야욕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현 시점에서 우리의 대북 심리전은 국가목표와 국방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만단의 대응태세를 확립하고 남북합의서의 기본정신에 입각하여 유연하게 대처하면서 북한체제의 모순과 허구성을 만천하에 밝히고 한국사회의 우월성 홍보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이며, 합리적이고 신축성 있는 대응책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첫째, 북한의 대남심리전 전략 전술 및 심리전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

146) 이광현, “북한사회 개방화를 위한 심리전략 방안연구”, 석사학위청구논문(서울 :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1988), 44~50면.

147) 손태원, “북한의 대남조직전략에 대한 우리의 취약점에 관한 연구” (서울대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76), 72면.

석하여 이에 기초한 대북심리전 정책을 수립하고 통합적인 심리전 기구를 창설해야 한다.

북한은 한국전쟁 이후 대남심리전의 기본목표를 한반도의 공산화통일에 두고 시종일관 대남심리전 정책을 추구한 반면에 한국은 한반도에서 자유민주체제의 발전 및 경제발전과 복지사회의 구현, 분단된 국토와 민족의 재통일, 국제사회의 위신과 역할 향상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여 왔다.

북한의 대남심리전은 당 중앙의 정책 결정과 지휘 통솔 하에 일원화된 조직기구와 심리전 전문가들로 일사불란한 심리전 방송체계를 갖추고 있지만 한국은 국방부와 문화체육관광부, 국가정보원이 각각 별도로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심리전 수행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대북심리전 정책의 수립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북한의 변화를 예측하여 그에 합당한 중·장기적 목표와 방향설정이 정립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제1단계에서 북한 집단의 기본욕구를 자극하여 대상을 획득하고, 제2단계에서 대상을 완전히 장악한 다음 제3단계에서는 한국의 의도대로 북한의 행동화를 촉구할 수 있는 목표 및 방향 설정을 선행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북한의 체제변화가 불가피한 것으로 전망될 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대북전략의 기본 원칙은 단기적으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남북한 간에 물리적 충돌이 사회적 동요 없이 북한 체제를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북한 체제가 스스로 붕괴되어 평화적인 통일이 달성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단기간에 북한을 압박하여 붕괴를 촉진하기 보다는 화해와 협력을 통하여 쌍방간의 신뢰를 구축하고 서서히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배경 아래 우리가 선택할 심리전의 정책방향¹⁴⁸⁾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① 북한에 침략사태가 발생하여 한국에 유리한 상황이 도래하더라도 북한을 무력으로 점령하거나 강제로 흡수통일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정책 방향을 사전에 대내외적으로 홍보하고 우리의 심리전 정책이 지역의 안정을 바라고 있는 주변 국가들에게는 곤란하지 않게 하는 것이며 북한 주민들을 불안하지 않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② 대북심리전은 북한사회 일반주민의 의식변화를 유도하고 대남적개심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다시 말하여 북한 주민들의 현실을 정확히 재인식할 수 있도록 왜곡된 인식 구조를 교정하고 북한의 지도 노선 및 체제에 대한 지지와 지원을 철회하도록 유도해 나가야 한다.

③ 대북심리전의 내용은 경제난·식량난·고립화의 현실과 원인, 주체사상의 허구와 권력세습의 비합리성, 대남 적개심 태동의 본질에 대한 객관적 해석 등을 포함해야 한다.

④ 북한이 붕괴하여 통일이 되더라도 일반 주민들은 같은 동족으로서 대우받을 수 있으며 보다 낮은 환경에서 인간적인 대우를 받으면서 살 수 있다는 심리적 위안을 전달하는 일도 대북심리전 정책에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또한 심리전기구의 일원화를 위해서는 대통령직속 자문기관으로 심리전략정책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148) 임성기, “통일을 대비한 국방심리전 발전방향”, 1998.12 참고.

심리전략정책위원회는 정치, 경제, 군사, 학계, 노동계, 종교계 등 각 직능별로 심리전 전문가를 구성하고 국민적 합의를 도출한 심리전 목표를 획득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국가정보원, 문화체육관광부, 국방부, 외무부, 통일부 등 여러 부처에 산만하게 실시하고 있는 것을 한 부처에서 주관하고 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쳐 대통령 자문기관이 의도하는 방향대로 추진할 수 있다.

더구나 평시의 심리전을 전시체제로 급속히 이행하기 위해서는 각 유관 부서들의 유기적 결합 하에 국방부의 심리전 기구와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군내부의 대북, 대민, 대군심리전 업무가 국방부에서 말단 전방부대에 이르기까지 일원화 할 수 있는 통합적인 심리전 조직의 개편이 필요하다.

둘째, 북한의 대남심리전 접촉을 단절시키고 대남심리전 선전의 허위성과 부당성을 폭로하여 이를 역이용해야 한다.

북한의 심리전으로부터 오염된 후 이를 원상 복구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 따라서 국민의 심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북한의 심리공작 활동을 사전에 차단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현실적인 측면에서 북한이 전개하고 있는 다양한 심리전을 비롯하여 직·간접적으로 운영하거나 북한에 추종, 동조하는 국내외 친북 사이트를 모두 색출하거나 처벌한다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다.

특히 불특정 게시판을 이용한 대남심리전 확산이 문제가 되는데 모든 홈페이지는 주요 메뉴에 게시판을 구성하고 있고 이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삭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통제하기란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정부차원에서 대응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국가정보원과 국방부, 경찰청에서는 북한의 주요사이트의

동향과 향후 예상되는 문제에 전략적으로 대처하고 국가 차원의 대응기구로 국가사이버방어망 구축 및 사이버국군창설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북한의 대남심리전을 한국이 완전 차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에서 북한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사전에 접종시켜 면역이 생기도록 유통시키는 방안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통일부에서는 통일교육 차원에서 북한의 실상과 친북사이트의 실상을 알리고 학생들과 일반국민들을 대상으로 친북한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거나 전자우편의 이용, 송금 등은 남북교류협력이나 국가보안법에 위반된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어야 할 것이다.

또한 경찰과 검찰, 국가정보원, 군기무사 등 공안관련 부서들은 국내의 반국가단체 및 일부 친북 추종기관 사이트에서 허위, 날조 및 불순한 언동에 대해 적극적인 수사의지를 갖고 대처해 나가야 한다.

특히 인터넷을 통해 한국 국민 개개인을 대상으로 한 선전선동과 남한의 기간네트워크(교통·금융·전기·통신·수자원 망 등)에 대한 사이버 테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육·해·공군 뿐 아니라 제4군으로서 전자군의 창설방안도 고려해 볼 만 하다.

더구나 북한이 인터넷을 통한 대남심리전이 스펀메일 형태로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그 보안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인터넷 실명제도입도 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함께 내부에 침투된 심리전 요인의 근원과 심리전선전 내용을 말살시키기 위해서는 내부의 침투되어 있는 심리전 요원을 색출 및 체포하고 모든 불순서적류들을 사전에 제거함과 아울러 대내홍보활동을 강화하여 북한의 대남심리전이 고도의 기만성과 허구성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이에 현혹되지 않도록 허구성을 폭로하고 이를 사전 제거하여 확산을 막

아내면서 그들의 선전 자료를 역이용하여 오염방지와 선전자료 이용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셋째, 한국 내부의 취약성을 과감히 시정하고 우리의 우월성을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면서 대민선무활동을 강화시켜 나가야 한다.

한국은 북한에 비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사상 등 모든 분야에서 북한보다 우월함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전 국민이 자신감과 긍지를 갖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과 국민의 일체화를 이룩해 나가야 한다.

특히 급속한 경제성장 과정에서 국민의 물질적인 생활수준이 급격하게 상승한 반면 빈부의 격차, 농촌과 도시, 정부와 국민 간의 이질감을 확대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그 결과 민주정치의 주축이 되는 중산계층이 더욱 불안정하고 취약해진 것도 사실이다.¹⁴⁹⁾

따라서 우리사회 곳곳에 산재되어 있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과 이기주의적 성향, 부정부패, 특권의식, 불신과 대립 등 취약점과 불안요소를 과감하게 치유하고 공동체적 연대의식 속에서 국가발전의 혜택을 골고루 향유할 수 있도록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하여 국민정신교육을 함양시킴과 아울러 국민의 신뢰와 화합으로 민주복지국가 건설에 한걸음 다가서야 할 것이다.

대민선무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국민이 혼연일체가 되도록 정부는 국민을 위하고 국민은 국가를 내 집안처럼 최선을 다하는 기풍을 조성하고 부단한 노력으로 사회의 이룩하는 한편 철저한 국가관을 확립해 나갈 수 있도록 선도 및 교육이 요구된다.

넷째, 심리전 전문요원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대북심리전을 주도적으로

149) 한승조, 『한국 민주주의와 정치발전』 (서울 : 법문사, 1987).139면.

로 수행해 나가야 한다.

심리전 요원의 전문화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심리전 요원들을 선발하고 충분한 교육을 통해 그들의 신분을 보장해줌으로써 사명감을 갖고 일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줌과 동시에 철저한 사후관리를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심리전 요원의 선발기준을 강화하여 그들의 인품, 성격, 자질 등을 고려하여 선별하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심리전 전문요원 양성학교를 설립하여 일반이나 군인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교육 하에 운용하고 그 역할을 조직적으로 확대시켜 나가야 한다.

주도적인 대북심리전을 전개해 나가기 위해서는 북한으로 하여금 적화통일 야욕을 버리고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위한 사업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인내와 성의를 가지고 온갖 노력을 경주해 나가야 할 것이며, 북한 동포들에게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일깨워 주는 것이 중요하다.

더구나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 정보시스템을 우리의 전력으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정보체제의 구축과 심리전 정보의 전산화를 이룩하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여 보다 많은 정보를 수집하여 효과적이고 능동적인 심리전을 전개해 나가야 한다.

또한 북한정권의 대외 반환단체 활동을 무력화시키고 군 심리전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사단급에 정훈대를 편성하여 전시와 평시를 막론하고 기민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전문기구를 설치해야 할 것이다.

공세적 심리전을 주도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북한의 취약점을 심도 있게 도출하여 심리전을 수행하고 인간의 기본욕구가 저지되었을 때 불만이 생기고 그 불만상태에서 자기를 지키고 보호하려는 방어심이 발생¹⁵⁰⁾한다는 것을 명심하고 북한의 취약점에 대한 논리적 비판을 통해

150) 장병립, 『일반 심리전』 (서울 : 박영사, 1985), 125면.

김정일 체제의 불만을 자극하여 저항 심리를 조장하고 우리의 강점을 홍보하여 한국에 대한 동경심 유발 및 적대의식을 약화시켜 공산주의 사상·체제의 허구성을 인식시켜 나갈 때 우리의 대북심리전은 커다란 성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제6장 결 론

지금까지 북한의 대남심리전 실체와 전개양상 등을 분석 검토하고 한국의 대응방안을 모색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추론한 성과물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남심리전 전략전술과 심리전 체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었다.

북한은 국제정세의 변화와 정부의 지속적인 햇볕정책과 남북유화국면 속에서도 여전히 대남적화통일 야욕을 포기하지 않은 채 일관된 대남심리전 정책을 추진하여 왔다.

대남심리전 기본전략은 레닌의 공산혁명전략을 모방한 것으로 한반도의 적화통일을 이룩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으며 전술적 차원에서 선전 선동 전술, 테러전술, 위장과 기만전술을 사용하고 있다.

대남심리전의 기본방향으로는 한국 국민들 속에 공산주의 혁명사상을 주입시키고 대중적 투쟁기반 구축, 적화통일과 연계되는 심리전 전개, 적극적인 위장평화공세 추진, 한국사회의 내분 조장, 체제와해 및 남한 혁명에 유리한 국제적 환경 조성 등을 제시하고 강력하게 추진하였다.

따라서 북한의 대남심리전은 당규약과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회주의 완전승리,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 혁명과정 완수,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와 공산주의사회 건설이라는 기본 목표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의 대남심리전 체제는 당 중앙위원회를 정점으로 일원화된 조직기구를 갖추고 있다. 당 대회에서 심리전 정책이 추진되면 당 중앙위 비서국은 당과 내각의 심리전 기관에 심리전 지침을 하달하고 이를 지도감독 통제한다. 대내, 대외, 대남부분으로 세분화되어 있으며 대내외 심리전은 당 중앙위 선전선동부에서 대남심리전은 통일전선부가 전담하고 있다.

대남사업담당 비서(통일전선부장 겸임)의 총 책임 하에 통일전선부, 대외연락부, 대외조사부, 작전부, 인민무력부 정찰국을 통해 추진되며, 전문적인 차원에서 인민무력부 총정치국 적군와해공작부와 내각 산하 조선중앙방송위원회에서 담당 수행한다.

정규보도 언론 선전체계는 대남방송위원회(평양방송, 평양 FM방송, 개성 TV)와 중앙통신위원회(대남보도편집부), 신문사 남조선부(로동신문, 민주조선, 청년전위)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조직기구 선전체계는 종교 및 근로전문조직에서, 흑색방송 선전체계는 구국의소리방송에서, 해외동포 현지선전체계는 반한·친북 조총련 현지소조 및 주체사상 연구소조, 해외동포사업총국 등에서 담당하여 왔다.

통일전선부는 대남심리전을 계획, 운영, 지도감독, 총화 하는 부서이며 직속기관으로 남조선문제연구소와 40호실, 310호 연락소를 두고 있다. 40호실은 각종 전단 및 유인물을 제작하며, 310호 연락소와 인민무력부 총정치국 적공부에서는 전단 살포임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둘째, 심리전 매체별 운용 현황과 대남심리전의 시기별 특징, 전개양상 등을 면밀히 분석 검토하였다.

주요 심리전 매체로는 라디오와 TV, 확성기 방송, 전단, 서적, 대면, 시청각, 인터넷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왔으며, 최근에는 방송과 전

단 중심에서 인터넷 중심의 대남심리전을 강화시켜 나가고 있는 추세이다.

대표적인 대남심리전 방송매체로는 조선중앙방송, 평양방송, 평양FM방송, 구국의소리방송, 개성TV, 조선중앙통신사를 들 수 있다. 대남심리전에 방송을 중점적으로 활용한 이유는 방송이야말로 시간과 지역간의 제한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중성을 띠고 있고 현실적으로 가장 신속 정확하고 현실감 있게 전달할 수 있는 매체이기 때문이다.

주요방송 시간은 평양방송이 1일 23시간 30분, 평양FM방송 평일 8시간, 휴일 24시간, 구국의소리방송 8시간, 화성기방송 10시간 실시하여 왔다. 현재 개성TV와 화성기방송은 남북한 쌍방 합의에 따라 잠정적으로 중단된 상태이다.

북한은 2003년 구국의소리방송을 일방적으로 중지하고 2004년부터는 인터넷 홈페이지 구국전선을 개설하였으며, 2005년부터는 이를 반제민족민주전선으로 개칭하고 신년메시지, 시국선언, 방송 및 운동 강좌 등을 통해 한국변혁운동의 투쟁방향과 투쟁지침을 하달하고 있다.

전단은 규모와 내용의 구애를 받지 않고 선전 효과와 신뢰도가 높다는 장점에서 지난 40여 년 동안 적게는 연간 150만매에서 많게는 1600만매를 발행하여 살포하여 왔다.

1990년대에 들어서서는 휴전선과 수도권 일부 지역에 극한 되어 살포되었던 것을 확장하여 한국의 전지역을 사정권에 두었다. 전단은 통일전선부 40호실에서 제작하여 11개의 기지(인민군내 8개, 당 3개)를 통해 살포하였다.

주요 내용은 공산주의와 북한의 사회주의, 주체사상 찬양, 김일성, 김정일 부자 우상화, 월북 종용, 남한체제 불만 및 체제붕괴유도, 노사분규, 사회혼란, 각종 정치공세, 연방제통일, 주한미군 철수, 북미평화협

정 체결 등에 중점을 두었다.

서적은 북한이 발행하는 출판물 300여종(단행본 200여종, 일간·월간 등 124종) 중에 김일성저작집, 주체사상총서, 정치사전, 세기와 더불어 등 약 50여종을 선정하여 전단과 함께 살포하였고 일부는 친북단체 등을 이용 소포로 투입하여 대남심리전용으로 활용하여 왔다.

각종 선전구호판은 시각매개물의 하나로 1997년 기준으로 볼 때 입간판 321개, 전구전광판, 8개, 돌 글씨 20개로 나타났다. 주요 내용은 두 개의 조선반대, 미군 철수, 콘크리트장벽 철거, 주체조선, 믿음정치, 사랑정치, 핵무기 철폐, 주체사상만세, 지상락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북한 영화보기 운동 활성화를 기도하면서 영화, 음악, 무용 등을 소재로 한 비디오를 우회 투입하여 대학을 중심으로 운동권에 집중적으로 상영하는 한편 걸개그림이나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를 대학가에 부착하여 활용하도록 유도하여 왔다.

최근에는 친북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정치심리전 공세를 강화하면서 안보시스템의 무력화를 꾀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친북한 인터넷 사이트는 미국, 중국, 일본 등을 비롯하여 세계 20여 개국에서 운용되고 있으며, 국내 친북사이트는 90여개, 이념동아리 사이트는 2천여 개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 되었다.

더구나 이들 사이트에서는 북한의 대남심리전 자료들을 여과 없이 그대로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통해 게시하고 있으며, 북한의 대남심리전이 허위이고 부당함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다. 예를 들면 좌경세력의 골수인 주사파는 북한의 주체사상 및 혁명론을 그대로 추종하여 왔으며 한반도의 공산화 통일을 달성하기 위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시키려는 투쟁을 전개하여 왔던 것이다.

북한은 대남심리전을 전개함에 있어 한국사회 각 계층을 혁명의 주력군 및 보조역량으로 구분하고 대상별로 심리전 내용을 달리하여 왔다.

노동자 농민들을 대상으로는 생존권 옹호 및 생활 향상을 위한 임금문제, 노동조건 및 환경개선, 민주주의적 자유와 권리 쟁취, 반체 반미, 반자본가, 계급 혁명 민족의식 고취, 주체사상 침투 및 보급, 김부자 우상화, 북한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 혁명의 주력군으로서의 역할 수행, 혁명조직의 의식화 조직화, 계급투쟁의식 고취에 주력하였다.

청년 학생들을 대상으로는 각종 투쟁에서 선구자적 역할을 수행할 것, 주체사상을 노동자 농민들 속에 침투시켜 의식화 촉진, 반미 반정부, 반파쇼, 학원자율화 투쟁, 노농학 연대투쟁 등을 촉구하였고, 지식인 종교인들을 대상으로는 인권 및 민주화 문제를 이용해 반체제 운동에 중점을 두었다.

군인들을 대상으로는 미국의 식민지 용병이라는 반미 적대의식 고취, 군내부 갈등 및 이간 불신, 대립을 조장하여 분열 초래, 중상층 장교를 적대계급으로 규정하고 병사들과 중하층 장교들로부터 고립, 반전 염전 사상 고취, 명령 불복종, 반항, 반란, 귀순을 유도하는 등 군 내부를 와해, 약화시키는데 중점을 두었다.

대남심리전의 시기별 특징과 전개양상에 관한 6단계로 나누어 분석하고 이를 평가하였다.

① 제1단계 무력통일 추진기(1945~1953)에는 인민정권을 수립하고 친일파 및 민족반역자 숙청, 남한 단독정부 수립반대, 남북협상회의 개최 등 한반도 공산화를 위한 기만적인 위장평화 정치공세를 강화하였다.

또한 남로당 중심의 대규모 폭동과 파업, 사회혼란을 조성하면서, 무력남침 정당화, 북한군 사기진작, 국군과 미군 비방, 의용군 모집, 게릴

라 부대 및 남로당 저항투쟁 고무 추동 등 백색선전과 합법·비합법선전을 병행하여 추진하는 한편 방송매체를 통한 정치선전선동 및 북한이 발행한 신문, 잡지, 전단 등 출판물들을 한국에 대대적으로 유입시키는 방식을 구사하는 특징을 보였다.

② 제2단계 위장평화공세기(1954~1960)에는 남북총선거 및 다방면적인 남북교류 추진, 모든 외국군대 철수, 한국전쟁의 책임을 한미에 전가시키면서 위장평화공세를 본격화하였고 한국 내부의 교란을 위한 모략선전공세 및 친북 대외 지지기반 강화, 남한내 혁명적 대중기반 구축을 위한 선전공세를 강력하게 추진하였다.

주요 대남 선전선동 방식은 1950년대 중반까지는 게릴라에 의한 비합법 선전과 남파공작원에 의한 북한 출판물의 유입 배포를, 1950년대 후반부터는 방송을 통한 대남선전에 중점을 두었다.

③ 제3단계 폭력혁명시도기(1961~1970)에는 4.19의거를 지지성원 하고 혁신정당 활동 고무 선전, 주한미군 철수, 군사정권 비난, 지하당건설 강화, 무장도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반미구국통일전선 형성, 조총련을 통한 대남 정치선전공세를 강화시키는 특징을 보였다.

특히 유선방송체계를 확립하고 중앙방송과 평양방송 외에 흑색방송인 남조선해방 민주민족연맹방송, 전방의 확장기 방송을 병행하여 추진하는 등 선전체계의 다원화를 보였다.

또한 북한에서 발행한 간행물들을 남파간첩, 조총련 등을 통해 한국에 살포하는 정치 선전선동과 다른 한편으로는 무장공비를 침투시켜 구두선동과 선전책자 및 선전물 살포 등의 정치 선전선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왔다.

④ 제4단계 대화와 대결 병행시기(1971~1980)에는 북한의 사회주의 제도 및 주체사상 찬양, 김일성 우상화, 한국정부를 군사파쇼독재로 매

도하고 미주, 구라파 등 해외 반한교포세력을 결집시키면서 북미 평화협정 체결, 10.26사태와 관련한 모략선전, 위장평화 정치선전공세를 강화시켰다.

더구나 통일혁명당 목소리방송의 출력을 30배로 증폭시키고 방송시간을 30시간 이상으로 확대하는 한편 휴전선 일대의 대남 확성기 출력을 증폭시키고 방송 초소 증설, 전단 및 선전물 살포 등 한국사회의 혼란과 분열을 조장하는 등 대대적인 반미, 반정부 선전선동 공세를 전개하였다.

⑤ 제5단계 반정부 연합전선 형성기(1981~1993)에는 모든 심리전 매체를 총동원하여 한국의 민주화운동에 편승한 학생, 노동자, 농민을 중심으로 반미, 반정부 투쟁의식을 함양시켜 반정부 연합전선 형성에 주력하여 왔다.

특히 북한의 사회주의 제도와 김일성, 김정일 부자 세습의 당위성을 피력하면서 남북대화 문제 왜곡 비방, 허위날조 및 인신공격을 자행하는 한편 한국사회의 불안을 조장하고 해외공작거점을 발판으로 한 유학생 및 저명인사들의 방북을 유도하는 등 상층부 통일전선전술을 구사하는 특징을 보였다.

⑥ 제6단계 남북화해와 평화공존 모색기(1994~현재)에는 우리식 사회주의 체제의 우월성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영도력 등을 부각시키면서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철폐, 한국 정부와 국민이간, 위장평화공세 강화, 북미평화협정 체결 투쟁 등 과거와 변함없는 대남 선전선동 공세를 취하여 왔다.

또한 합법적이고 공개적인 대화 및 접촉공작을 전개하면서 북한을 축으로 전위조직과 한국내 반정부세력과의 연합전선 형성을 위한 통일전선 공작 및 조총련을 비롯한 중국, 러시아 등 해외거점을 통한 우회침투공

작에 총력투쟁을 경주하고 있다.

1990년대 중반에는 대남 교란 작전에 중점을 두고 김정일에 대한 충성 맹세, 김정일 체제의 당위성 선전, 한국 사회문제를 왜곡, 모략하여 사회혼란 조성, 김정일 우상화, 국군 내 장교와 사병 간 이간 및 고립화 획책, 노사분규, 핵무장 및 평화협정체결의 정당성, 반미, 반정부, 반군 선동 사회 혼란을 조장하면서 위장평화 공세와 김정일의 영도력을 부각시켜 왔다.

2000년 6.15공동성명 이후에도 북한의 통일전선 전략과 대남심리전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은 일본, 미국, 중국 등 제3국을 통해 친북한 인터넷 사이트를 직·간접적으로 개설하고 기존의 전파 및 인쇄매체의 방법에서 진일보 한 각종 문예매체와 국제우편, 팩스,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여 적극적인 대남 모략 선전선동을 모색하는 등 위장평화 공세를 추구하고 있다.

최근 북한의 대남심리전 양상은 북한원전의 한국내 복제 출판물 유도하고 북한 영화나, 노래, 가극 등을 대대적으로 전파하면서 팩스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김일성, 김정일 부자 우상화, 북한체제 찬양, 민족공조, 민족자주통일, 국가보안법 폐지,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통일대통령으로 추대, 주한미군 철수, 한미간 이간, 한국 비방 등 반미, 반정부 투쟁의식을 고취하는 등 고도의 심리전을 전개해 나가는 특징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대남심리전의 강점과 약점, 한국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대응방안을 모색하였다.

북한의 대남심리전 강점으로는 당 중앙위원회를 정점으로 일원화된 심리전 조직기구를 갖추고 있으며, 일관된 심리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 각종 사회단체를 심리전 조직으로 활용할 수 있고, 심리전 예산의 우선 편성, 심리전 요원의 정예화, 다양한 심리전 소재를 자유자재로 적시적기에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강점으로 평가하였다.

대남심리전 약점으로는 심리전 정책면에서 폐쇄정책이 오히려 주민들의 동경심을 파생시킬 뿐 아니라 과도한 통제로 인한 주민불만이 고조될 수 있다는 점, 신문 및 방송, 출판시설들의 낙후성과 심리전 요원의 창의력 및 융통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일방적인 허위선전으로 인한 신뢰성 약화를 지적하였다.

한국의 문제점으로는 민족적 정통성을 갖고 있으며 월등한 경제력과 국제적 우위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대북심리전 정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지 못한점, 통합적인 심리전 기구 및 심리전 전문교육 기관의 부재, 공세적 심리전보다는 방어 및 선무 중심의 심리전을 추진하여 왔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도출하였다.

북한이 대남적화통일 야욕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현 시점에서 우리의 대북 심리전은 국가목표와 국방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만단의 대응태세를 확립하고 남북합의서의 기본정신에 입각하여 유연하게 대처하면서 북한체제의 모순과 허구성을 만천하에 밝히고, 북한의 대남심리전 실태를 정화하게 파악하여 이에 기초하여 종합적 심리전 정책 수립, 통합적인 심리전 기구 창설, 대남심리전 접촉 단절 및 대남심리전 역이용, 한국 내부의 취약성 해소, 심리전 요원의 체계적 양성, 대민선무 강화 및 주도적 대북심리전 추진 등을 한국의 대응방안으로 제시하였다.

이를 실현해 나가기 위한 대북전략의 기본 원칙을 단기적으로는 북한이 변화하는 과정에서 남북한 간에 물리적 충돌이 사회적 동요 없이 북한 체제를 변화시키면서 장기적으로는 북한 체제가 스스로 붕괴되어 평

화적인 통일이 달성되도록 유도하는데 두었다. 따라서 한국이 단기간에 북한을 압박하여 붕괴를 촉진하기 보다는 화해와 협력을 통하여 쌍방간의 신뢰를 구축하고 서서히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대북심리전 정책방향으로는 북한에 위급사태가 도래하더라도 무력으로 북한을 점령하거나 흡수통일을 강제로 진행시키지 않을 것임을 주변국가 및 북한 주민들에게 인지시키는 홍보를 강화하면서 북한의 의식변화를 유도하고 대남적개심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것을 제안하였다.

대북심리전의 주요 내용으로는 경제난·식량난·국제적 고립의 현실과 원인, 주체사상의 허구 및 권력세습의 비합리성, 대남 적개심 태동의 본질에 대한 객관적 해석 등을 포함시켰다.

통합적 심리전 기구의 창설을 위해서는 대통령직속 자문기관으로 심리전략정책위원회를 설치하여 한 부처에서 심리전을 주관하면서 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쳐 대통령 자문기관이 의도하는 방향대로 대북심리전을 추진하고 정부차원에서 군과 민간, 언론이 상호협력 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함을 밝혔다.

더구나 평시의 심리전체제를 전시체제로 급속히 이행하기 위해 국방부를 중심으로 각 유관 부서들의 협조체계를 강화하면서 군내부의 대북, 대민, 대군심리전 업무를 국방부에서 전방사단에 이르기까지 심리전 조직 개편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대남심리전 접촉을 단절시키고 대남심리전을 역이용하기 위해서는 북

한에 추종, 동조하는 세력을 발본색원하면서 북한의 주요 사이트 동향과 향후 예상되는 문제에 전략적으로 대처하면서 국가 차원의 대응기구로 국가사이버방어망 구축 및 사이버국군창설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제안하였다.

국내 가입자의 북한 사이트 이용을 추적하고 해외망을 통한 북한홈페이지 접속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면서, 인터넷을 이용한 북한의 대남 왜곡 날조선전에 대한 대응논리를 개발하고 이를 확산시킬 수 있는 사이트의 개발을 비롯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특히 북한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사전에 접종시켜 면역이 생기도록 하기 위해 서는 통일부를 중심으로 북한 및 친북사이트의 실상을 알리고, 경찰과 검찰, 국가정보원, 군기무사 등 공안관련 부서들은 국내의 반국가단체 및 일부 친북 추종기관 사이트에서 허위, 날조 및 불순한 언동에 대해 적극적인 수사의지를 갖고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한국 내부의 취약성을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우리사회 곳곳에 산재되어 있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과 이기주의적 성향, 부정부패, 특권의식, 불신과 대립 등 취약점과 불안요소를 과감하게 치유하고 공동체적 연대의식 속에서 국가발전의 혜택을 골고루 향유할 수 있도록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하여 국민정신교육을 함양시킴과 아울러 국민의 신뢰와 화합으로 민주복지국가 건설을 도모해 나가야 한다.

대민선무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국민이 혼연일체가 되도록 정부는 국민을 위하고 국민은 국가를 내 집안처럼 최선을 다하는 기풍을 조성하고 부단한 노력으로 사회의 이룩하는 한편 철저한 국가관을 확립

해 나갈 수 있도록 선도 및 교육이 요구된다.

심리전 전문요원의 전문화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심리전 요원들을 선발하고 체계적인 교육 하에 운용하면서 그 역할을 조직적으로 확대시켜 나가야 한다.

주도적인 대북심리전을 전개해 나가기 위해서는 북한으로 하여금 적화통일 야욕을 버리고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위한 사업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인내와 성의를 가지고 온갖 노력을 경주해 나가야 할 것이며, 북한 동포들에게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일깨워 주는 것이 중요하다.

대적심리전 측면에서는 진실에 바탕을 두고 선전기법도 북한의 변화하는 상황에 맞게 개발하여 공산주의자들의 비인간적, 비인도주의, 비도덕주의적인 점을 북한주민들에게 이해시키는 사상적 비판을 강화하면서 한국의 우월성, 북한당국의 반민주적, 반인륜적 측면과 남북한 사회의 민족적 감정을 세계 인류의 양심에 호소하면서 북한 내부의 모순점과 취약점을 찾아 공격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방어적 측면에서는 스스로 자유민주주의 국민으로서 자질을 갖도록 추호도 북한의 대남심리전에 오염되지 않도록 대응책을 강구해 나갈 것을 주장하였다.

참고문헌

1. 국내 문헌

- 고준봉, 심리전략 시론. 서울 : 고려서적, 1982.
- 공보부역, 심리전의 매체 방법 및 기술. 서울 : 공보부, 1963.
- 국가안전기획부, 북한의 선전선동 체계. 서울 : 안기부, 1988.
- _____, 심리전 개요. 서울 : 안기부, 1984.
- _____, 특수전. 서울 : 안기부, 1982.
- 국가정보대학원, 북한체제연구. 서울 : 국가정보대학원, 1999.
- 국정사, 정보실무참고서. 서울 : 국정사, 1992.
- _____, 정보실무참고서. 서울 : 국정사, 1995.
- 국방부, 국방백서(1994-1995). 서울 : 국방부, 1994.
- _____, 국방백서(1996-1997). 서울 : 국방부, 1996.
- _____, 국방백서(1997-1998). 서울 : 국방부, 1997.
- _____, 최근 북괴심리전 동향. 서울 : 국방부 정훈국, 1989.
- 국토통일원, 북괴의 대남심리전 현황분석 및 대응책. 서울 : 국토통일원, 1985.
- 金基道, 정치선전과 심리전략. 서울 : 도서출판 나남, 1989.
- 김우태, 정치학 원론. 서울 : 형설출판사, 1992.
- 내외통신사, 내외통신 종합판 62. 서울 : 내외통신사, 1996.
- _____, 북한조감. 서울 : 내외통신, 1994.
- 민권기, “북한의 대남심리전과 그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6.

- 박갑수, “북한의 대남 심리전 내용 및 전개양상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서울대학교, 1987.
- 박현민, 북한의 언론 그 실체. 남북문제연구소, 1993.
- 북한연구소, 공산군의 정치조직제도, 북한연구총서. 서울 : 북한연구소, 1978.
- _____, 대남심리전 분석자료. 서울 : 북한연구소, 1993.
- _____, 북한대사전. 서울 : 북한연구소, 1999.
- _____, 북한총람. 서울 : 북한연구소, 1983.
- 빅터마제티, 존 마크스, 조순환 역, CIA. 서울 : 한일문고, 1974.
- 선동식, 심리의 전쟁. 서울 : 영진문화사, 1979.
- 설광수, 합동참모본부. 1995. 1.
- 손태원, “북한의 대남조직전략에 대한 우리의 취약점에 관한 연구”, 서울대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76.
- 송경호, “북한의 대남심리전에 관한 연구”, 공안연구 제51집. 경기 : 공안문제연구소, 1998.
- 宋泰均, 間接戰略. 서울 : 兵學社, 1982.
- 왕승, 국제홍보사 역, 정치작전개론. 서울 : 국제홍보사, 1971.
- 유동열, “2008년 북한의 대남전략 전망”, 2008년 북한정세전망과 새정부의 과제. 서울 : 자유민주연구학회 제10차 세미나, 2008.
- 육군대학, 군사평론 제156호, 월남전과 심리전. 서울 : 육군대학, 1972.
- 육군본부, 걸프전 분석. 서울 : 군사연구실, 1991.
- _____, 반공교육전서. 서울 : 육군본부, 1981.
- _____, 북괴군 심리전. 서울 : 육군본부, 1989.
- _____, 심리작전 야전교범 33-5. 서울 : 육군본부, 1980.
- _____, 심리전실무참고. 서울 : 육군본부, 1973.
- _____, 심리전. 서울 : 육군본부 야전교범 33-5, 1988.
- _____, 심리전(적전술편람) 제1집. 서울 : 육군본부, 1976.

- _____, 심리작전. 대전 : 육군본부, 1992.
- 원우현, 여론선전전. 서울 : 법문사, 1986.
- 월간조선, 2003년 4월호.
- 李光憲, 北韓開放化 心理戰. 서울 : 국방부, 심리전 자료 91-1, 1991.
- _____, 현대사회와 심리전략. 서울 : 화일, 1993.
- 李啓熙, “북한의 사상정책과 정치교육”, 통일문제연구 통권 제1호. 서울 : 통일문제연구원, 1989.
- 이상중, “한국의 심리전 연구”,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1.
- 이수복, “통일정책 변화에 따른 남북한의 심리전 실태에 관한 비교연구”, 석사학위 논문, 성균관대학교, 1992.
- 李愚貞, “최신북한전력, 엘리트의 변화와 정책전망”, 통일문제 연구 통권 제2호. 서울 : 국토통일원, 1989.
- 이항구, 심리전 연구보고서. 서울 : 국방부, 1989.
- 임봉춘, “북한의 대남심리전에 대한 효과분석”,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1992.
- 자유아카데미, 북한과 공산전략. 서울 : 자유아카데미, 1976.
- 자유평론사, 공산주의와 언론. 서울 : 자유평론사, 1976.
- 장병림, 일반 심리전. 서울 : 박영사, 1985.
- 정신문화연구원, 북한의 실상. 서울 : 정신문화연구원, 1986.
- 鄭允武, “북한의 대남심리전”, 안보연구 제17호. 서울 : 동국대학교 안보연구소, 1987.
- _____, 현대정치 심리전. 서울 : 박영사, 1989.
- _____, 現代政治와 心理戰略. 서울 : 博英社, 1974.
- 주간동아, 2003년 4월호.
- 차배근, 커뮤니케이션학 개론(하). 서울 : 세영사, 1982.
- 채백, 이범수역, 혁명과 커뮤니케이션. 서울 : 이성과 현실사, 1987.

- 통일원, 북괴의 대남심리전 현황분석 및 대응책. 서울 : 통일원, 1985.
- _____, 북한개요. 서울 : 통일원, 1995.
- _____, 월간 북한동향. 서울 : 통일원연수소, 1994.
- 통일연구원, 북한의 대남혁명전술. 서울 : 통일연구원, 1993.
- 평화문제연구소, 통일, 북한 핸드북. 서울 : 평화문제연구소, 1997.
- 평화통일연구소, 북한개요. 서울 : 평화통일연구소, 1986.
- 한승조, 한국 민주주의와 정치발전. 서울 : 법문사, 1987.
- 합참본부, 대북심리전 작전방향 1994~1996. 서울 : 합참, 1994.
- _____, 99대북 심리전 지침. 서울 : 국방부, 1999.
- _____, 북한의 대북 심리전에 대한 방어체계. 서울 : 합참본부, 1999.

2. 북한 문헌

- 김일성, 김일성저작선집 (4). 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68.
- _____, 김일성저작선집 (5). 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68.
- 사회과학출판사, 정치사전. 평양 : 사회과학출판사, 1973.
- 허중호, 주체사상에 기초한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리론. 평양 : 사회과학출판사, 1975.

3. 외국 문헌

- Daugherty, William E. 「Psychological Warfare」,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the Social Sciences, London : The Macmilian Company & The Free Press, 1968.
- John C. Clews, Communist Propaganda Techniques, Frederick A.

- Praeger : New York, 1964.
- Linebarger, Paul M. A. Psychological Warfare, Washington, D. C :
Combat Forces Press, 1954.
- Mitchell, Malcom G. Propaganda, Polls and Public Opinion,
Englewood Cliffs, N.J, : Prentice · Hall, 1970.
- Qualter, Propaganda and Psychological Warfare, New York :
Random House, 1968.
- U.S. Army, Field manual 33-5; Psychological Operation,
Washington, D. C, 1962.
- W.J. Severin & J.w. Tankard, Jr. Communication Theories, New
York : Hasting House Publishers, 1979.
- 岩島久夫, 心理戰爭. 東京 : 講談社 : 1969.

4. 기타 자료

- 동아일보, 2004. 9. 9.
- 로동신문, 1982. 6. 28.
- 로동신문, 1991. 5. 12.
- 연합뉴스, 2003. 4. 18.
- 조선일보, 1989. 6. 27.
- 조선일보, 2008. 3. 31.
- 중앙일보, 2003. 2. 25.
- <http://www.dprkorea.com>.2008.5.17.
- <http://www.uriminzokkiri.com>.2008.4.18.
- <http://ijunnong.net>.2008.5.19.
- <http://www.615.or.kr>.2008.5.17.
- <http://www.tongilnews.com>.2008.5.17.

책임연구보고서 2008-18

북한의 대남심리전 양상과 대응방안 연구

발행일 : 2008년 12월 26일

발행인 : 김 길 배

발행처 : **치안정책연구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연동1길 29

홈페이지 : www.psi.go.kr

이 책의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이 책자에 게재된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치안정책연구소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혀둡니다.



POLICE SCIENCE INSTITUTE